

2005 연구보고서-13

기술집약형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양 인 숙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난 주 (연구원)

발 간 사

우리 경제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기술기반의 벤처기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분야 등 첨단산업 부문의 벤처창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벤처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발맞추어 다양한 지원정책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벤처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벤처기업 수는 2005년 5월 현재, 8,712개사에 이르며, 이 중 여성 벤처기업은 3.3%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수는 2003년 1,146천개를 넘어섰고, 전체 사업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신기술 분야의 여성 벤처창업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이 전통적 여성집중 업종에 치중되어 왔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구체화된 시책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 여성인력들의 벤처산업 진입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여성의 벤처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한 여성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연구진과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연구요약

I. 서론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산업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는 21세기 지식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을 벤처산업과 벤처기업으로 설정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우선적 정책과제로 삼았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출발은 80년대 초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태동하면서 시작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벤처창업의 붐으로 이어져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우리나라의 벤처 붐은 정부의 적극적 벤처정책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지만,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세계 기술주 시장의 주가 동반상승 등의 대외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육성특별조치법으로 칭함)이 제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입지, 인력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벤처열풍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2000년을 정점으로 벤처 붐이 붕괴되었고, 최근까지 벤처 침체가 장기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성장과 변화 속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위상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2005년 5월 현재, 정부확인 여성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확인기업 8,712개사 중 3.3%(284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36%(1,146천개, 2003년)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여성기업이 생계형 창업증가에 의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성 벤처기업의 저조한 출현은 근본적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의 수가 적으며, 벤처산업에의 진입비용이 높고 위험감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이 전통적 여성집중 업종에 치중되어 왔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구체화된 시책이 미흡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벤처창

업자와 벤처기업의 특성,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확인 벤처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벤처정밀실태조사'에서도 남녀 벤처기업에 대한 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벤처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전체 벤처기업에서 여성 벤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성 벤처의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벤처육성특별조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법의 보완을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벤처캐피탈 회사를 통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벤처산업 진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절대적 수가 부족하고, 성공한 여성 벤처기업이 적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창업 지원 통로가 차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직은 잠재력 있는 여성 인력에게 기업가형 창업(entrepreneurial startup)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여성 벤처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성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여성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 지원시책으로 여성사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기업의 육성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여성기업이 양적 확대에 못지않은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창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기업가형 창업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벤처지원 정책의 변화 속에서 신기술 분야의 여성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첨단 신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집약적이고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high-tech, high-risk, high-return)을 말하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육성특별조치법으로 칭함)을 제정하고, 법령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등록되면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 공통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가지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기업은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주식(신주에 한함) 인수총액 또는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그 비율로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한 기업이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업은 창업 후 업력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나, 공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창업 3년 이상인 경우,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에 해당한다. 창업 1년 이상 3년 미만인 기업은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1년 미만 기업인 경우는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이 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신기술 기업은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정부출연기술(기술개발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술에 한함)을 이

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공히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벤처육성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7년 8월은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의 문제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장기적 경제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던 시기이다. 벤처육성의 의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외형적 성장의 대량생산 구조에서 기술 및 지식집약적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 못지않게 산업기반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세계적인 벤처 붐의 조류 속에서 우리 경제에서도 벤처기업이 재벌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고학력 미취업자 증가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대기업은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경비절감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고용창출의 주체로 떠올랐다. 벤처기업은 신규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전직 기술인력을 흡수하여 고용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통한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새로운 시장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의 육성은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금융부문의 확대와 전체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온다. 벤처기업의 성장은 부동산이나 물적 담보를 요구하던 금융기관의 관행을 깨뜨리고, 미래가치에 기반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III.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징

정부의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파악된 여성 벤처기업 수는 전체 벤처확인기업의 3.3% 284개사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사업체에서 여성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35.7%를 감안하면, 여성 벤처창업이 지극히 미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법적형태는 남성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가장 많았으나, 주식회사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95.0%)에 비해 여성 벤처기업(88.4%)이 낮게 나타났다. 기업공개 현황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97.2%가 미공개인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93.1%가 미공개기업이었다. 남성 벤처기업이 향후 기업공개에 대해 54.6%가 의사가 있음을 나타낸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45.7%만이 기업공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공개를 통한 적극적 성장의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벤처기업의 재무상황은 자본, 자산, 부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고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 또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다. 자기자본비율,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모두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은 109.8%로 남성 벤처기업의 139.0% 보다 낮았다.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금융비용과 부채비율이 낮아, 자본구조가 건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실적을 보면, '기술개발자금'의 활용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에서 모두 4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중소·벤처 창업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 '특정연구개발자금'의 활용 비율은 낮았다. 정책 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평균 자금 활용액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이 5,323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5,873만원보다 550만원 적었다.

해외진출은 여성 벤처기업의 35.5%가 진출한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그 비율이 48.0%로 여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다. 해외 수출 및 투자실적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한 여성 벤처기업은 한 개사도 없어 여성 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이 남성 벤처기업에 뒤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진출지역에서도 남성 벤처기업은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해외진출 장애요인으로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우수한 파트너 발굴애로'와 '자금부족', '전문인력부족'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남녀 벤처기업 각각에 요인을 분석하려 했으나 여성 벤처기업의 표본수가 극히 미비하여 성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성장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성별은 매출액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구개발투자', '기업규모', '석사이상 근로자수' 등이었다. 이중 '연구개발투자비'의 자승항(SqRnD) 만이 매출액성장에 (+)의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기업규모가 클수록, 석사이상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매출액성장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벤처기업일 수록 매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자금 면에서는 소규모 경영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외진출, 기업공개, 신규 투자에 대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은 여성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창업 초기부터 정부의 지원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기 여성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신장과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IV. 기술집약형 여성 벤처기업의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대표이사 특성에서 남녀 벤처기업의 차이는 대표이사의 전공계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여성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이 35.8%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자연공학계열'이 56.4%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이전 경력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국내 중소기업 근무'가 30%대로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고,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가사'가 12.2%로 분포하는 것이 남성 벤처기업과 다른 점이었다. 이전 경력과 현재 기업의 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63.0%가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 벤처기업의 90.2%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 벤처기업인의 인문사회계열 전공 비중이 높고, 이전 경력분포에서 '가사'와 '미취업'이 높게 나타나 기술관련 전공 및 직업경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벤처확인 유형에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신기술기업'이 가장 많은 것

은 동일하였으나, 신기술기업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은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고, '연구개발기업'과 '예비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여성 벤처기업의 업력 분포는 남성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이상~10년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업력 또한 남성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3.8년이었다.

여성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84.0%로 남성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 65.9% 보다 높았다. 여성인력 비율은 남성 벤처기업이 60.5%로 여성 벤처기업의 44.9% 보다 높았으나, 여성인력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남성 벤처기업이 46.0%로 여성 벤처기업의 여성인력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27.1% 보다 높아 남성 벤처기업에 고용된 여성인력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인력 분포에서는 '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 14.7%로 남성 벤처기업의 13.4%보다 높았다. 직종별 평균인원에서는 '생산직'이 여성 벤처기업 14.3명, 남성 벤처기업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직'은 여성 벤처기업이 6.9명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4.2명보다 많았다.

직종별 인력 수급 상태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영업·마케팅'인력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대해 60%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인력수급이 비교적 원활하였다.

'연구개발직'의 인력 충원 방법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학교 추천', '관련 업계 전문지 구인광고',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소개소', '신문, 라디오, 매체 이용', '거래처' 등의 이용률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아 여성 벤처기업이 공식적인 인력 충원 방법을 남성 벤처기업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복리 후생 제도에서는 '연봉제' 실시가 여성 벤처기업 68.2%, 남성 벤처기업 69.0%로 남녀 벤처기업에서 모두 높았다.

연구개발(R&D) 활동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90%이상 수행하고 있었고 수행주체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가장 많아 자체조직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 남성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여성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높은 것에서 차이는 약간 있었다. 자체조직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만큼, 연구개발 방식도 ‘자체 개발’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70%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차이가 있다면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산·학·연 공동개발’의 비율은 높고 ‘기술도입’ 비율은 낮은 것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55.1%, 남성 벤처기업의 53.0%가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부문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기술부문’이 많았는데 특히, 여성 벤처기업은 ‘기술부문’에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89.8%나 되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5%미만이 가장 많았고 100%이상 투자하는 기업도 여성 벤처기업이 3.3%, 남성 벤처기업이 2.5%나 되었다.

2003년 대비 2004년 당기순이익 변화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의 69.9%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동 기간에 남성 벤처기업은 54.7%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증감과 기업환경능력을 연계해 본 결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벤처기업들의 기업환경 능력에 대한 자체평가는 ‘경영’, ‘영업’ 부문이 ‘산업’과 ‘거시환경’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평가한 것이 많았고 남녀 벤처기업의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의 기업환경 능력에 대한 결과는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심각한 쪽으로 평가한 점수가 높았고 ‘경영’, ‘영업’ 부문 보다 ‘산업’, ‘거시환경’에 대해 심각하다고 보는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높았다.

자금 조달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창업가 본인’과 ‘자체신용’의 비율이 높았고 투자기관별 평균 투자금액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모두 적은 가운데 격차가 가장 적은 것은 ‘중진공 정부투자기관’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활용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두 남성 벤처기업 보다 활용비율이 떨어졌다. 정책자금 활용 만족도에서는 ‘창업자금지원’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만족도가 50.0%로 남성 벤처기업의 27.3%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차이가 났으며 나머지 정책자금의 만족도에서는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높아 비교가 되었다.

정책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 '보증기관의 이용방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자금지원 규모가 작다' 등을 많이 지적한 것은 동일하였으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을 원한다'가 5.6%나 되었다.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자산, 매출, 자금 지원 등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으나 벤처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과 관련하여 연구인력 확보와 산업재산권 취득, 연구개발(R&D) 활동에서는 남성 벤처기업과 비교해 뒤지지 않았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이나 취득 건수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성과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다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자금 활용 비율이나 투자 금액 실적이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즉, 정부는 소수이지만 건실하게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운영 자금 지원과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 자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부가 향후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과 더불어 여성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3%에서 상승할 수 있도록 성장모멘텀(momentum)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V.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가 여성 벤처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벤처육성특별조치법 이후, 정부의 각종 벤처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의 벤처확인제도는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확인한 벤처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확인 벤처기업에 다수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서 확인제도의 선별기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벤처확인 기업 수의 증가는 벤처기업 확인유형 중 신기술기업의 확인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벤처확인 유형별 분포를 보면(2005년 5월 현재),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4.7%, 연구개발 기업이 16.2%, 특허기술을 비롯한 사업성이 인정된 신기술 기업이 76.9%, 예비 벤처기업이 2.2.%.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총 16개 공적 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신기술 평가기업의 비중이 1999년 불과 11.6%에서 2004에는 73.1%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기업 지원제도 변화의 핵심은 정부주도적인 방식에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현행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던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 즉, 벤처기업을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하여 자기위험 부담으로 투자·용자·보증한 기술우수기업으로 재정의 하면서, 기술, 사업성 등을 시장시스템에 의해서 선별·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16개의 벤처평가기관에 의해서 투자·용자 책임 없이 기술성을 단순 평가한 신기술기업 유형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면서, 벤처투자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의 벤처확인제도의 변화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여성 벤처기업 중 일부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인증 받아 기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은 일반 중소기업(비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될 것이다. 비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의 변화가 수적으로 열세하고 성공경험이 부족한 여성 벤처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자금조달에 있어서 여성 벤처기업이 투자처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 벤처기업은 자금조달을 개인투자자(엔젤), 창투사, 금융기관, 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다양한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동안 성공한 여성 벤처창업자가 거의 없으며, 2000년 이후로 결성된 여성 벤처기업펀드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창

투자 등의 벤처캐피탈 회사를 통한 직접 지원방식은 태동기에 있는 여성 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VI. 정책제언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은 이미 백만개를 넘어선 일반 여성기업과는 달리 태동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은 최근 과학기술분야로의 여성인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이전의 모태조직(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창업준비과정부터 창업 단계, 초기 성장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 분야와 같은 비전통 업종에서의 여성 창업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장지향적 접근과 더불어 적극적 육성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인력과 여성기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이 여성을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호정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여성의 기업가형 창업활력을 통한 성장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이 시장경쟁 체제 하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과 기술개발 여성인력의 양성과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벤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 성장산업에서 여성창업 활력을 제고하고, 여성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창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기업가형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모태조직에서 기술개발과 경영관리 경험을 체득한 여성 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창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전문인력들이 모태조직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이나 연구

소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많은 경우, 기술적 아이디어보다는 기술을 상업화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부족이다. 이러한 지식들은 해당 산업이나 기술분야에 특수한 내용(technology-specific)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창업 관련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자신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비전통 분야에서 창업하게 되는 여성의 경우,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벤처산업에 대한 정보와 벤처캐피탈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여성 벤처기업협회와 같은 여성기업 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여성 벤처기업 단체들이 아이디어와 경험, 정보를 교환하고, 아울러 잠재력 있는 예비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벤처산업 분야의 창업단계 및 초기 성장단계의 여성 기업은 수적인 열세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면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고, 창투사의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벤처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벤처기업을 선별·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전환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여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가용성을 높이는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여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 등의 간접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할당제의 도입과 안정적 운영자금과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 금융 비중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여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금융교육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동종업체와의 M&A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기술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학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기술지원센터와 달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3. 연구의 한계	6
II. 이론적 논의	9
1. 벤처기업의 정의	11
2. 벤처기업 육성의 의의	14
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	14
나. 신규 고용창출의 주체	15
다. 자본시장의 육성 기반	16
3.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16
III.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19
1. 산업별 여성기업 현황	21
2. 정부확인 벤처기업 현황	27
가. 연도별 추이	27
나. 유형별 현황	29
다. 코스닥 등록기업 현황	32
3. 우리나라 남녀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33
가. 창업자 특성	33
나. 조직특성	36
다. 재무 현황	42
라. 정책자금 활용 실적	48
마. 해외진출	51

바.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수행 성과	54
사.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기대	55
아.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58
4. 소결	61
IV. 기술집약형 여성 벤처기업의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65
1. 여성 벤처기업의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개요	67
가.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	67
나.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67
2. 조사결과	68
가. 대표이사 특성	68
나. 사업체 개요	71
다. 경영 일반 현황	77
라. 기술개발	92
마. 자금	98
바. 벤처기업 지원	111
3. 소결	113
V.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19
1.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정책	121
가.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	121
나. 해외 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	124
2.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127
3.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와 주요 쟁점	131
VI. 요약 및 정책제언	137
1. 요약	139
가.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140

나. 여성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41
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가 여성 벤처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45
2. 정책제언	146
가. 신기술 분야 여성인력의 창업활력 제고	147
나. 여성 벤처기업의 금융지원 방안 강구	148
다. 여성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기반 구축 지원	149
참고문헌	151
부 록	155
<부록> 여성 벤처기업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157
<부표 1>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 변수 설명	173
<부표 2>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 결과	173

표 목 차

<표 II-1> 벤처기업 확인요건	12
<표 III-1> 대표자 성별 지식기반제조업 및 일반제조업 분포(2003년)	25
<표 III-2> 대표자 성별 지식기반서비스 및 일반서비스업 분포(2003년)	26
<표 III-3> 벤처확인유형별 벤처기업 분포(2005.5)	30
<표 III-4> 벤처확인기업 산업 분포(2005.5)	31
<표 III-5> 지역별 벤처확인기업 분포(2005.5)	32
<표 III-6> 코스닥등록 기업 중 여성 벤처기업 현황	33
<표 III-7> 창업자 학력 분포	34
<표 III-8> 창업자 이전 근무지 분포	36
<표 III-9> 산업별 벤처기업 분포	37
<표 III-10> 성별 정규직 근로자 현황(2003년)	38
<표 III-11> 창업시기별 벤처기업 분포	39
<표 III-12>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분포	40
<표 III-13> 벤처기업 입지 분포	40
<표 III-14> 법적형태별 벤처기업 분포	41
<표 III-15> 기업공개현황	41
<표 III-16> 자본금 분포(2003년)	43
<표 III-17> 자산 분포(2003년)	44
<표 III-18> 부채 분포(2003년)	44
<표 III-19> 연도별 재무상황	45
<표 III-20> 매출액 분포(2003년)	45
<표 III-21> 연도별 경영 상태	46
<표 III-22> 정책 자금 활용 실적(2002년, 2003년)	49
<표 III-23> 해외 진출 형태	51
<표 III-24> 해외 진출 지역	52
<표 III-25> 수출 및 투자 실적(2003년)	53
<표 III-26> 해외진출 장애요인	53
<표 III-27> 주력 사업장 입지 선정의 중요 요인	56
<표 III-28> 신규 투자계획	57

<표 III-29> 대규모 신규 투자 지역	57
<표 III-30> 지방기업들의 벤처창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적 배려	58
<표 III-31>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변수 설명	59
<표 III-32>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61
<표 IV-1> 조사내용	67
<표 IV-2> 대표이사의 연령	68
<표 IV-3> 대표이사의 최종학력	69
<표 IV-4> 대표이사의 전공계열	69
<표 IV-5> 대표이사의 이전경력	70
<표 IV-6> 벤처확인기업의 산업별 분포	73
<표 IV-7> 여성 벤처기업인의 전공계열별 벤처확인 유형	75
<표 IV-8> 남성 벤처기업인의 전공계열별 벤처확인 유형	75
<표 IV-9> 성장 단계별 분포	76
<표 IV-10> 고용 규모별 분포	77
<표 IV-11> 직종별 인력 분포	79
<표 IV-12> 인력별 평균 인원	80
<표 IV-13> 연구개발 인력 부족 원인	82
<표 IV-14> 영업·마케팅 인력 부족 원인	83
<표 IV-15> 연구개발인력 충원 방법	84
<표 IV-16> 인력 관리	85
<표 IV-17> 주요 복리후생 제도 수혜 직원 비중	87
<표 IV-18> 제도 도입 여부	88
<표 IV-19> 산전후휴가 제도	89
<표 IV-20> 산전후휴가일수 90일 미만인 이유	90
<표 IV-21> 외주 부문	91
<표 IV-22> 주력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핵심 기술	93
<표 IV-23>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건수와 보유 기업 수	94
<표 IV-24> 연구개발 수행 주체	96
<표 IV-25> 연구개발 방식별 수행의 평균 비중	96
<표 IV-26> 기술혁신(Inno-Biz) 추진 부문	97
<표 IV-27> 자산 분포	98

<표 IV-28> 부채 분포	99
<표 IV-29> 자본금 분포	99
<표 IV-3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분포	101
<표 IV-31>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투자비율 분포	101
<표 IV-32> 2003년 대비 2004년 당기순이익 변화	102
<표 IV-33> 당기순이익 증가한 기업의 환경 능력	103
<표 IV-34> 당기순이익 감소한 기업의 환경 능력	104
<표 IV-35> 자금 조달 현황	106
<표 IV-36> 투자기관별 투자금액	107
<표 IV-37> 정부 자금 지원 정책 불만족 사유	110
<표 IV-38> 자금 사정	110
<표 IV-39> 현행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111
<표 IV-40>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한 것	112
<표 IV-41>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	113
<표 V-1>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122
<표 V-2> 벤처기업 지원제도 이용 경험	128
<표 V-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여성 벤처기업 보증지원 현황	129
<표 V-4> 신용보증기금의 여성 벤처기업 보증지원 현황	130
<표 V-5> 여성 벤처기업 펀드 결성 실적	130
<표 V-6> 연도별 벤처기업 확인유형 분포	132
<표 V-7> 벤처기업 요건개편 주요 내용	133

그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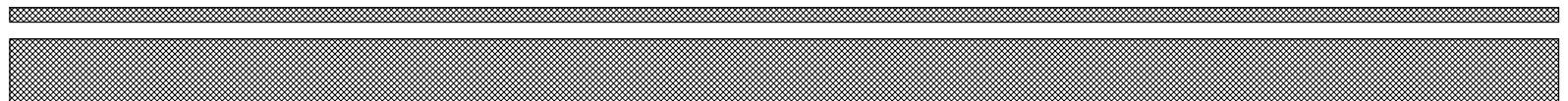
<그림 III-1> 대표자 성별 지식기반제조업 현황(1998-2003)	21
<그림 III-2> 대표자 성별 일반제조업 현황(1998-2003)	22
<그림 III-3> 대표자 성별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1998-2003)	23
<그림 III-4> 대표자 성별 일반서비스업 현황(1998-2003)	24
<그림 III-5> 벤처확인기업수	28
<그림 III-6> 벤처확인 연도별 신규 등록 현황	28
<그림 III-7> 창업자 연령 분포	34
<그림 III-8> 창업자 전공 분포	35
<그림 III-9> 정규직 고용규모별 벤처기업 분포(2003년)	38
<그림 III-10> 주식공개계획	42
<그림 III-11> 부채 · 자기자본 ·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2001~2003)	47
<그림 III-12> 정책 자금별 평균 지원 금액(2002년, 2003년)	50
<그림 III-13> 해외 진출 비율	51
<그림 III-14> 윤리경영 시행	54
<그림 III-15> 사회적 책임 수행	55
<그림 IV-1> 대표이사의 이전 경력과 현재 업종과의 관련성	70
<그림 IV-2> 벤처기업 업력 분포	72
<그림 IV-3> 벤처기업 확인 유형	74
<그림 IV-4> 남녀 벤처기업의 성별 고용현황	78
<그림 IV-5> 직종별 인력 수급 상태	81
<그림 IV-6> 주요 복리후생 제도 시행	86
<그림 IV-7> 외주(outsourcing) 실시 기업	90
<그림 IV-8> 경영상의 애로점	92
<그림 IV-9>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	94
<그림 IV-10> 연구개발(R&D) 활동 수행	95
<그림 IV-11>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전환추진 여부	97
<그림 IV-12> 자산 · 부채 · 자본금 평균	100
<그림 IV-13> 정책자금 활용 비율	108
<그림 IV-14> 정책자금 활용 만족 비율	10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3. 연구의 한계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산업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는 21세기 지식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을 벤처산업과 벤처기업으로 설정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우선적 정책과제로 삼았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출발은 80년대 초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태동하면서 시작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벤처창업의 붐으로 이어져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우리나라의 벤처 붐은 정부의 적극적 벤처정책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지만,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세계 기술주 시장의 주가 동반상승 등의 대외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육성특별조치법으로 칭함)이 제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입지, 인력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벤처열풍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2000년을 정점으로 벤처 붐이 붕괴되었고, 최근까지 벤처 침체가 장기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성장과 변화 속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위상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2005년 5월 현재, 정부확인 여성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확인기업 8,712개사 중 3.3%(284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36%(1,146천개, 2003년)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여성기업이 생계형 창업증가에 의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성 벤처기업의 저조한 출현은 근본적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의 수가 적으며, 벤처산업에의 진입비용이 높고 위험감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이 전통적 여성집중 업종에 치중되어 왔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구체화된 시책이 미흡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벤처창업자와 벤처기업의 특성,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확인 벤처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벤처정밀실태조사'에서도 남녀 벤처기업에 대한 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벤처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전체 벤처기업에서 여성 벤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성 벤처의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벤처육성특별조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법의 보완을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벤처캐피탈 회사를 통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벤처산업 진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절대적 수가 부족하고, 성공한 여성 벤처기업이 적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창업 지원 통로가 차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직은 잠재력 있는 여성 인력에게 기업가형 창업(entrepreneurial startup)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여성 벤처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성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여성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으로 여성사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기업의 육성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여성기업이 양적 확대에 못지않은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창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기업가형 창업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벤처지원 정책의 변화 속에서 신기술 분야의 여성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여성 벤처기업의 육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벤처산업 및 벤처기업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벤처기업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일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경영실태를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문회의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연구방향과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벤처기업의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벤처기업 육성의 의의와 벤처기업 성공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일반 현황과 특성을 남성 벤처기업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여성 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여성기업의 지식기반산업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중소기업청의 벤처넷에 등록된 벤처확인기업 자료를 통하여 벤처확인 유형별 남녀 벤처기업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의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입수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원자료 재분석은 남녀 벤처기업의 데이터를 제시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장에서 활용한 3가지의 원자료의 특징과 본 연구에서의 활용 방향은 아래와 같다.

<p><input type="checkbox"/>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국의 종업원 1인 이상 고용 사업체를 전수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함. 본 고에서는 일반 산업(제조업,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업종별 여성기업 현황을 분석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벤처넷 중소기업청에서 정부확인 벤처기업의 등록현황을 매월 갱신하고 있음. 대표자의 성별을 분리한 2005년 5월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에서 매년 벤처확인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본 고에서는 2004년 데이터(표본수 4,592사업체)의 원자료를 입수하여 남녀 벤처기업의 창업자 특성, 조직특성, 재무현황, 해외진출, 윤리경영 시행현황 등을 재분석하였음.</p>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 벤처기업의 자금,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경영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정리하였다.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남녀 벤처기업의 실태를 분석하였고, 인적자원관리의 특성 및 기술개발 성과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였다.

제V장에서는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벤처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 벤처기업의 수혜 실적을 가용한 자료 내에서 살펴보았으며, 최근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가 여성 벤처기업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마지막 제VI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여성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여성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단계 여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남녀 벤처기업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의 위치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벤처기업 관련 선행 연구에서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의 접근에 따른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벤처기업의 범주를 정부확인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산업에 속하는 여성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벤처확인 기업들은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성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벤처확인 여성 벤처기업의 절대적 수가 적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편차가 크고 그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여성 벤처기업 투자유치 경향과 재정경제부의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방법론상의 문제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 벤처등록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04)는 전체 응답율이 60.5%에 불과하며,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를 남녀 벤처기업을 분리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발

표하고 있으나, 대표자의 성별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 또한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료작성 자체가 대표자의 성별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선언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단계에 있는 여성 벤처기업과, 초기 성장기에 있는 여성 벤처기업의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영성과 자료와 정부 지원실적 자료를 통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논리적 고찰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논의

1. 벤처기업의 정의	11
2. 벤처기업 육성의 의미	14
3.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16



1.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첨단 신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집약적이고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high-tech, high-risk, high-return)을 말하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벤처기업은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가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도 있다(이진주, 1984).

OECD는 벤처기업을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범주의 일반적 성격은 높은 위험과 높은 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국가별로 시장환경, 산업구조, 문화적 배경, 정부 육성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가별 정책대상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정의는 정책 지원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윤보 외, 2000).

미국은 '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을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촉진산업조례'에서 벤처기업을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육성특별조치법으로 칭함)을 제정하고, 법령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등록되면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 지정 요건은 '97년 제정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2002년 이전에는 벤처기업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특허기술(신기술) 투자기업, 기술평가기업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2002년 8월 벤처육성특별조치법의 개정되고, 11월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및 신기술기업(과거의 기술평가기업을 통합)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혁신능력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좀더 강화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후 2004년 12월 일부 개정되었으나, 2002년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표 II-1>참조).

<표 II-1> 벤처기업 확인요건

유 형	공통요건	유형별 요건
벤처투자기업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	벤처캐피탈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하고 그 투자기간이 확인신청일의 직전 6개월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며 R&D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5~10% 이상인 기업
신기술기업 (예비 벤처 포함)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 확인 공통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가지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기업은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주식(신주에 한함) 인수총액 또는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그 비율로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한 기업이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업은 창업 후 업력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나, 공히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창업 3년 이상인 경우,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¹⁾에 해당한다. 창

1) 제조업 중 의약품(242), 컴퓨터및사무용기기(30), 전기기계(31), 반도체 및 전자부품(321) 업종은 6%이상이며, 기계및장비제조업(29)는 7% 이상, 의료,정밀,광학기기 및시계(33)은 8% 이상, 기타제조업은 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매및소매업(50-52)은 6% 이상, 통신업(64)은 7% 이상,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업(72)은

업 1년 이상 3년 미만인 기업은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1년 미만 기업인 경우는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이 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신기술 기업은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²⁾으로부터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정부출연기술³⁾(기술개발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술에 한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공히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2002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강화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취소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사실과 다르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와 확인 이후 6개월 이상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다. 또한 휴업

10% 이상이며, 이중 인터넷산업은 5%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그 밖에 기타 산업은 5% 이상의 비율이 적용된다.

- 2) 벤처기업 평가기관은 혁신능력과 유형별 요건에 대한 현장실사 후에 지방 중소기업청에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평가기간은 30일(벤처투자기업은 15일)이며, 지방 중기청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평가기간은 제외)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총 16개의 공적 기관이다.
- 3)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개발사업, 대체에너지연구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개발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이 있으며,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지원사업과 문화관광부의 문화콘텐츠응용기술개발사업,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농림부의 농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이 있다.

등으로 3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대표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협회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다.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벤처투자기업의 경우에는 1년이며, 연구개발 및 신기술 기업은 2년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법적 정의는 기술·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창업단계의 기업을 의미하며, 기존 기술 혹은 도입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업의 신규여부와 상관없이 벤처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벤처기업 육성의 의의

벤처육성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7년 8월은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의 문제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장기적 경제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던 시기이다. 기업들은 설비확장을 통한 외형적 성장에 주력해 왔던 대량생산 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체제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양적 성장과 과다한 차입경영에 의한 우리 경제의 성장구조에 대전환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 못지않게 산업기반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세계적인 벤처 붐의 조류 속에서 우리 경제에서도 벤처기업이 재벌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게 된 배경으로는 미국의 벤처기업의 발전에 의한 경제활력의 회복에 있다. 1990년대 미국의 경기 활황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80년대 미국은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서 일본 및 신흥 공업국에 대한 경쟁력 열세로 세계경제의 정상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기업조직에서부터 산업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을 통한 감량경영 및 사업구조조정의 단행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경제상황과 산업경쟁력이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국 경제에서의 벤처기업 성과에 자극을 받아 세계 각국은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이다(김진수 외, 2002).

나. 신규 고용창출의 주체

벤처기업 육성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고학력 미취업자 증가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대기업은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경비절감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고용창출의 주체로 떠올랐다. 벤처기업은 신규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전직 기술인력을 흡수하여 고용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통한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새로운 시장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서도 창업·분사기업의 형태는 벤처기업의 형태를 띠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펀드(‘04년 300억원)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이 활발하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창업 초기기업의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용창출 역량이 높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벤처강국인 이스라엘도 냉전시대에 넘쳐나던 군수산업 종사자들이 탈 냉전시대를 맞아 대거 실업자로 전락하며, 사회 문제화되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했다고 하는 성공 경험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벤처기업 정책이 외환위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속에서 “벤처기업 10만개 육성” 등과 같은 양적인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추진되는 속에서 정책적 혼선과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조덕희, 2002).

다. 자본시장의 육성 기반

벤처기업의 육성은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금융부문의 확대와 전체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온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의 발전과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은 동시에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의 발전과 더불어 벤처캐피탈과 코스닥 시장이 성장하였으며, 엔젤이나 투자조합의 활성화 등과 같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기존의 제조기업과 달리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나 물적 담보를 요구하던 금융기관의 관행을 깨뜨리고, 미래가치에 기반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벤처산업의 경우 수많은 투자자를 연결하고 기술이나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옥석을 가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은 벤처산업의 양적 팽창을 도모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평가하는 벤처투자시장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산업을 육성하는 등 민간투자확대 유도해야 하며, 벤처기업의 진입·퇴출이 시장 원리에 의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최근 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공요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장우, 1998, 1999, 2001; 김홍범, 1998; 송위진 외, 1998; 유세준 외, 2001; 정승호, 2005; 정진하, 2005).

선행연구들에서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창업자 특성, 산업구조 및 환경, 전략, 자원과 능력, 그리고 조직특성 등이다. 특히, 창업자의 특성은 벤처기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주로 배경적 특성, 즉 창업자의 연령, 교육수준, 전직경력, 창업이전 경영경험,

가족배경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었다(이장우, 1998).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자의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향, 통제소의 위치, 모호함에 대한 인내, 자율성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기도 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특성이나 일반 경영자들에게 요구되는 특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Baum, 1995). 즉, 창업의 성공에 있어서도 일반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뢰, 정직, 끈기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외(1999b)는 실증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공은 성취욕구가 강한 고학력의 기업가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창업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적대적 환경에 뛰어들어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외부자원 활용 전략을 적절히 구사할 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창업자들이 어떤 동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적 특성이 창업자의 행동을 유발케 하는지 등 창업자의 동기적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장우(1997)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경영이념과 같은 동기적 특성이 성공의 중요한 원인이라 주장했다.

창업자 특성 외에 환경특성, 전략, 조직관련 변수들도 벤처기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이장우 외, 1999b). 성공벤처기업은 환경의 적대성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여 성공하였으며, 전략에 있어서는 기술혁신 차별화와 외부자원 활용이 높았다. 즉 기술능력과 자금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조, 조직문화, 직무특성, 보상 등 조직관련 변수들은 경영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이나 전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장우 외(2001c)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벤처기업이 창업단계, 상업화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의 4단계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맞는 구조, 전략, 행동, 정치적 관계, 그리고 제도적 보완 등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단계에서는 필요자원의 조달과 사업의 개념을 분명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이후 성장단계에서는 재고 시스템 개발과 방향설정, 재무·회계시스템 개발, 종업원 훈련, 권한의 위임 및 개인적 동기의 개발과 관리시스템이 강조된다. 성숙단계에서는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 공식적 구조와 조직전략 수립, 그리고 조직문화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인데,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동기와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한정화 외, 2003). 이는 여성 벤처기업 수가 적어서 여성 벤처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여성 벤처 창업가의 창업동기요인은 독립욕구와 개발욕구 외에 창업여건의 호의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벤처기업가의 창업동기요인과 조직성과와의 유의한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Ⅲ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1. 산업별 여성기업 현황	21
2. 정부확인 벤처기업 현황	27
3. 우리나라 남녀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33
4. 소결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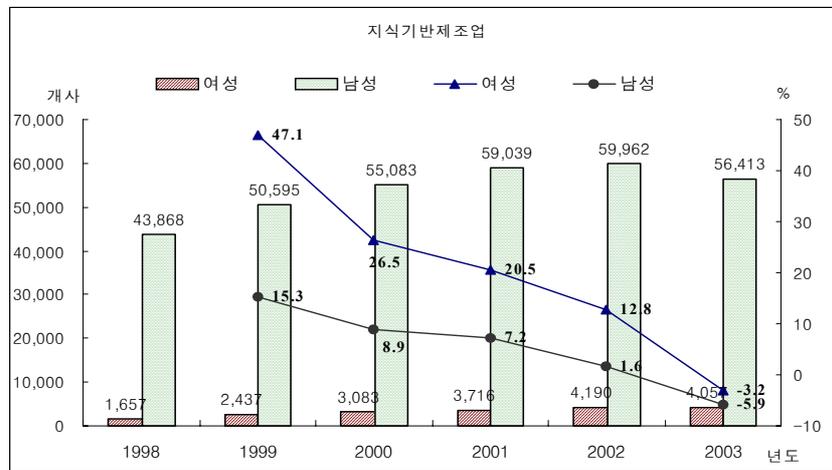
Two horizontal decorative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one is a thin line with a fine grid pattern. The bottom one is a thicker bar with a denser grid pattern.

1. 산업별 여성기업 현황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산업을 지식기반제조업, 일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4개 산업⁴⁾으로 분류하여 남녀 사업체의 증감현황을 살펴보았다. 산업별 여성 사업체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생계형 창업이 집중되어 있는 일반 서비스업의 증감과 신기술 분야 창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지식기반제조업종의 여성 사업체 수의 증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기반제조업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증가하다 2003년에 감소하였고 2003년 여성 지식기반제조업 수는 4,057개사로 전체의 6.7%에 불과하지만 1998년 이후 지식기반제조업의 여성기업 증가율은 남성기업보다 컸다. 남녀 기업 모두 증가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003년에는 전년대비 (-) 성장을 하여 제조업의 감소추세가 나타났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대표자 성별 지식기반제조업 현황(1998-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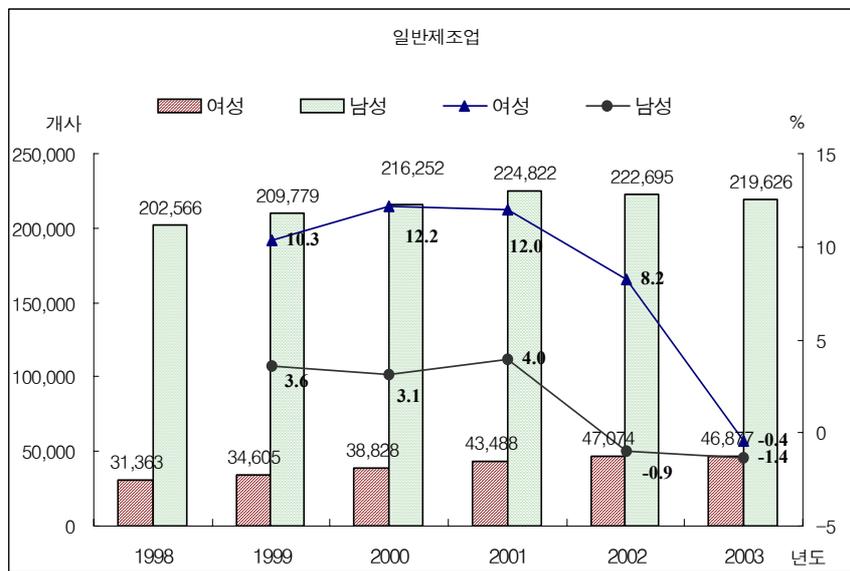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http://kosis.nso.go.kr/>.

일반제조업의 경우 2003년 여성기업 수는 남성기업의 21.3%로 지식기반제조업에서 여성기업 수가 남성 기업의 7.2%인 것에 비해 보다 높았고 1998년

4) 양인숙 외(2003),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지식근로자의 경력개발」의 산업분류를 따름.

부터 2003년까지 일반제조업의 여성기업 증가율이 남성기업의 증가율보다 배 이상 큰 것은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와 유사하다. 일반제조업 여성기업은 199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식기반제조업의 증가율보다는 작고 2002년 이후는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2003년에는 전년 대비 기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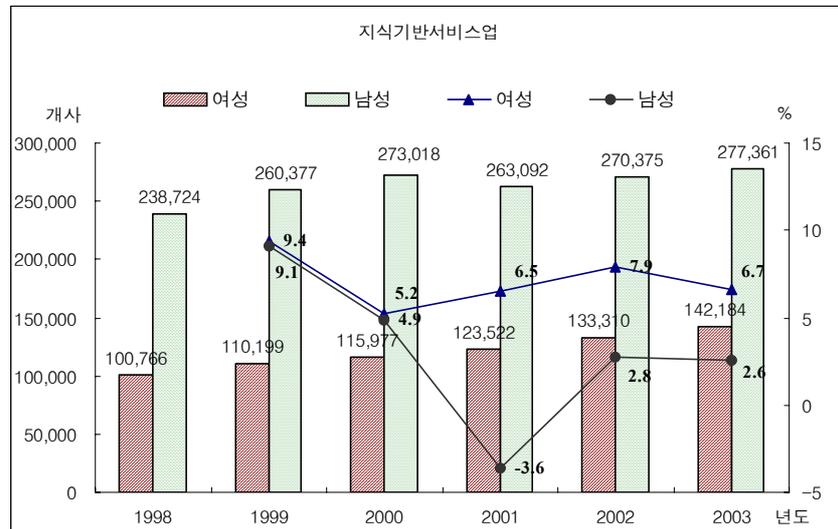
<그림 III-2> 대표자 성별 일반제조업 현황(1998-2003)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http://kosis.nso.go.kr/>.

서비스업을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일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여성기업의 증가 추이를 보면, 먼저 2003년 여성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체 수는 142,184개사로 남성기업의 51.3%에 해당하고 1998년 이후 여성기업의 증가는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데 증가율 또한 남성기업보다 컸다. 그러나 지식기반제조업의 전년대비 증가율에 비해 남녀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그림 III-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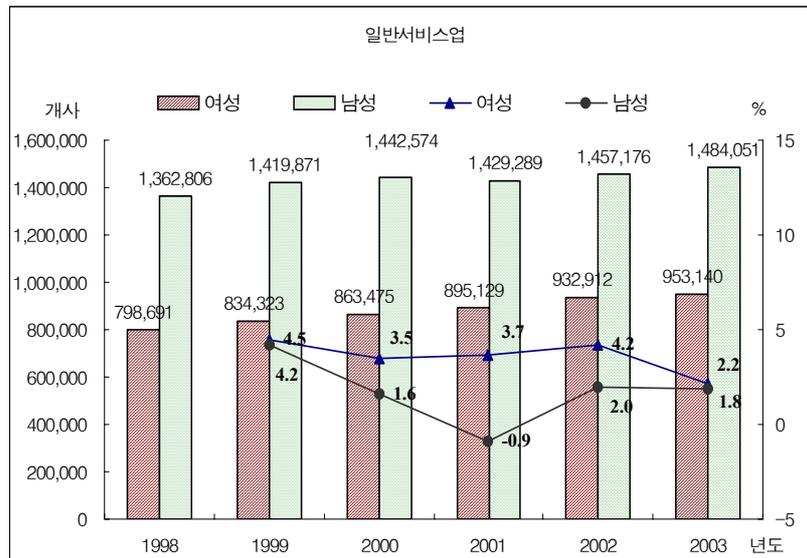
<그림 Ⅲ-3> 대표자 성별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1998-2003)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http://kosis.nso.go.kr/>.

일반서비스업의 경우 2003년 여성기업수는 남성기업의 64.2%로 지식기반제조업, 일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남성 기업 대비 비율 7.2%, 21.3%, 51.3%보다 높고 일반서비스업의 여성 업체수도 953,140개사로 나머지 3개 산업 중 가장 많다. 반면, 1998년부터 2003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2.2%~4.5%로 다른 산업의 증가율보다 크지 않았고 증가율의 남녀 격차도 크지 않았다(<그림 Ⅲ-4> 참조).

<그림 III-4> 대표자 성별 일반서비스업 현황(1998-2003)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http://kosis.nso.go.kr/>.

여성 제조업의 경우 지식기반제조업과 일반제조업 모두 2002년 이후 증가율이 하락하며 기업 수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기업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 중분류 분포를 보면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남녀 기업 모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여성 51.5%(2,090개사), 남성 55.8%(31,474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지식기반제조업의 산업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은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인데 이는 남녀 기업 모두 동일하였으며 지식기반제조업에서의 산업 분포는 성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제조업의 경우는 여성기업의 60%이상이 '음·식료품 제조업'(40.6%, 19,047개사)과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9.8%, 9,259개사) 두 개 업종에 집중된 반면, 남성기업은 업종 편중이 심하지 않아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19.7%, 43,228개사), '음·식료품 제조업'(17.7%, 38,777개사),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10.5%, 23,107개사) 등 나머지 업종에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 참조).

<표 Ⅲ-1> 대표자 성별 지식기반제조업 및 일반제조업 분포(2003년)

	대표자 성별			분포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지식기반제조업	4,057	56,413	60,470	100.0	100.0	1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83	6,053	6,536	11.9	10.7	10.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90	31,474	33,564	51.5	55.8	55.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88	1,168	1,256	2.2	2.1	2.1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539	7,116	7,655	13.3	12.6	1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55	5,452	5,807	8.8	9.7	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02	5,150	5,652	12.4	9.1	9.3
일반제조업	46,877	219,626	266,503	100.0	100.0	100.0
음·식료품 제조업	19,047	38,777	57,824	40.6	17.7	21.7
담배 제조업	0	16	16	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4,298	20,153	24,451	9.2	9.2	9.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9,259	15,637	24,896	19.8	7.1	9.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09	4,411	5,020	1.3	2.0	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507	6,882	7,389	1.1	3.1	2.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88	4,655	5,243	1.3	2.1	2.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25	19,740	22,165	5.2	9.0	8.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155	162	0.0	0.1	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81	13,002	14,383	2.9	5.9	5.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64	8,399	9,263	1.8	3.8	3.5
제1차 금속산업	325	4,604	4,929	0.7	2.1	1.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275	43,228	46,503	7.0	19.7	17.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207	14,497	15,704	2.6	6.6	5.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4	1,657	1,761	0.2	0.8	0.7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887	23,107	25,994	6.2	10.5	9.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94	706	800	0.2	0.3	0.3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http://kosis.nso.go.kr/>.

<표 III-2> 대표자 성별 지식기반서비스 및 일반서비스업 분포(2003년)

	대표자 성별			비율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지식기반서비스업	142,184	277,361	419,545	100.0	100.0	100.0
통신업	1,359	7,485	8,844	1.0	2.7	2.1
금융업	1,190	18,369	19,559	0.8	6.6	4.7
보험 및 연금업	899	7,488	8,387	0.6	2.7	2.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30	5,634	6,664	0.7	2.0	1.6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68	8,685	9,353	0.5	3.1	2.2
연구 및 개발업	142	1,953	2,095	0.1	0.7	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98	48,749	53,947	3.7	17.6	12.9
교육 서비스업	69,355	49,748	119,103	48.8	17.9	28.4
보건업	8,091	43,697	51,788	5.7	15.8	12.3
사회복지사업	13,055	4,582	17,637	9.2	1.7	4.2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1,255	4,728	5,983	0.9	1.7	1.4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39,942	76,243	116,185	28.1	27.5	27.7
일반서비스업	953,140	1,484,051	2,437,191	100.0	100.0	100.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10	949	959	0.0	0.1	0.0
수도사업	3	535	538	0.0	0.0	0.0
종합 건설업	1,234	14,453	15,687	0.1	1.0	0.6
전문직별 공사업	5,433	61,744	67,177	0.6	4.2	2.8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4,122	31,215	35,337	0.4	2.1	1.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5,414	169,907	205,321	3.7	11.4	8.4
소매업 자동차 제외	297,254	356,498	653,752	31.2	24.0	26.8
숙박 및 음식점업	440,830	207,208	648,038	46.3	14.0	26.6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62	291,019	298,081	0.7	19.6	12.2
수상 운송업	59	927	986	0.0	0.1	0.0
항공 운송업	5	198	203	0.0	0.0	0.0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885	22,760	26,645	0.4	1.5	1.1
부동산업	17,100	70,564	87,664	1.8	4.8	3.6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1,300	12,188	23,488	1.2	0.8	1.0
사업지원 서비스업	3,206	15,674	18,880	0.3	1.1	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1	11,999	12,220	0.0	0.8	0.5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205	2,301	2,506	0.0	0.2	0.1
회원 단체	9,962	66,553	76,515	1.0	4.5	3.1
수리업	14,317	74,213	88,530	1.5	5.0	3.6
기타 서비스업	101,518	73,146	174,664	10.7	4.9	7.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http://kosis.nso.go.kr/>.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여성기업 분포는 '교육서비스업'과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각각 48.8%(69,355개사), 28.1%(39,942개사)에 분포하여 두 산업의 차지하는 비율이 60%이상으로 일반제조업의 여성기업 분포와 마찬가지로 업종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남성기업은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에 각각 17.9%(49,748개사), 17.6%(48,749개사), 15.8%(43,697개사)가 분포하여 여성기업에 비해 업종 편중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2> 참조).

일반서비스업의 경우 여성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46.3%, 440,830개사), '소매업 자동차 제외'(31.2%, 297,254개사)에 70% 이상이 집중하여 두 개의 업종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남성기업은 '소매업 자동차 제외'(24.0%, 356,498개사),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19.6%, 291,019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14.0%, 207,208개사)에 많이 분포하였지만 여성기업과 같이 업종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 정부확인 벤처기업 현황

정부는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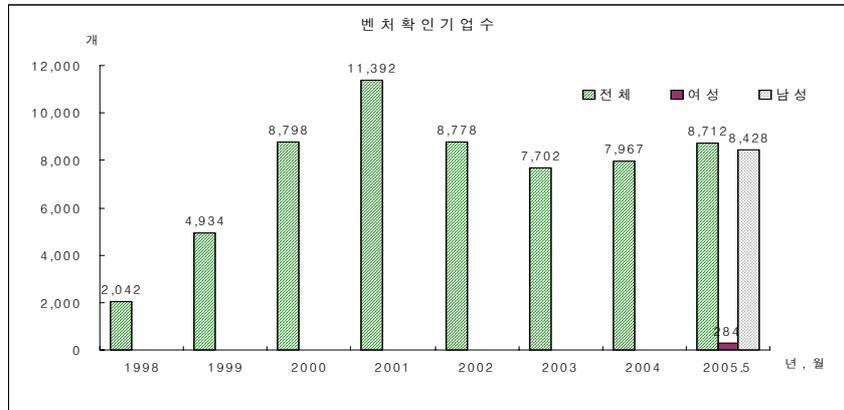
벤처확인제도가 실시된 1998년 이후, 벤처처기업 수는 2001년까지 11,392개사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3년 7,702개사로 감소한 후 지난해는 7,967개사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2004년 12월 23일 정부가 발표하여 시행중에 있는 실패한 벤처인들의 갱생 시스템, M&A 활성화, 벤처캐피털 육성, 코스닥·제3시장 활성화 등을 주축으로 한 벤처활성화대책에 힘입어 2005년 5월 현재 벤처확인기업수는 8,712개까지 증가하였지만 전체 벤처확인기업에서 여성 벤처기업은 284개사 3.3%에 불과하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체 중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5.7%인데⁵⁾ 비해 전체 벤처기업에서 여성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I-5> 참조).

연도별로 벤처확인을 신규로 받은 기업수를 보면 증가율에서나 증가 기업

5) 양인숙 외(2003년) p. 35 <표 III-1> 여성 대표자 사업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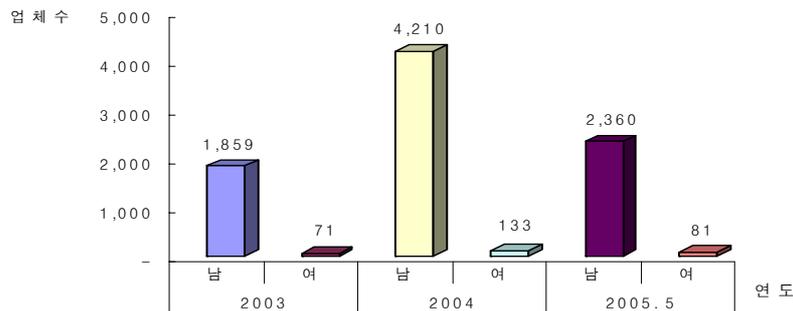
수에서나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뒤쳐져있다. 즉, 2003년부터 2005.5월 까지 신규 등록의 증가율을 보면 여성 벤처기업은 301.4%, 남성 벤처기업은 355.5%로 남성 벤처기업의 신규등록 증가율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크고 양적으로는 2005년의 경우 남성 벤처기업 8,429개사의 3.4%에 해당하는 285개사에 불과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벤처확인 등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6> 참조).

<그림 III-5> 벤처확인기업수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내부자료.

<그림 III-6> 벤처확인 연도별 신규 등록 현황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http://venture.smba.go.kr/>.

나. 유형별 현황

정부는 벤처기업 유형을⁶⁾ <표 Ⅲ-3>과 같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예비 벤처기업’ 4개로 나누고 신기술사업은 다시 ‘특허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이전기술’, ‘중앙행정기관출연연구개발기술’ 5가지로 나뉘어 벤처확인심사를 하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 유형별로 기업 분포를 보면 전체 벤처기업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이 31.2%(2,721개사)로 가장 많았다.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특허기술’ 25.4%(72개사)가 ‘고도기술수반사업’ 24.3%(69개사)보다 많고 ‘산업지원서비스업’이 20.4%(58개사)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남성 벤처기업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 ‘특허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각각 31.5%(2,652개사), 21.1%(1,778개사), 16.4%(1,378개사)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여성 벤처기업은 12.0%로 남성 벤처기업의 16.4%로 보다 낮아 차이를 보였다.

벤처확인기업의 산업 분포는⁷⁾ 전체 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산업에 국한함으로써 이에 속한 산업은 <표 Ⅲ-4>와 같이 제한적이다. 산업별 분포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제조업’ 비율이 높아 여성 벤처기업의 66.5%, 남성 벤처기업 69.3%이고 ‘정보처리업’이 여성 벤처기업 22.2%, 남성 벤처기업의 22.0%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외에 ‘연구개발업’에는 여성 벤처기업 5.3%, 남성 벤처기업 4.0%로 확인되었다. 벤처확인기업의 제조업 비율 69.2%는 전체 사업체에서 제조업 비율 10.7%에 7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 일반사업체에서 남성기업의 제조업 비율이 10.7%인 반면, 여성기업의 제조업 비율은 4.6%에 불과한데 비해 벤처확인을 받은 남녀 벤처기업의 제조업 비율은 남녀 기업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⁸⁾

6) 정부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예비 벤처기업의 4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중 신기술기업에는 특허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이전기술, 중앙행정기관출연연구개발기술 5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예비 벤처기업은 창업전이거나 창업한지 6개월미만인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이며, 이들 기업은 예비 벤처확인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기업 특성에 맞게 벤처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7) 산업분류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산업분류를 따랐다.

8) 통계청(2003), 『2002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표 III-3> 벤처확인유형별 벤처기업 분포(2005.5)

(단위 : 개사, %)

		여성		남성		전체	
벤처투자기업		5	1.8	404	4.8	409	4.7
연구개발기업		34	12.0	1,378	16.4	1,412	16.2
신기술기업	특허기술	72	25.4	1,778	21.1	1,850	21.2
	고도기술수반사업	69	24.3	2,652	31.5	2,721	31.2
	산업지원서비스업	58	20.4	1,218	14.5	1,276	14.6
	이전기술	4	1.4	42	0.5	46	0.5
	중앙행정기관출연 연구개발기술	32	11.3	772	9.2	804	9.2
예비 벤처기업		10	3.5	184	2.2	194	2.2
전체		284	100.0	8,428	100.0	8,71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내부자료.

<표 III-4> 벤처확인기업 산업 분포(2005.5)

(단위 : 개사, %)

		여성		남성		전체	
농·어·	농업 및 임업, 어업	3	1.1	22	0.3	25	0.3
임·광업	광업	0	0.0	2	0.0	2	0.0
소계		3	1.1	22	0.3	25	0.3
제조업	음식료품, 담배, 목재, 나무제품, 섬유제조업 및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31	10.9	397	4.7	428	4.9
	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	25	8.8	734	8.7	759	8.7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25	8.8	638	7.6	663	7.6
	기계제조업	29	10.2	1,088	12.9	1,117	12.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	1.1	192	2.3	195	2.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6	5.6	499	5.9	515	5.9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0	3.5	648	7.7	658	7.6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9	3.2	573	6.8	582	6.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0	0.0	235	2.8	235	2.7
	의류,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5.6	513	6.1	529	6.1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3.9	195	2.3	206	2.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및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14	4.9	125	1.5	139	1.6	
소계		189	66.5	5,837	69.3	6,026	69.2
건설·운수업	건설업	2	0.7	112	1.3	114	1.3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여행사업제외)	0	0.0	38	0.5	38	0.4
소계		2	0.7	150	1.8	152	1.7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4	1.4	64	0.8	68	0.8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51	18.0	1,611	19.1	1,662	19.1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0	0.0	15	0.2	15	0.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8	2.8	131	1.6	139	1.6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	0.0	24	0.3	24	0.3
소계		63	22.2	1,845	22.0	1,908	22.0
연구개발	연구개발업 및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15	5.3	338	4.0	353	4.1
소계		15	5.3	338	4.0	353	4.1
도소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	1.8	163	1.9	168	1.9
소계		5	1.8	163	1.9	168	1.9
기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	0.0	2	0.0	2	0.0
	교육·보건 및 기타 공공서비스업	7	2.5	62	0.7	69	0.8
	호텔업, 여행사업	0	0.0	3	0.0	3	0.0
	금융 및 보험업	0	0.0	2	0.0	2	0.0
	기계장비 및 소비자용품 임대업	0	0.0	2	0.0	2	0.0
소계		7	2.5	71	0.7	78	0.8
전체		284	100.0	8,428	100.0	8,71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내부자료.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역 분포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서울, 경기도에 집중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서울에 38.4%(109개사), 경기지역에 14.8%(42개사)에 분포하였고 남성 벤처기업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37.0%(3,312개사), 27.9%(2,352개사)가 분포하고 있었다. 대구지역에 여성 벤처기업이 13.0%(37개사)로 분포하는 것이 남성 벤처기업과 차이가 있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남성 벤처기업은 6.7%(561개사)가 분포하고 있는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13.0%(37개사)가 분포하여 비교가 되었다.

<표 III-5> 지역별 벤처확인기업 분포(2005.5)

(단위 : 개사, %)

	여성		남성		전체	
	개사	%	개사	%	개사	%
서울	109	38.4	3,121	37.0	3,230	37.1
부산	15	5.3	399	4.7	414	4.8
대구	37	13.0	561	6.7	598	6.9
광주	18	6.3	302	3.6	320	3.7
대전	21	7.4	590	7.0	611	7.0
경기	42	14.8	2,352	27.9	2,394	27.5
인천	11	3.9	381	4.5	392	4.5
강원	4	1.4	69	0.8	73	0.8
충북	2	0.7	205	2.4	207	2.4
전북	4	1.4	115	1.4	119	1.4
경남	18	6.3	302	3.6	320	3.7
제주	3	1.1	31	0.4	34	0.4
전체	284	100.0	8,428	100.0	8,71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내부자료.

다. 코스닥 등록기업 현황

2005년 6월 현재, 코스닥등록 기업은 877개사이며, 이 중 여성기업은 10개사(1.1%)에 불과하다(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자료). 한편 코스닥 벤처기업 377

개 중 여성 코스닥 벤처는 3개사로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Ⅲ-6> 참조). 여성 벤처기업의 기업공개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열악한 위치가 투자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표 Ⅲ-6> 코스닥등록 기업 중 여성 벤처기업 현황

(단위 : 개사, %)

	전체	여성기업	여성기업 비중
코스닥등록기업	877	10	1.1
코스닥 벤처기업	377	3	0.8

자료 :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2005 코스닥상장법인경영인명록」.

3. 우리나라 남녀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의뢰를 받아 벤처기업협회가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⁹⁾의 2004년도 원자료를 입수하여 벤처기업의 조직특성, 해외진출 및 국제화 특성, 매출 및 재무 상황, 고용현황 및 일자리 창출 성과,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수행 성과 등에 대해 대표자 성별로 재분석을 하였다. 정부가 확인하여 발표하는 벤처기업은 정책으로 선별된 기업인만큼, 정부확인 벤처기업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용한 차선의 접근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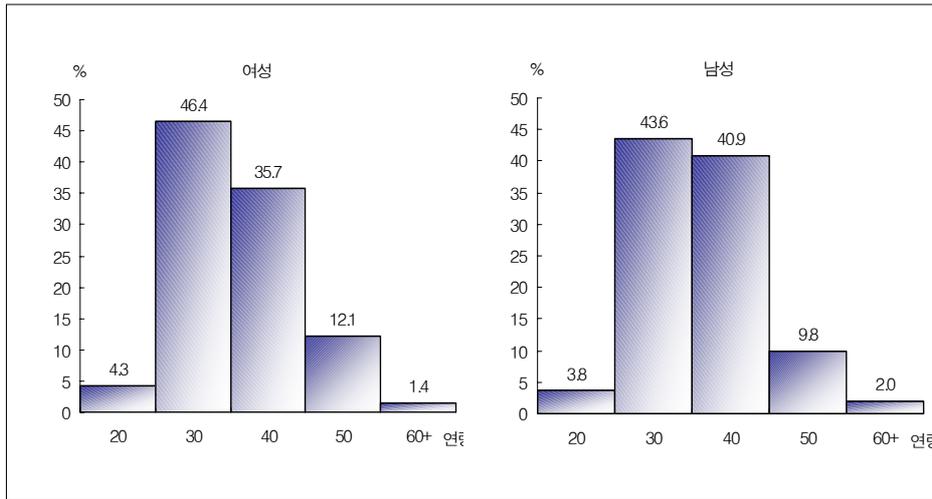
가. 창업자 특성

벤처기업의 창업자 연령 분포는 여성창업자 남성창업자 모두 30대가 46.4%, 43.6%로 가장 많았다. 남녀간 차이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0대 연령비율이 5.2%p 여성 보다 높은 데 비해 여성은 남성보다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9) 조사는 2004년 4월말 현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중 예비창업기업을 제외한 7,609개사를 대상으로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실시되었으며 이중 약 4,600여개사가 응답하였다.

2.3%p 높아 여성의 창업자 연령 분포가 고연령에 많았다(<그림 III-7> 참조).

<그림 III-7> 창업자 연령 분포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창업자의 학력은 석사 학위 소유자가 여성 37.1%, 남성 44.2%로 가장 많았고 박사 학위 비율은 남성이 16.1%로 여성의 10.0% 보다 높았다. 학사, 대졸 학력은 여성이 24.3%, 남성이 24.1%로 비슷하였다(<표 III-7> 참조).

<표 III-7> 창업자 학력 분포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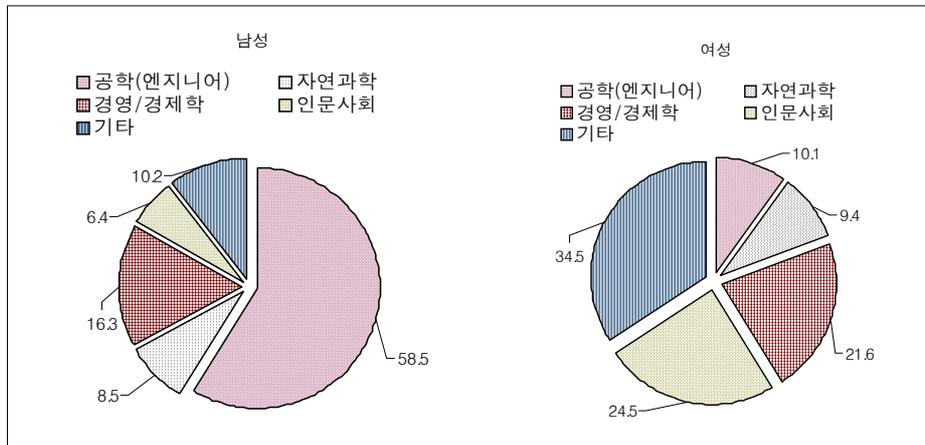
	박사	대학원졸(석사)	대졸(학사)	기타	전체
여성	14 10.0	52 37.1	34 24.3	40 28.6	140 100.0
남성	718 16.1	1,975 44.2	1,077 24.1	697 15.6	4,467 100.0
전체	732 15.9	2,027 44.0	1,111 24.1	737 16.0	4,607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창업자의 전공별 분포에서는 여성은 '인문사회계열', 남성은 '공학(엔지니어)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이 '인문사회계열' 24.5%, '경영/경제학' 21.6%, '자연과학' 9.4%, '공학(엔지니어)' 10.1%, '기타'가 34.5%인 반면, 남성은 '공학(엔지니어)'가 58.5%로 가장 많았고 '경영/경제학' 16.3%, '자연과학' 8.5%, '인문사회' 6.4%, '기타' 10.2%로 나타났다(<그림 Ⅲ-8> 참조).

<그림 Ⅲ-8> 창업자 전공 분포

(단위 :%)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창업자의 벤처기업 창업 이전의 근무지는 여성의 52.1%, 남성의 73.0%인 '일반기업체'가 가장 많았다. 특이할 만한 것으로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이 30.0%로 남성의 5.5%에 여성이 6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여성창업자의 경력이 남성창업자에 비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창업자 이전 근무지 분포

(단위 : 개사, %)

	일반 기업체	정부 및 산하단체	교수	학생	공공부문 연구소	민간부문 연구소	기타	전체
여성	73 52.1	8 5.7	5 3.6	4 2.9	4 2.9	4 2.9	42 30.0	140 100.0
남성	3,257 73.0	144 3.2	275 6.2	75 1.7	137 3.1	327 7.3	246 5.5	4,461 100.0
전체	3,330 72.4	152 3.3	280 6.1	79 1.7	141 3.1	331 7.2	288 6.3	4,601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나. 조직특성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70%이상으로 높았는데 여성 벤처기업이 70.8%로 남성 벤처기업의 71.7%에 비해 약간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처리업'의 비율이 높아 여성 벤처기업의 14.3%, 남성 벤처기업이 18.4%가 분포하고 있었다. '연구개발업'의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4.5%, 남성 벤처기업이 4.8%였다. 이외에 '건설·운수업'에서 여성 벤처기업 4.5%, 남성 벤처기업 1.5%로 여성 벤처기업의 비율이 3배나 높는데 이는 '건설·운수업'의 중분류인 '전문직별 공사업'에 여성 벤처기업의 3.9%가 분포하는데 기인한다.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별 분포는 '20~49인'이 여성 벤처기업의 31.4%, 남성 벤처기업의 32.2%로 가장 많았다. '5인 미만'은 여성 벤처기업이 11.9%인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6.6%로 여성 벤처기업의 '5인 미만'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다. '20인 미만'은 여성 벤처기업이 '50인 이상'은 남성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고용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영세자영업체가 많은 이유로 고용규모가 '5인 미만'에 집중해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그림 III-9> 참조).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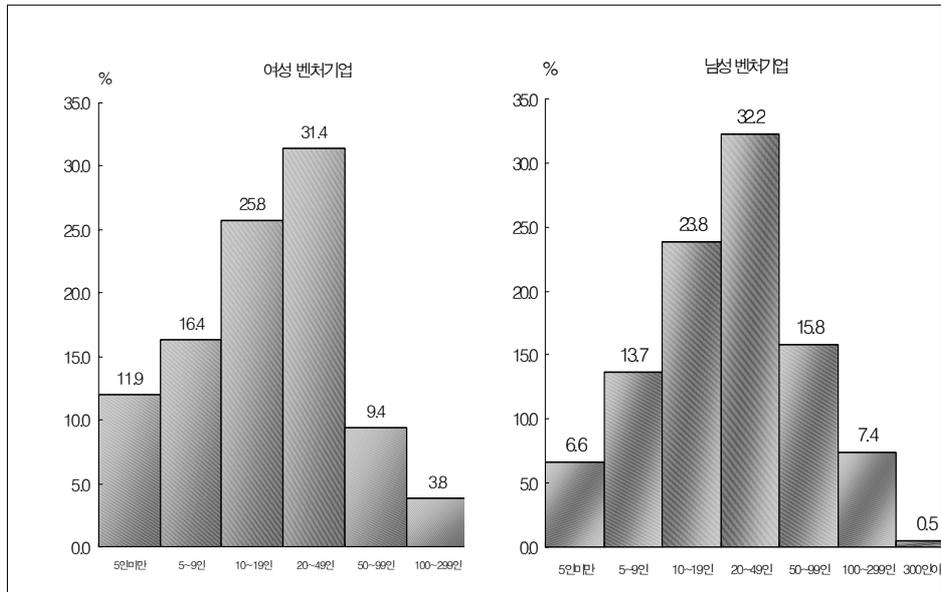
10) 우리 나라 전체 사업체에서 고용규모 '20~49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기업이 0.6%, 남성 기업은 2.9%에 불과하고 '5인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기업이 92.3%, 남성기업은 79.6%이다(양인숙·장미혜·김난주(2004), p.38).

<표 Ⅲ-9> 산업별 벤처기업 분포

산업	(단위 : 개사, %)	여성	남성	전체
농·어·임·광업	농업	1 0.6	9 0.2	10 0.2
	임업	0 0.0	1 0.0	1 0.0
	어업	0 0.0	2 0.0	2 0.0
소계		1 0.6	12 0.3	13 0.3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12 7.8	89 2.1	101 2.3
	담배제조업	0 0.0	2 0.0	2 0.0
	섬유제품제조업	4 2.6	53 1.2	57 1.3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0 0.0	6 0.1	6 0.1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0 0.0	10 0.2	10 0.2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3 1.9	6 0.1	9 0.2
	펄프, 종이, 종이제품	0 0.0	11 0.3	11 0.2
	출판, 인쇄, 매체복제업	1 0.6	28 0.6	29 0.6
	코르크, 석유정제품	0 0.0	3 0.1	3 0.1
	화합물, 화학제품제조	8 5.2	277 6.4	285 6.4
	고무, 플라스틱제품	3 1.9	100 2.3	103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7 4.5	68 1.6	75 1.7
	제1차 금속산업	6 3.9	54 1.3	60 1.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5 3.2	213 4.9	218 4.9
	기타 기계, 장비제조업	16 10.4	533 12.4	549 12.3
	컴퓨터, 사무기기제조	3 1.9	152 3.5	155 3.5
	기타 전기기계 제조업	9 5.8	309 7.2	318 7.1
	영상, 음향, 통신장비	14 9.1	718 16.6	732 16.4
	의료, 정밀, 광학기기	7 4.5	246 5.7	253 5.7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6 3.9	62 1.4	68 1.5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 0.6	40 0.9	41 0.9	
가구 및 기타제조업	3 1.9	103 2.4	106 2.4	
재생용 가공원료 제조업	1 0.6	9 0.2	10 0.2	
소계		109 70.8	3,092 71.7	3,201 71.6
건설·운수업	종합건설업	1 0.6	7 0.2	8 0.2
	전문직별 공사업	6 3.9	52 1.2	58 1.3
	육상, 파이프라인운송	0 0.0	2 0.0	2 0.0
소계		7 4.5	61 1.4	68 1.6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22 14.3	792 18.4	814 18.2
소계		22 14.3	792 18.4	814 18.2
연구개발	연구 및 개발업	4 2.6	112 2.6	116 2.6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2 1.3	70 1.6	72 1.6
	사업지원서비스업	1 0.6	27 0.6	28 0.6
소계		7 4.5	209 4.8	216 4.8
도소매	자동차 판매, 연료소매업	0 0.0	1 0.0	1 0.0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1.3	42 1.0	44 1.0
	소매업(자동차제외)	0 0.0	6 0.1	6 0.1
소계		2 1.3	49 1.1	51 1.1
기타	전기, 가스, 증기업	0 0.0	6 0.1	6 0.1
	숙박 및 음식점업	0 0.0	1 0.0	1 0.0
	통신업	1 0.6	35 0.8	36 0.8
	금융업	0 0.0	2 0.0	2 0.0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	0 0.0	2 0.0	2 0.0
	여행 알선	0 0.0	2 0.0	2 0.0
	교육서비스업	1 0.6	11 0.3	12 0.3
	보건업	0 0.0	4 0.1	4 0.1
	영화, 방송, 공연산업	0 0.0	16 0.4	16 0.4
	오락, 문화, 운동관련업	3 1.9	14 0.3	17 0.4
	하수, 폐기물, 청소업	0 0.0	6 0.1	6 0.1
	기타서비스업	1 0.6	1 0.0	2 0.0
	소계		6 3.9	100 2.3
전체		154 100.0	4,315 100.0	4,469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9> 정규직 고용규모별 벤처기업 분포(2003년)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남녀 벤처기업의 정규직 평균 고용인원은 여성 벤처기업이 32.1명, 남성 벤처기업이 39.2명으로 남성 벤처기업이 약 7명가량 많이 고용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30.4%, 남성 벤처기업이 25.2%로 여성 벤처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이 높았다(<표 III-10> 참조).

<표 III-10> 성별 정규직 근로자 현황(2003년)

(단위 : 명, %)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비율	정규직 평균 고용 인원
여성 벤처기업	1,576	3,611	5,187	30.4	32.1
남성 벤처기업	42,721	126,935	169,565	25.2	39.2
전체	44,297	130,546	174,843	25.3	39.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창업시기별 벤처기업 분포를 보면 여성 벤처기업은 ‘벤처붐이전세대(1990~1998)’가 33.8%(53개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벤처붐세대(1999~2000)’ 32.5%(51개사), ‘벤처붐이후세대(2001~2004)’가 21.7%(34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벤처붐세대(1990~2000)’가 35.1%(1,546개사), ‘벤처붐세대(1990~1998)’ 33.8%(1,487개사), ‘벤처붐이후세대(2001~2004)’ 18.4%(812개사)로 벤처붐세대에 창업한 벤처기업이 가장 많았다. 평균 업력은 남성이 7.7년으로 여성의 7.4년보다 약간 길었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창업시기별* 벤처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년)

	초기벤처세대 (1989년 이전)	벤처붐이전세대 (1990~1998년)	벤처붐세대 (1999~2000)	벤처붐이후세대 (2001~2004)	전 체	평균 업력
여성	19	53	51	34	157	7.4
	12.1	33.8	32.5	21.7	100.0	
남성	558	1,487	1,546	812	4,403	7.7
	12.7	33.8	35.1	18.4	100.0	
전체	577	1,540	1,597	846	4,560	7.7
	12.7	33.8	35.0	18.6	100.0	

주 : *창업시기 구분은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따름.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는 여성 벤처기업, 남성 벤처기업 모두 ‘고도성장기’에 있는 벤처기업이 가장 많아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초기성장기’, ‘창업기’, ‘성숙기’, ‘정체기’에 차례대로 분포하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가 ‘고도성장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으로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정체기	전체
여성	22	55	67	8	7	159
	13.8	34.6	42.1	5.0	4.4	100.0
남성	429	1,629	1,826	232	329	4,445
	9.7	36.6	41.1	5.2	7.4	100.0
전체	451	1,684	1,893	240	336	4,604
	9.8	36.6	41.1	5.2	7.3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의 입지는 남녀기업에 큰 차이가 없어 모두 '기타 일반지역'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23.9%, '창업보육센터'가 8.5%, '벤처집적시설'이 7.2%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기타 일반지역'과 '창업보육센터'의 분포 비율이 각각 57.0%, 9.3%로 남성의 53.1%와 8.5%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벤처기업 입지 분포

(단위 : 개사,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테크노파크	벤처촉진지구	기타 일반지역	전체
여성	33	14	9	6	3	86	151
	21.9	9.3	6.0	4.0	2.0	57.0	100.0
남성	1,034	365	313	230	79	2,287	4,308
	24.0	8.5	7.3	5.3	1.8	53.1	100.0
전체	1,067	379	322	236	82	2,373	4,459
	23.9	8.5	7.2	5.3	1.8	53.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의 법적형태는 주식회사가 남녀 벤처기업에서 모두 가장 많은데

남성 벤처기업이 95.0%(4,217개사)로 여성 벤처기업의 88.4%(137개사)에 비해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개인회사의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11.0%(17개사)로 남성 벤처기업이 4.6%(202개사) 보다 여성 벤처기업의 개인회사비율이 더 높았다(<표 Ⅲ-14> 참조).

<표 Ⅲ-14> 법적형태별 벤처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전체
여성	137	0	0	1	17	155
	88.4	0.0	0.0	0.6	11.0	100.0
남성	4,217	12	5	2	202	4,438
	95.0	0.3	0.1	0.0	4.6	100.0
전체	4,354	12	5	3	219	4,593
	94.8	0.3	0.1	0.1	4.8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의 기업공개현황은 ‘미공개기업’이 90%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여성 벤처기업은 97.2%(139개사)로 남성 벤처기업의 93.1%(4,010개사) 보다 미공개율이 더 높았다. 여성 벤처기업 중 ‘거래소상장기업’은 한 개사도 없었으며 ‘코스닥등록기업’은 2.1%(3개사), ‘제3시장등록기업’이 0.7%(1개사)로 여성 벤처기업의 기업공개는 남성 벤처기업 ‘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제3시장등록기업’ 각각 0.1%, 6.0%, 0.8%에 비해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5> 참조).

<표 Ⅲ-15> 기업공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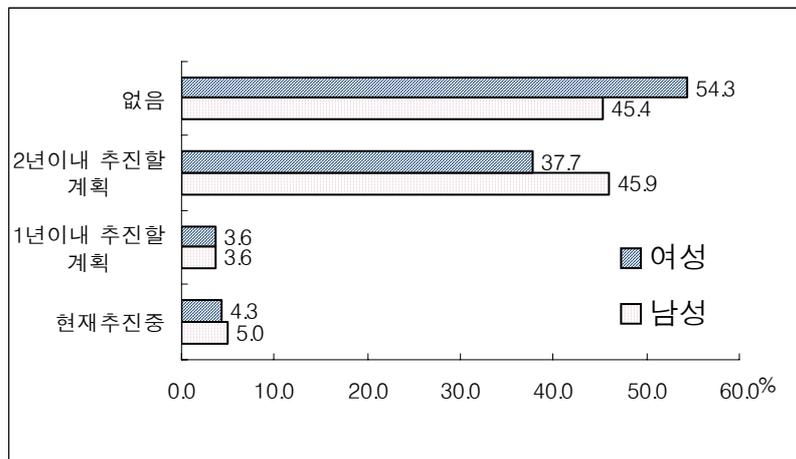
(단위 : 개사, %)

	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제3시장등록기업	미공개기업	전체
여성	0	3	1	139	143
	0	2.1	0.7	97.2	100.0
남성	5	257	35	4,010	4,307
	0.1	6.0	0.8	93.1	100.0
전체	5	260	36	4,149	4,450
	0.1	5.8	0.8	93.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미공개기업의 향후 주식공개계획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은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2년 이내 추진할 계획'이 37.7%, '1년 이내 추진할 계획'이 3.6%, '현재 추진 중'이 4.3%로 나타난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2년 이내 추진할 계획'이 4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없음'이 45.4%, '현재 추진 중'이 5.0% '1년 이내 추진할 계획'이 3.6%로 나타나 주식 공개계획에 있어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0> 참조).

<그림 III-10> 주식공개계획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다. 재무 현황¹¹⁾

벤처기업의 자본금 분포를 보면 '1억원 미만'이 여성 벤처기업의 33.3%, 남성 벤처기업의 29.7%로 가장 많았다. 여성 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1%에 머무른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11.3%로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자본잠식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한 개사도 없는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1.4%로 나타났다(<표 III-16> 참조).

11) 재무현황은 『2004벤처정밀실태조사』에서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당기순익의 응답이 부정확한 기업을 모두 제외시키고 남은 남성 벤처기업 3,035개사, 여성 벤처기업 117개사 총 3,152개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Ⅲ-16> 자본금 분포(2003년)

(단위 : 개사, %)

	0~ 1억원미만	1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 상	자본잠식	전체
여성	39 33.3	20 17.1	18 15.4	34 29.1	2 1.7	4 3.4	0 0.0	117 100.0
남성	900 29.7	603 19.9	396 13.0	751 24.7	172 5.7	169 5.6	44 1.4	3,035 100.0
전체	939 29.8	623 19.8	414 13.1	785 24.9	174 5.5	173 5.5	44 1.4	3,15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자산분포에서도 남녀 벤처기업 모두 '10억원이상~50억원미만'의 비율이 여성 33.3%, 남성 3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1억원이하' 비율이 여성 벤처기업 21.4%, 남성 벤처기업 19.6%로 높았다.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의 비율은 남성 벤처기업이 15.0%로 여성 벤처기업의 11.1%보다 높았는데 자산 평균도 남성 벤처기업이 60억9천만으로 여성 벤처기업이 43억9천만원보다 높다(<표 Ⅲ-17>, <표 Ⅲ-19> 참조).

부채분포를 보면 여성 벤처기업의 34.2%, 남성 벤처기업의 33.1%로 남녀 벤처기업 모두 '10억원이상~50억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채 '1억원 미만'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26.5%로 남성 벤처기업의 24.1% 보다 높고 '100억원이상'에서는 남성 벤처기업이 7.3%로 여성 벤처기업의 4.3%로 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18> 참조).

<표 III-17> 자산 분포(2003년)

(단위 : 개사, %)

	1억원미만	1억원이상~5억원미만	5억원이상~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전체
여성	25 21.4	13 11.1	10 8.5	39 33.3	17 14.5	13 11.1	117 100.0
남성	596 19.6	295 9.7	302 10.0	980 32.3	408 13.4	454 15.0	3,035 100.0
전체	621 19.7	308 9.8	312 9.9	1019 32.3	425 13.5	467 14.8	3,152 100.0

자료 : 중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18> 부채 분포(2003년)

(단위 : 개사, %)

	1억원미만	1억원이상~5억원미만	5억원이상~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전체
여성	31 26.5	14 12.0	17 14.5	40 34.2	10 8.5	5 4.3	117 100.0
남성	732 24.1	475 15.7	354 11.7	1004 33.1	249 8.2	221 7.3	3,035 100.0
전체	763 24.2	489 15.5	371 11.8	1044 33.1	259 8.2	226 7.2	3,15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2003년 벤처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여성 벤처기업은 평균 자산이 43억 9천만원, 부채 평균이 22억 1천만원, 자기자본이 20억 1천만원이고 남성 벤처기업은 자산평균이 60억 9천만원, 부채평균이 31억 4천만원, 자기자본이 22억 6천만원으로 여성 벤처기업 보다 크다. 전년 대비 자산, 부채, 자기자본은 남성 벤처기업이 모두 여성 벤처기업 보다 많이 증가한 가운데 2003년 여성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109.8%로 남성 벤처기업의 139.0%보다 낮았고 자기자본

비율도 여성 벤처기업이 45.9%로 남성 벤처기업의 37.1%보다 높아 여성 벤처기업의 재무상태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건실한 것을 알 수 있다(<표 Ⅲ-19> 참조).

<표 Ⅲ-19> 연도별 재무상황

(단위 : 천만원, %)

	2001년			2002년			2003년			전년 대비 증감률*		
	자산	부채	자기 자본	자산	부채	자기 자본	자산	부채	자기 자본	자산	부채	자기 자본
여성 (n=117)	317	165	152	388	187	218	439	221	201	13.0	18.3	-7.5
남성 (n=3035)	469	251	219	481	255	295	609	313	226	26.6	22.9	-23.5
전체 (n=3152)	464	248	216	477	253	292	602	310	225	26.2	22.8	-23.1

* 주 : 2002년 대비 2003년 증감률임.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표 Ⅲ-20> 매출액 분포(2003년)

(단위 : 개사, %)

	1억원미만	1억원이상~5억원미만	5억원이상~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전체
여성	26	9	13	33	20	16	117
	22.2	7.7	11.1	28.2	17.1	13.7	100.0
남성	602	259	219	986	422	547	3,035
	19.8	8.5	7.2	32.5	13.9	18.0	100.0
전체	628	268	232	1019	442	563	3,152
	19.9	8.5	7.4	32.3	14.0	17.9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의 2003년 매출액 분포를 보면 자본, 자산, 부채 분포와 마찬가지로 '10억원이상~50억원미만'이 가장 많은데 여성 벤처기업의 28.2%, 남성 벤

처기업 32.5%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의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30.8%, 남성 벤처기업은 31.9%인데 여성 벤처기업은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이 남성 벤처기업은 '100억원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20> 참조).

여성 벤처기업의 2003년 매출액 평균은 54억6천만원,¹²⁾ 영업이익 평균은 3억7천만원, 금융(이자)비용은 평균 7억, 당기순이익은 평균 3억5천만원이다. 전년대비 변화를 보면, 여성 벤처기업은 매출액은 양(+)의 증가를 보였으나 증가폭은 남성 벤처기업보다 작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마이너스 증가를 하였는데 그 감소폭은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컸다. 금융(이자)비용도 남녀 벤처기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역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감소폭이 컸다. 2003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여성 벤처기업이 6.8%로 남성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9.8%보다 3%p 낮았다. 여성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당기순이익 모두 남성기업 보다 금액이 적었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연도별 경영 상태

(단위 : 천만원, %)

	2001				2002년				2003년				전년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이자)비용	당기순이익
여성 (n=117)	372	31	86	65	449	70	14	57	546	37	7	35	21.5	-46.4	-54.0	-39.0
남성 (n=3035)	618	53	284	227	598	123	53	88	738	72	25	58	23.3	-41.3	-52.4	-34.4
전체 (n=3152)	609	52	277	221	593	121	52	87	731	71	25	57	23.2	-41.4	-52.4	-34.5

주 : *2002년 대비 2003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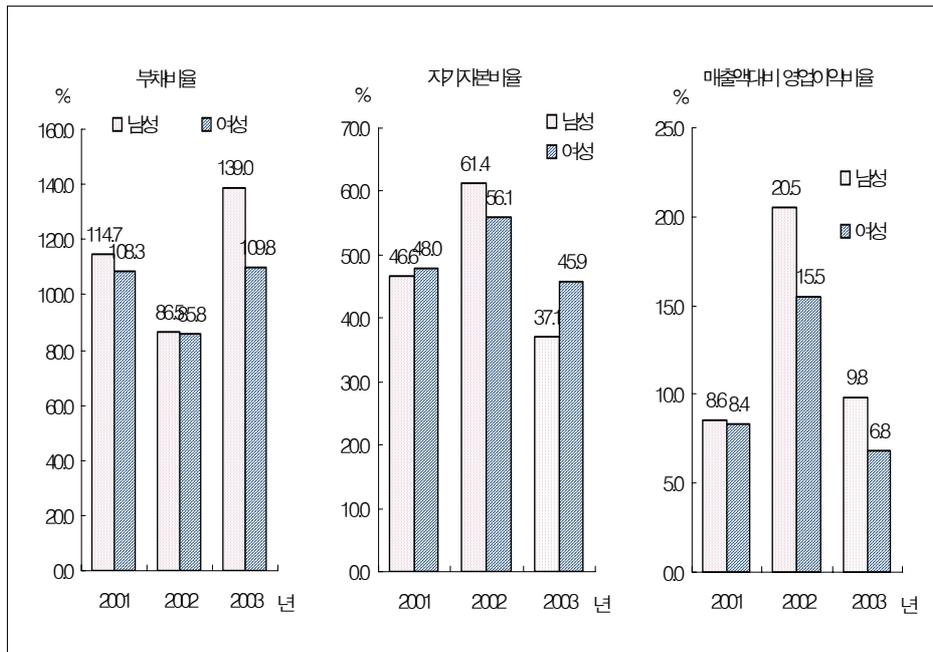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2003년 부채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109.8%로 남성기업의 139.0%로 보다 낮고 자기자본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45.9%로 남성 벤처기업이 37.1% 보다

12) 양인숙·장미혜·김난주(2004)에서 여성기업의 2003년 매출액 평균은 13억8천3백만원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54억6천만의 약 1/4 수준이다.

높아 여성 벤처기업의 재무성치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건실하였다.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6.8%로 남성 벤처기업의 9.8% 보다 3%p 낮았다. 한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남성 벤처기업은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1년부터 2003년 최근 3년간 벤처기업의 재무상황은 2002년에 전년대비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과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은 높아져 호전되었다가 2003년에는 전년대비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반대로 자기자본비율과 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은 낮아져 재무성과와 경영성과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Ⅲ-11> 참조).

<그림 Ⅲ-11> 부채·자기자본·매출액대비 영업이익비율(2001~2003)



주 :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2)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1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라. 정책자금 활용 실적

중소·벤처 창업자금(용자), 경영안정자금(용자), 구조개선자금(용자), 기술개발자금(출연), 정부연구개발(출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 산업기반자금(용자),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용자), 기타에 걸쳐 각종 정책 자금을 한 건이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는 벤처기업은 2002년은 응답벤처기업 중 1,017개사로 여성 벤처기업은 38개사, 남성 벤처기업은 979개사였고 2003년에는 다소 늘어 전체 1,180개사에 여성 벤처기업은 39개사, 남성 벤처기업은 1,141개사였다. 정책 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 중 여성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은 3.7%, 2003년엔 3.4%에 불과하다.

지원받은 액수가 가장 큰 자금은 남녀 벤처기업 2002년, 2003년 모두 '기술개발자금'이었다. 2003년에 남성 벤처기업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기술개발자금',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특정연구개발', '산업기반자금', '중소·벤처 창업자금',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순서로 자금 지원액이 컸다.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기타를 제외하고 '기술개발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산업기반자금',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 '특정연구개발', '구조개선자금' 순서로 지원금액이 컸다(<표 III-22> 참조).

이는 여성 벤처기업이 일반적인 정책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전문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향후 시장중심적 정책변화가 여성 벤처기업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II-22> 정책 자금 활용 실적(2002년,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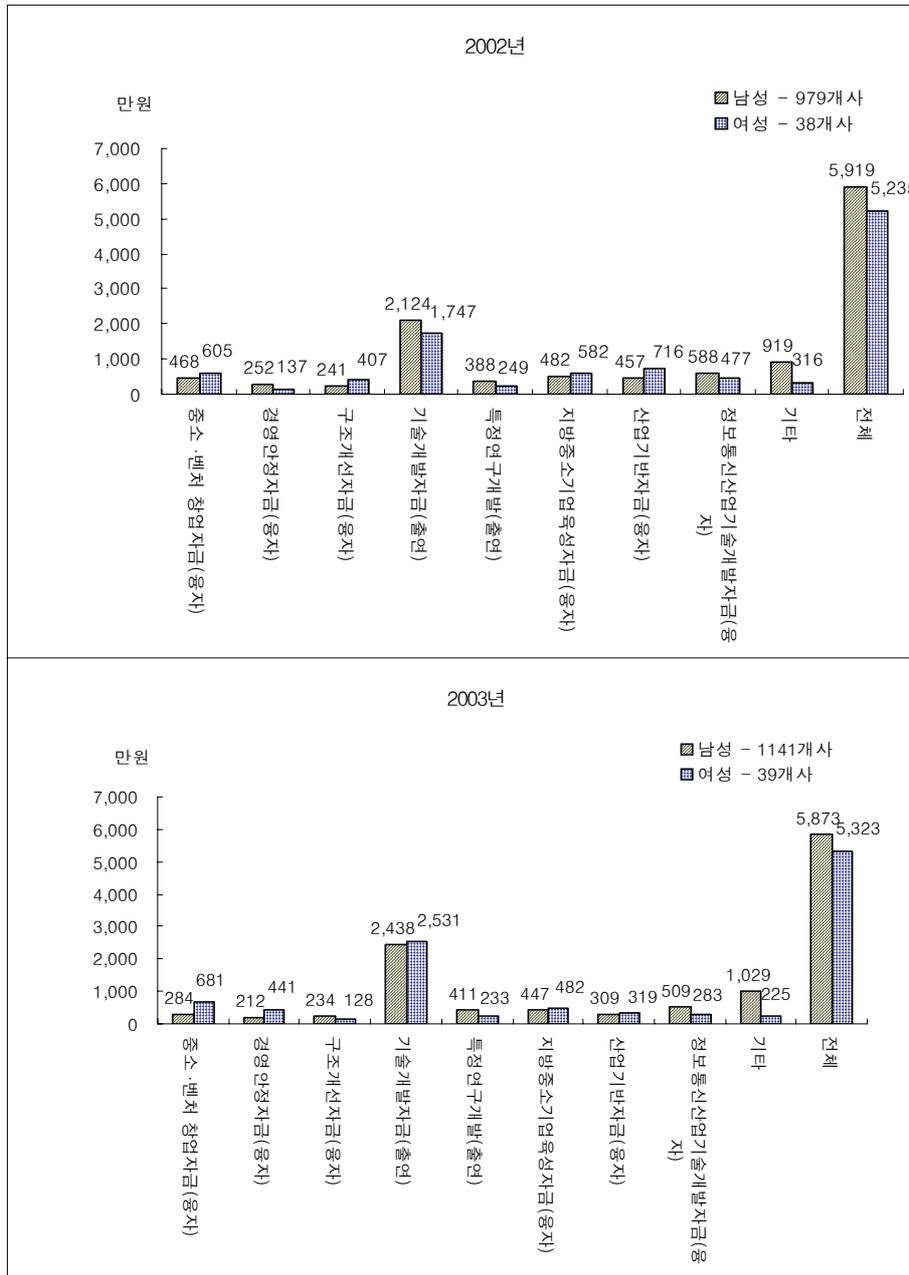
(단위 : 천만원, %)

	2002			2003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중소·벤처 창업자금(용자)	458 7.9	23 11.6	324 8.0	324 4.8	27 12.8	350 5.1
경영안정자금(용자)	247 4.3	5 2.6	242 4.2	242 3.6	17 8.3	260 3.8
구조개선자금(용자)	236 4.1	15 7.8	267 4.2	267 4.0	5 2.4	272 3.9
기술개발자금(출연)	2,079 35.9	66 33.4	2,782 35.8	2,782 41.5	99 47.5	2,880 41.7
특정연구개발(출연)	380 6.6	9 4.8	469 6.5	469 7.0	9 4.4	478 6.9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	472 8.1	22 11.1	510 8.2	510 7.6	19 9.1	528 7.6
산업기반자금(용자)	447 7.7	27 13.7	353 7.9	353 5.3	12 6.0	365 5.3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용자)	575 9.9	18 9.1	580 9.9	580 8.7	11 5.3	591 8.6
기타	900 15.5	12 6.0	1,174 15.2	1,174 17.5	9 4.2	1,183 17.1
전체	5,795 100.0	199 100.0	6,701 100.0	6,701 100.0	208 100.0	6,909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남녀 벤처기업별로 평균 지원받은 금액에서 여성 벤처기업은 2002년에는 평균 5,235만원을 지원받아 남성 벤처기업의 5,915만원보다 적었으며 2003년에도 여성 벤처기업은 평균 5,323만원을 지원받아 평균 5,873만원을 지원받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지원 받은 금액이 적었다. 여성 벤처기업의 평균 지원 금액이 높은 자금은 2002년에는 '중소·벤처창업자금', '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등이었고 2003년에는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등으로 총액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지원금액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적었으나 벤처기업 한 개사당 평균 지원금액에서는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III-12> 참조).

<그림 III-12> 정책 자금별 평균 지원 금액(2002년,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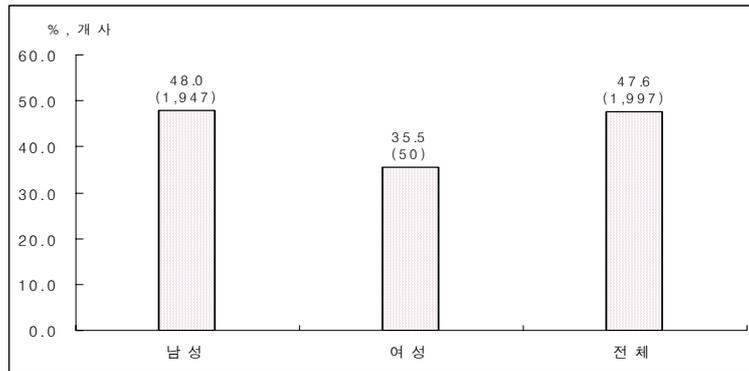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마. 해외진출

해외 진출한 벤처기업의 비율은 남성 벤처기업이 48.0%(1,947개사)로 여성 벤처기업의 35.5%(50개사) 보다 높았다(<그림 Ⅲ-13> 참조).

해외 진출 기업의 진출 형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수출', '해외지사설립', '합작법인설립', '해외기업투자', '해외연구소' 순서로 많았는데 여성 벤처기업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67.2%로 남성 벤처기업의 63.8%로 더 높았다 (<표 Ⅲ-23> 참조).

<그림 Ⅲ-13> 해외 진출 비율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표 Ⅲ-23> 해외 진출 형태

(단위 : 개사, %)

	수출	해외지사설립	합작법인설립	해외기업투자	해외연구소설립	전체
여성	43 67.2	13 20.3	6 9.4	2 3.1	0 0.0	64 100.0
남성	1,527 63.8	490 20.5	234 9.8	127 5.3	14 0.6	2,392 100.0
전체	1,570 63.9	503 20.5	240 9.8	129 5.3	14 0.6	2,456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해외 진출 지역의 분포는 여성 벤처기업은 '중국' 26.3%, '미국기타지역' 24.6%, '일본' 19.3%, '동남아' 16.7%, '유럽' 7.9% 순서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중국'이 26.4%로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 '중국'인 것은 여성 벤처기업과 동일하나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동남아'가 18.0%로 여성 벤처기업의 진출비율 16.7%보다 높았다. 여성 벤처기업이 '미국기타지역'과 '일본'의 진출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미국기타지역' 16.7%, '일본' 16.8%, '유럽' 12.5%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해외 진출 지역

(단위 : 개사, %)

	중국	미국기타지역	일본	동남아	유럽	실리콘밸리	기타	전체
여성	30	28	22	19	9	1	5	114
	26.3	24.6	19.3	16.7	7.9	0.9	4.4	100.0
남성	1,114	706	708	758	525	43	361	4,415
	26.4	16.7	16.8	18.0	12.5	1.0	8.6	100.0
전체	1,144	734	730	777	534	44	366	4,329
	26.4	17.0	16.9	17.9	12.3	1.0	8.5	100.0

주: 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수출액과 투자실적을 보면 2003년 여성 벤처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96.8만\$인데 반해 남성 벤처기업은 500.4만\$으로 여성기업 보다 5배 이상 많았다. 해외투자실적에서도 남성 벤처기업은 12.0만\$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2.5만\$ 보다 4배 이상 많았고 외국인 투자는 남성 벤처기업이 평균 2.4만\$을 유치한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5> 참조).

<표 III-25> 수출 및 투자 실적(2003년)

(단위 : 만\$, %)

	수출액 (평균)	해외투자실적 (평균)	외국인 투자유치 (평균)
여성	96.8	2.5	0
남성	500.4	12.0	2.4
전체	486.5	11.7	2.4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의 해외진출비율이 50% 미만(여성 벤처기업 35.5%, 남성 벤처기업 48.0%)인 가운데 벤처기업이 해외진출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우수한 파트너 발굴애로', '자금부족', '전문인력부족', '정보부족', '기업신인도 부족' 등을 차례대로 지적하고 있었다. 반면, '수출품목발굴 곤란'이나 '기술력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우리 벤처기업들이 수출상품과 기술력은 우수한 편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해외에 알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해외의 우수한 파트너나 자금, 정보 등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문에 대한 정책이 요청된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해외진출 장애요인

(단위 : 건, %)

	여성					남성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우수한 파트너 발굴애로	37	33	21	91	23.0	984	930	591	2,505	22.7
자금부족	42	27	21	90	22.7	1,118	628	575	2,321	21.1
전문인력부족	26	33	22	81	20.5	756	813	632	2,201	20.0
정보부족	12	17	32	61	15.4	352	666	937	1,955	17.7
기업신인도 부족	5	14	19	38	9.6	229	429	542	1,200	10.9
수출품목발굴곤란	6	4	11	21	5.3	176	96	205	477	4.3
기술력부족	7	3	4	14	3.5	142	105	109	356	3.2
전체	135	131	130	396	100.0	3,757	3,667	3,591	11,015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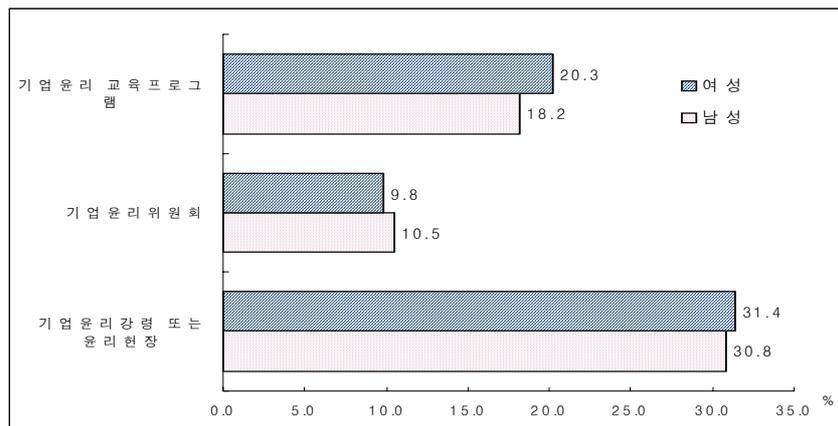
바.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수행 성과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보면 '기업윤리강령 또는 윤리헌장'의 실시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업윤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실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벤처기업별로 보면 '기업윤리 교육프로그램', '기업윤리강령 또는 윤리헌장' 시행에 여성 벤처기업의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각각 20.3%(남성 벤처기업 18.2%), 31.4%(남성 벤처기업 30.8%)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기업윤리위원회'는 남성 벤처기업이 10.5%로 여성 벤처기업의 9.8% 보다 높았다(<그림 III-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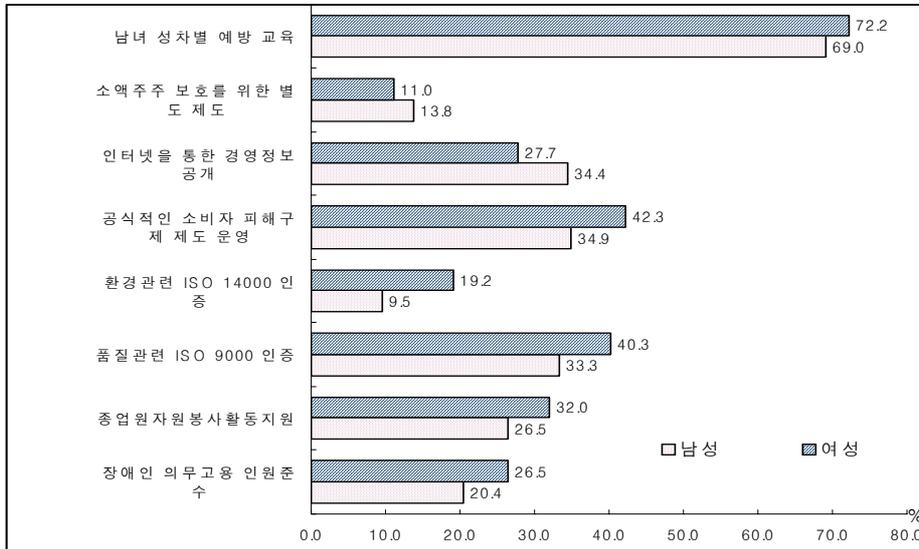
사회적 책임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남녀 성차별 예방 교육'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실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녀 벤처기업별로 각 제도의 실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녀 성차별 예방 교육', '공식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운영', '품질관련 ISO 9000 인증', '종업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환경관련 ISO 14000 인증',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준수' 부문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실시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다.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인터넷을 통한 경영정보 공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 제도'의 실시 비율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15> 참조).

<그림 III-14> 윤리경영 시행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5> 사회적 책임 수행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사.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기대

벤처기업이 사업장 선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성 벤처기업은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20.1%), ‘세제혜택 등의 행정지원’(13.8%), ‘영업/판매 용이성’(13.8%), ‘토지가격 및 임대료’(11.5%) 등이었고 남성 벤처기업은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16.2%), ‘영업/판매 용이성’(16.2%), ‘세제혜택 등의 행정지원’(11.4%), ‘토지가격 및 임대료’(11.0%) 등을 사업장 입지 선정의 중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남녀 벤처기업별 입지 선정의 중요 요인의 우선순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상위 4가지 요인 ‘지역 연구개발 기반’, ‘세제 혜택 등의 행정 지원’, ‘영업/판매 용이성’, ‘토지가격 및 임대료’ 등의 남녀 벤처기업 모두 동일하였다(<표 Ⅲ-27> 참조).

앞서 벤처확인기업의 지역별 분포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여성 벤처기업이 53.2%, 남성 벤처기업이 64.9%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을 지방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는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 구비와 세제혜택, 토지가격 및 임대료 혜택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표 III-27> 주력 사업장 입지 선정의 중요 요인

(단위 : 건, %)

	여성		남성		전체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	54	20.1	1,261	16.2	1,315	16.3
세제혜택 등의 행정지원	37	13.8	884	11.4	921	11.4
영업/판매 용이성	37	13.8	1,259	16.2	1,296	16.1
토지가격 및 임대료	31	11.5	858	11.0	889	11.0
원료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23	8.6	812	10.4	835	10.4
공장 설립 용이성	22	8.2	505	6.5	527	6.5
원활한 인력공급	18	6.7	549	7.1	567	7.0
최고경영자의 지역연고	18	6.7	577	7.4	595	7.4
제품 수요기업과의 근접성	15	5.6	466	6.0	481	6.0
교통망 등 물류상의 잇점	6	2.2	140	1.8	146	1.8
자금조달의 용이성	5	1.9	271	3.5	276	3.4
기타	3	1.1	201	2.6	204	2.5
전체	269	100.0	7,783	100.0	8,052	100.0

* 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신규 투자계획의 '투자예정'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 31.6%, 남성 벤처기업 32.1%로 비슷하였고 '투자계획 없음'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32.4%로 남성 벤처기업의 26.5%에 비해 높았다. '투자계획은 있으나 현재 여건상 유보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36.0%, 남성 벤처기업이 41.4%로 남성 벤처기업이 높아 신규 투자에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신규 투자계획

(단위 : 개사, %)

	투자예정	투자계획은 있으나 현재여건상 유보중	투자계획없음	전체
여성	43 (31.6)	49 (36.0)	44 (32.4)	136 (100.0)
남성	1,251 (32.1)	1,613 (41.4)	1031 (26.5)	3,895 (100.0)
전체	1,294 (32.1)	1,662 (41.2)	1075 (26.7)	4,031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2~3년에 신규투자를 할 경우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이 여성 벤처기업 42.7%, 남성 벤처기업 44.9%로 남녀 벤처기업 모두 '서울 및 수도권'에 비율이 높았다. 현재 벤처기업의 지역 분포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이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는 지역도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벤처기업이 입지 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 계획은 여성 벤처기업이 23.4%, 남성 벤처기업이 22.8%로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높았다 (<표 III-29> 참조).

<표 III-29> 대규모 신규 투자 지역

(단위 : 개사, %)

	서울 및 수도권	대전 및 충청권	기타 국내지역	해외	전체
여성	53 (42.7)	7 (5.6)	35 (28.2)	29 (23.4)	124 (100.0)
남성	1668 (44.9)	417 (11.2)	783 (21.1)	848 (22.8)	3,716 (100.0)
전체	1,721 (44.8)	424 (11.0)	818 (21.3)	877 (22.8)	3,84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벤처활성화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소재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판매, 유통 및 수출지원', '첨단 기술개발 자금 지원', '벤처캐피탈,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 등 자금 지원을 상위 3가지로 가장 우선시 하였고 이외에 'IT 등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기술개발 지원'을 지적하였다(<표 III-30> 참조).

<표 III-30> 지방기업들의 벤처창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

(단위 : 건, %)

	여성		남성		전체	
판매, 유통 및 수출 지원	61	23.1	1,652	21.7	1,713	21.8
첨단 기술개발 자금 지원	56	21.2	1,329	17.5	1,385	17.6
벤처캐피탈,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	40	15.2	1,227	16.1	1,267	16.1
IT 등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20	7.6	568	7.5	588	7.5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기술개발 지원	19	7.2	379	5.0	398	5.1
경영지도, 마케팅 등 종합지원	17	6.4	534	7.0	551	7.0
공용 첨단시설 및 장비 지원	14	5.3	504	6.6	518	6.6
법률, 회계, 세무 등 실무 업무 지원	10	3.8	205	2.7	215	2.7
각종 행정처리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9	3.4	435	5.7	444	5.6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진출 지원	8	3.0	359	4.7	367	4.7
지역내 기업체간의 상호협력 촉진	6	2.3	277	3.6	283	3.6
전시장 및 회의장 등 부대시설 지원	4	1.5	82	1.1	86	1.1
기타	0	0.0	47	0.6	47	0.6
전체	264	100.0	7,598	100.0	7,862	100.0

주 : 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아.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창업자 특성, 업력 및 규모, 산업특성, 정부지원, 근로자 학력, 성장단계 등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계량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성을 위해 매출액 결측치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가용한 표본수는 총 2,385개로 이중 남성 벤처기

업이 2,313개, 여성 벤처기업이 72개였다. 창업자 특성의 성별 더미¹³⁾를 비롯 연령, 학력, 배태조직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성장단계와 경영권 지분소유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II-31> 참조).

<표 III-31>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성장지표	매출액증가율		2002년대비 2003년 매출액 증가율임.
독립변수			
창업자 특성	성별더미	DSex	DSex=1은 여성을 의미함.
	연령더미	DAge	연령은 30대이하와 40대이상으로 양분하였으며 DAge=1은 40대이상을 의미함.
	학력더미	DEdu	학력은 석사이상과 학사이하로 양분하였으며 DEdu=1은 석사이상을 의미함.
	전공더미	DMaj	전공은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로 양분하였으며 DMaj=1은 인문사회계를 의미함.
	배태조직	DCareer	창업자의 창업 이전 신분은 학계, 민·관연구소, 일반기업, 정부 및 산하단체를 포함한 기타 3개로 나누었으며 Dcareer=1은 일반기업, DCareer=2는 정부 및 산하단체 등 기타를 의미함.
연구개발		SqRnd	2002년 매출액 대비 2002년 연구개발투자비 지수
업력 및 규모	기업업력	LogAge	(조사년도- 창업년도) 결과 로그변환
	기업규모	LogSiz	2002년 정규직 근로자수 로그변환
산업특성	산업더미	DInd	산업분류는 농·어·임·광업, 제조업, 건설·운수업, 정보처리, 연구개발, 도소매, 기타 7개로 나누었으며 DInd=1은 제조업, DInd=2는 건설·운수업, DInd=3은 정보처리, DInd=4는 연구개발, DInd=5는 도소매, DInd=6은 기타임.
정부지원	정책자금	Fund	2002년 총자산 대비 중소·벤처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기술개발자금, 특정연구개발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정보통신기술개발자금, 기타 총 9개를 합한 자금실적 비율
근로자학력		LogEmp	석사이상 근로자수 로그변환
성장단계더미		DGrowth	성장단계는 성장기, 초기성장기·고도성장기, 성숙기·정체기 3개로 나누었고 DGrowth=1은 초기성장기·고도성장기, DGrowth=2는 성숙기·정체기임.
경영권	지분소유더미	DShare	창업자 지분소유를 말하며 49%이하, 50%이상으로 나누었으며 DShare=1은 50%이상을 의미함.

13) 성별 더미는 여성 벤처기업과 남성 벤처기업을 각각 분리한 회귀분석을 계획했으나 여성 벤처기업수가 72개에 불과하여 남녀 벤처기업을 분리하여 분석을 하는 대신에 성별 더미 추가로 대체하게 되었다.

<표III-32>의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자 특성 중 남성 창업자에 비해 여성창업자(DSex)가, 30대에 비해 40대 연령(DAge)이, 민·관 연구소에 비해, 일반기업체(DCareer1)와 정부 및 산하기관(Career2)에 몸담고 있던 창업자들은 매출액 증가에 (+) 영향을 미쳤고 석사이상(DEdu1)이 학사 이하 학력자에 비해 인문사회계(DMajor)가 이공계에 비해 매출액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창업자 특성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연구개발에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변수(Rnd)와 이의 자승항(SqRnd) 모두 매출액 증가에 (+) 영향을 미쳤으며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하였다.

기업의 업력 및 규모에서는 기업의 업력(LogAge)이 길수록, 근로자 수(DSize)가 많을 수록 매출액 증가에 (-) 영향을 미쳤으며 근로자 수(DSize)는 유의미한 변수였다.

산업특성에서는 농·어·임·광업에 비해 제조업(DInd1), 건설·운수업(DInd2), 정보처리(DInd3), 연구개발(DInd4), 도소매(DInd5), 기타(DInd6) 모두 매출액 증가에 (+)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정책 자금의 합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살펴본 정부정책 지원(Fund)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근로자학력은 석사이상의 근로자수(LogEmp)가 많을수록 매출액에 (-)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였다.

성장단계는 성장기에 비해 초기성장기·고도성장기(DGrowth1)와 성숙기·정체기(DGrowth2)가 매출액 증가에 (-)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창업자의 지분소유(DShare)는 49% 이하보다 50%이상이 매출액에 (-)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연구개발투자비', '기업규모'의 '근로자 학력'으로 '연구개발투자비'는 매출액에 (+)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근로자 학력'과 '기업체 규모'는 (-) 영향을 미쳤다.¹⁴⁾

14) 벤처기업과는 달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원사인 일반 여성기업 701개사에 대상으로 양인숙·장미혜·김난주(2004)이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가 기업인의 연령, 학력더미 변수 중 대졸과 대학원, 중업원수, 연구개발투자액, 자기자본이었고 이중 연구개발투자액을 제외한 변수들이 매출액에 정(+의) 영향

<표 III-32>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창업자 특성	(Constant)	16.608	37.375	.444	.657
	D _{Sex}	.728	17.301	.042	.966
	D _{Age}	5.221	4.424	1.180	.238
	D _{Edu}	-4.243	4.968	-.854	.393
	D _{Major1}	-2.466	5.232	-.471	.637
	D _{Career}	9.875	9.392	1.051	.293
	D _{Career2}	12.595	8.520	1.478	.140
연구개발	SqRnd	26.086	1.302	20.041	.000
업력 및 규모	LogAge	-.217	4.351	-.050	.960
	LogSize	-26.133	7.714	-3.388	.001
산업특성	D _{Ind1}	3.633	35.675	.102	.919
	D _{Ind2}	6.220	38.618	.161	.872
	D _{Ind3}	2.572	36.517	.070	.944
	D _{Ind5}	11.133	39.511	.282	.778
	D _{Ind6}	3.905	37.478	.104	.917
정부지원	Fund	-.524	.569	-.920	.358
근로자 학력	LogEmp	-6.079	2.716	-2.238	.025
성장단계	D _{Growth}	-5.124	9.821	-.522	.602
	D _{Growth}	-7.342	12.420	-.591	.555
경영권	D _{Share}	-.341	4.707	-.072	.942

R²=0.595 수정R²=0.354, D.W=2.047 (N=2,385)

자료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원자료.

4. 소결

정부의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파악된 여성 벤처기업 수는 전체 벤처확인기업의 3.3% 284개사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사업체에서 여성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35.7%를 감안하면, 여성 벤처창업이 지극히 미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법적형태는 남성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가장 많았으나, 주식회사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95.0%)에 비해 여성 벤처기업(88.4%)이 낮게 나타났다. 기업공개 현황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97.2%가 미공개인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93.1%가 미공개기업이었다. 남성 벤처기업이

을 미쳤다. 이는 본 보고서의 연구개발투자비가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업체 규모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부표 1>, <부표 2> 참조).

향후 기업공개에 대해 54.6%가 의사가 있음을 나타낸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45.7%만이 기업공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공개를 통한 적극적 성장의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벤처기업의 재무상황은 자본, 자산, 부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고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 또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다. 자기자본비율,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모두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은 109.8%로 남성 벤처기업의 139.0% 보다 낮았다.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금융비용과 부채비율이 낮아, 자본구조가 건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실적을 보면, '기술개발자금'의 활용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에서 모두 4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중소·벤처 창업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 '특정연구개발자금'의 활용 비율은 낮았다. 정책 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평균 자금 활용액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이 5,323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5,873만원보다 550만원 적었다.

해외진출은 여성 벤처기업의 35.5%가 진출한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그 비율이 48.0%로 여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다. 해외 수출 및 투자실적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한 여성 벤처기업은 한 개사도 없어 여성 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이 남성 벤처기업에 뒤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진출지역에서도 남성 벤처기업은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해외진출 장애요인으로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우수한 파트너 발굴애로'와 '자금부족', '전문인력부족'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윤리경영 시행에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기업윤리강령 또는 윤리헌장'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윤리 교육프로그램'은 여성 벤처기업이, '기업윤리 위원회'는 남성 벤처기업의 실시비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사회적 책임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남녀 성차별 예방교육'이 남녀 벤처기업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남녀 성차별 예방교육'을 비롯하여 '공식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운영', '환경관련 ISO 14000 인증', '품질관련 ISO 9000 인증', '종업원자원봉사활동지원',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준수'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의 실시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아 여성 벤처기업의 사회적 의무수행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입지선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남녀 벤처기업 모두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 '세제혜택 등의 행정지원', '영업/판매 용이성', '토지가격 및 임대료'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벤처기업의 성격상 연구개발 기반을 가장 중요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67.6% 남성 벤처기업의 73.5%가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지역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서울 및 수도권'을 40%이상으로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남녀 벤처기업이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한 '연구개발 기반'과 '세제혜택', '영업/판매 용이성'을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토지가격 및 임대료'는 '서울 및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겠지만 나머지 유인들이 높은 토지가격 및 임대료를 상쇄하기 때문에 남녀 벤처기업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남녀 벤처기업 각각에 요인을 분석하려 했으나 여성 벤처기업의 표본수가 극히 미비하여 성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성장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성별은 매출액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구개발투자', '기업규모', '석사이상 근로자수' 등이었다. 이중 '연구개발투자비'의 자승항(SqRnD) 만이 매출액성장에 (+)의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기업규모가 클수록, 석사이상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매출액성장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벤처기업일 수록 매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자금 면에서는 소규모 경영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외진출, 기업공개, 신규 투자에 대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은 여성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창업 초기부터 정부의 지원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기 여성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신장과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IV

기술집약형 여성 벤처기업의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1. 여성 벤처기업의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개요	67
2. 조사결과	68
3. 소결	113

1. 여성 벤처기업의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

기술집약형 남녀 벤처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하기 위한 조사로 벤처기업의 일반 현황, 특히 인력확보, 기술개발, 자금조달, 인력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하였고 조사내용은 <표 IV-1> 과 같다.

<표 IV-1> 조사내용

구분	내용
대표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창업 관련	기업형태, 기업유형, 준비기간, 애로점, 창업 경위 등
기업일반 현황	벤처기업유형, 성장단계, 경영상 애로점
인적자원관리 실태	외주여부 및 분야, 부문별 남녀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인력부족 분야 및 원인, 인력충원 방법, 보상제도 등
기술개발 실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준비여부 및 중점 부문, 핵심기술,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연구개발 활동 등
자금조달 실태	재무제표 관련, 매출액 등, 연구개발 투자비율, 교육훈련 지출 비율, 자금조달 현황, 투자실적, 신용보증지원 제도 활용여부

나.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2005년 5월 현재 벤처넷에 등재된 벤처확인기업 8,712개 중 남녀 벤처기업 총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남녀 벤처기업 500개사 중 남성 벤처기업 400개에 대해서는 전체 남성 벤처기업 확인업체수 8,428개를 모표본으로 산업별로 층화추출로 조사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에 관계없이 벤처넷에 등록된 전체 여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는 전체 여성 벤처기업의 수가 284개사에 불과하여 산업별 층화추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된 여성 벤처기업 100개사는 전체 여성 벤처기업의 284개사 중 35.2%에 해당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 조사결과

가. 대표이사 특성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연령 분포는 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로 남성의 0.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8.5%로 여성의 5.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연령분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알 수 있듯이 평균 연령이 여성 대표이사는 45.3세, 남성 대표이사는 46.4세로 여성 대표이사 평균 연령이 남성에 비해 적었다(<표 IV-2> 참조).

<표 IV-2> 대표이사의 연령

(단위 : 명, %, 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평균
여성	5 4.7	18 16.8	56 52.3	22 20.6	6 5.6	107 100.0	45.3
남성	2 0.5	74 17.0	230 52.8	93 21.3	37 8.5	436 100.0	46.4
전체	7 1.3	92 16.9	286 52.7	115 21.2	43 7.9	543 100.0	46.2

대표이사의 학력분포는 대학졸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36.2%, 남성 46.2%로 가장 높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업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남성 대표이사가 여성대표이사에 비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참조).

<표 IV-3> 대표이사의 최종학력

(단위 : 명, %)

	고졸이하	전문대졸업	대학졸업	대학원졸 이상	전체
여성	24 22.9	11 10.5	38 36.2	32 30.5	105 100.0
남성	61 14.0	33 7.6	201 46.2	140 32.2	435 100.0
전체	85 15.7	44 8.1	239 44.3	172 31.9	540 100.0

대표이사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 이들의 전공계열은 여성의 경우는 ‘인문사회계열(35.8%)’, ‘자연공학계열(32.1%)’, ‘예체능계열(12.3%)’, ‘사범계열(6.2%)’ 등의 순서로 많은 반면, 남성은 ‘자연공학계열(56.4%)’, ‘상공농수산계열(24.1%)’, ‘인문사회계열(16.0%)’, ‘의약계열(1.3%)’로 자연공학계열 출신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표 IV-4> 참조).

<표 IV-4> 대표이사의 전공계열

(단위 : 명, %)

	인문사회 계열	사범계열	상공농수 산계열	자연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약계열	기타 (무응답)	전체
여성	29 35.8	5 6.2	4 4.9	26 32.1	10 12.3	4 4.9	3 3.7	81 100.0
남성	60 16.0	3 0.8	90 24.1	211 56.4	2 0.5	5 1.3	3 0.8	374 100.0
전체	89 19.6	8 1.8	94 20.7	237 52.1	12 2.6	9 2.0	6 1.3	455 100.0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이전경력은 기업체에 근무 경력이 많아 ‘국내 중소기업 근무’ 비율이 여성 33.0%, 남성 34.9%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국내 대기업 근무’는 여성이 10.4%, 남성이 25.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업체 경영’, ‘미취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

사'에서는 남성이 한명도 없는 반면, '학생'에서는 여성이 한명도 없어 대조를 이루었다. 남녀 모두 '교사'와 '공무원'이 소수 있었다(<표 IV-5> 참조).

<표 IV-5> 대표이사의 이전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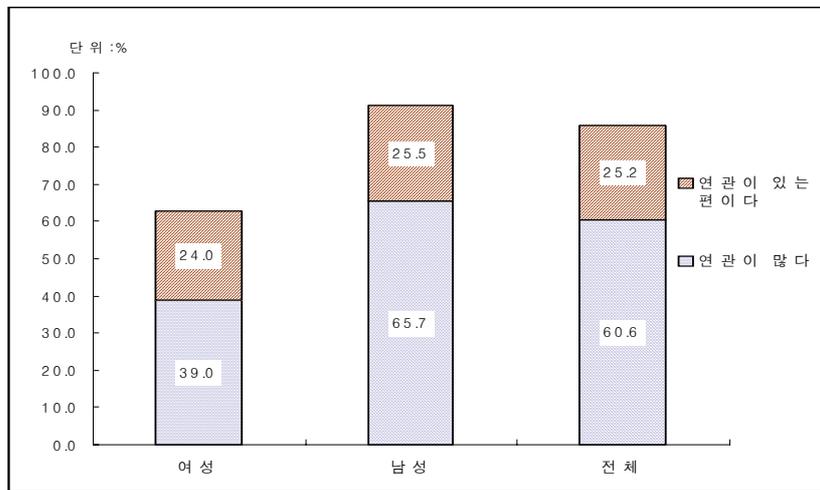
(단위 : 명, %)

	국내 대기업 근무*	국내 중소기 업 근무	사업체 경영	연구기 관/대 학근무	학생	가사	미취업	교사	공무원	기타	전체
여성	12 10.4	38 33.0	23 20.0	18 15.7	0 0.0	14 12.2	3 2.6	3 2.6	2 1.7	4 3.5	115 100.0
남성	121 25.6	167 35.4	85 18.0	79 16.7	5 1.1	0 0.0	2 0.4	4 0.8	5 1.1	6 1.3	472 100.0
전체	133 22.7	205 34.9	108 18.4	97 16.5	5 0.9	14 2.4	5 0.9	7 1.2	7 1.2	10 1.7	587 100.0

주: 복수응답

* 대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 규모임.

<그림 IV-1> 대표이사의 이전 경력과 현재 업종과의 관련성



대표이사의 이전 경력과 현재 업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성 대표이사는

‘연관이 있는 편이다’와 ‘연관이 많다’가 각각 24.0%, 39.0%로 나타나 전체 63.0%가 이전 경력과 연관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연관이 있는 편이다’가 25.5%, ‘연관이 많다’가 65.7%로 전체 91.2%가 이전 경력과 연관이 있는 업종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남성 대표이사의 이전 경력과 현재 업종과의 연관성 비율이 여성 대표이사에 비해 약 30%p 가까이 높았다(<그림 IV-1>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표 IV-4>와 <표 IV-5>에서 확인하였듯이, 여성 벤처기업인의 인문사회계열 전공 비중이 높고, 가사(12.2%), 미취업(2.6%) 등 직업경험이 없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사업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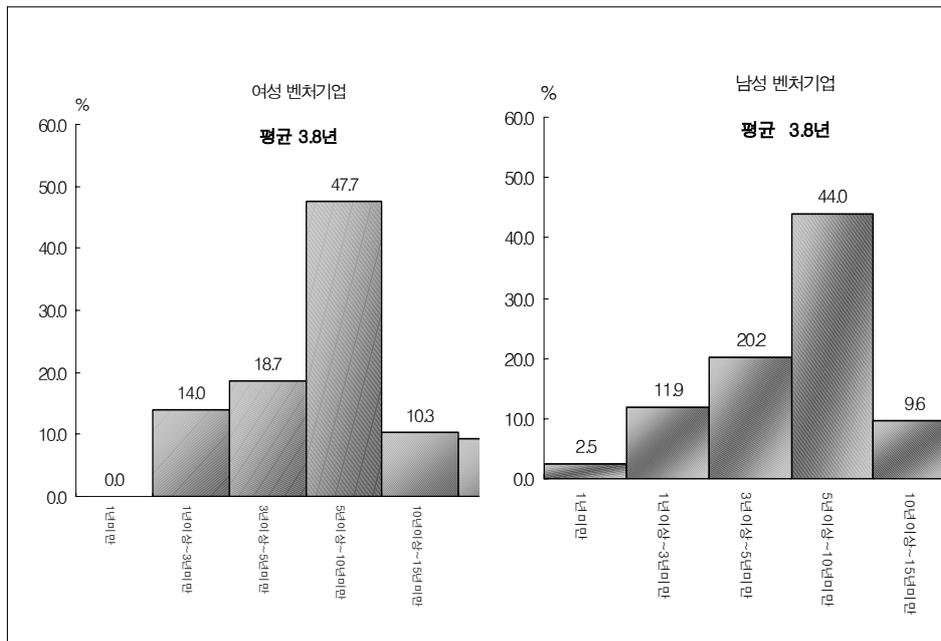
벤처기업의 업력 분포는 ‘5년이상~10년미만’이 여성 벤처기업 47.7%, 남성 벤처기업 44.0%로 가장 많았고 여성 벤처기업은 ‘1년미만’ 기업은 단 한 기업도 없는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1년 미만’이 2.5%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벤처 확인을 받는 것에 여성 벤처기업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3.8년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여성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남성 벤처기업처럼 벤처확인을 받는 것에 좀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V-2> 참조).

조사된 벤처기업의 산업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고 뒤이어 ‘정보처리업’, ‘연구개발업’, ‘도소매업’, ‘건설업’, ‘기타’, ‘농·어·임·광업’ 순서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정보처리업’ 비율은 높고 ‘기타’, ‘농·어·임·광업’의 비율은 낮아 차이를 보였다(<표 IV-6> 참조).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 분포는 신기술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46.2%, 남성 벤처기업 50.7%로 가장 많았다. 다시 신기술기업의 유형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특허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중앙행정기관출연연구개발기업 순서로 많았는데 특허기술은 여성 벤처기업이 23.6%로 남성 벤처기업의 29.5%보다 낮았고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벤처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로 남성 벤처기업의 3.7%에 비해 높았다. 이어 여성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 벤처기업이 31.3%, 21.7%, 0.9%로 많았고 남

성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기업, 벤처투자기업, 예비 벤처기업이 24.2%, 22.4%, 2.8%로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연구개발기업과 예비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 벤처기업 업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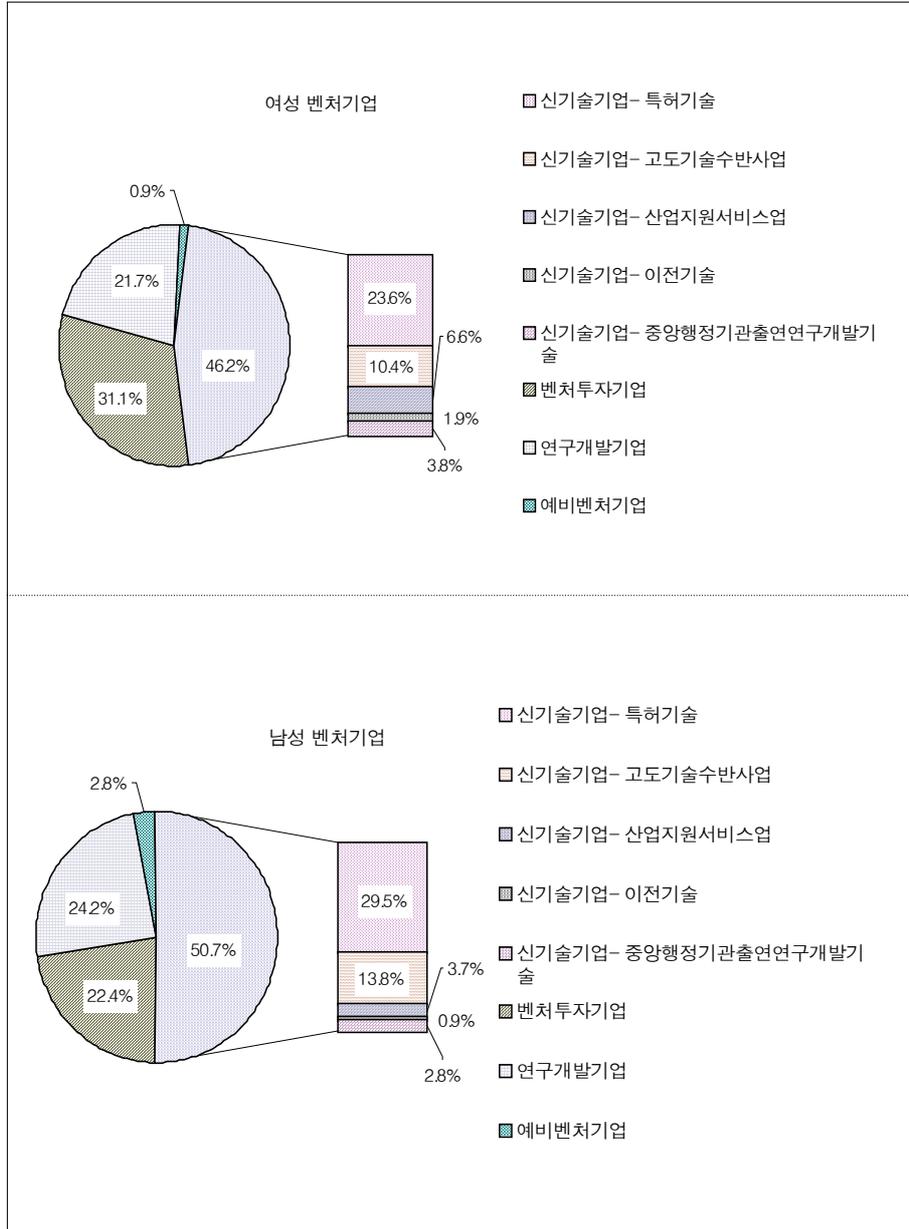
여성 벤처기업의 벤처 확인 유형에서 연구개발기업과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은 벤처기업의 고유한 기술력이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부족한 결과일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 중 예비 벤처기업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은 여성 벤처기업들이 창업 구상이나 초기 단계에 벤처확인을 받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원인이 여성 벤처기업 자체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특별히 여성 벤처기업들에게 창업 초기 단계에 벤처확인을 받는데 장애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전자라면 여성 벤처기업들로 하여금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후자라면 벤처확인 과정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IV-3> 참조).

<표 IV-6> 벤처확인기업의 산업별 분포

(단위 : 개사, %)

구 분		여성		남성		전체	
농·어·임·광업	농업 및 임업, 어업	1	0.9	8	1.8	9	1.7
	소계	1	0.9	8	1.8	9	1.7
제조업	음식료품,담배,목재,섬유제조업및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업	12	11.2	15	3.5	27	5.0
	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	3	2.8	36	8.3	39	7.2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11	10.3	35	8.1	46	8.5
	기계제조업	9	8.4	63	14.5	72	13.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2	1.9	7	1.6	9	1.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7	6.5	23	5.3	30	5.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6	5.6	35	8.1	41	7.6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2	1.9	23	5.3	25	4.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3.7	23	5.3	27	5.0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2.8	14	3.2	17	3.1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1	0.9	2	0.5	3	0.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및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	2.8	6	1.4	9	1.7
	미생물제조업	0	0.0	1	0.2	1	0.2
	항공기부품제조업	1	0.9	0	0.0	1	0.2
	산업용로봇	0	0.0	1	0.2	1	0.2
귀금속 서비스제조업	1	0.9	0	0.0	1	0.2	
	소계	65	60.7	284	65.4	349	64.5
건설·운수업	건설업	5	4.7	10	2.3	15	2.8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여행사업제외)	0	0.0	1	0.2	1	0.2
	소계	5	4.7	11	2.5	16	3.0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0	0.0	5	1.2	5	0.9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2	20.6	69	15.9	91	16.8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0	0.0	2	0.5	2	0.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3	2.8	8	1.8	11	2.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0	0.0	5	1.2	5	0.9
	소계	25	23.4	89	20.5	114	21.1
연구개발	연구개발업 및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8	7.5	28	6.5	36	6.7
	소계	8	7.5	28	6.5	36	6.7
도소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1.9	7	1.6	9	1.7
	소계	2	1.9	7	1.6	9	1.7
기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	0.0	3	0.7	3	0.6
	교육·보건 및 기타 공공서비스업	1	0.9	0	0.0	1	0.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	0.0	3	0.7	3	0.6
	폐수처리업	0	0.0	1	0.2	1	0.2
	소계	1	0.9	7	1.6	8	1.5
전체		107	100.0	434	100.0	541	100.0

<그림 IV-3> 벤처기업 확인 유형



<표 IV-7> 여성 벤처기업인의 전공계열별 벤처확인 유형

(단위 : 명,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예비 벤처기업	전체
인문사회계열	6 21.4	7 25.0	15 53.6	0 0.0	28 100.0
사범계열	3 60.0	0 0.0	2 40.0	0 0.0	5 100.0
상공농수산계열	2 50.0	0 0.0	2 50.0	0 0.0	4 100.0
자연공학계열	10 38.5	10 38.5	6 23.1	0 0.0	26 100.0
예체능계열	5 50.0	2 20.0	3 30.0	0 0.0	10 100.0
의약계열	1 25	1 25.0	2 50.0	0 0.0	4 100.0
전체	27 35.1	20 26.0	30 39.0	0 0.0	77 100.0

<표 IV-8> 남성 벤처기업인의 전공계열별 벤처확인 유형

(단위 : 명,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예비 벤처기업	전체
인문사회계열	16 26.7	10 16.7	33 55.0	1 1.7	60 100.0
사범계열	1 33.3	0 0.0	2 66.7	0 0.0	3 100.0
상공농수산계열	9 10.0	25 27.8	51 56.7	5 5.6	90 100.0
자연공학계열	59 28.0	60 28.4	88 41.7	4 1.9	211 100.0
예체능계열	1 50.0	0 0.0	1 50.0	0 0.0	2 100.0
의약계열	2 40.0	1 20.0	2 40.0	0 0.0	5 100.0
전체	88 23.7	96 25.9	177 47.7	10 2.7	371 100.0

대표자 전공계열별 벤처기업 확인 유형 분포를 보면,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공으로 가장 많은 계열인 '인문사회계열'은 '신기술산업'이 '자연공학

계열'은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이 가장 많아 '인문사회계열'과 비교가 되었다. 남성 벤처기업의 경우 가장 많은 대표자 전공인 '자연공학계열'도 다른 계열에 비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분포가 높아 대표자 전공 계열이 '자연공학계열'인 경우 '연구개발기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IV-7> 참조).

남녀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분포는 '초기 성장기'와 '고도 성장기'가 많았는데 여성 벤처기업은 44.9%, 35.5% 남성 벤처기업은 41.3%, 34.9%로 이는 남녀 벤처기업의 업력이 3.8년 길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기'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의 8.3%에 비해 2.8%에 불과한 것은 업력에서 '1년 미만' 벤처기업이 한 개사도 없는 것과 벤처확인유형에서 '예비 벤처기업'의 비율이 낮은 것과 밀접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여성 벤처기업은 벤처창업 준비과정이나 창업 초기 단계에 정부로부터 벤처확인을 받는 것에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이다(<표 IV-9> 참조).

<표 IV-9> 성장 단계별* 분포

(단위 : 개사, %)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정체기/ 재도약단계	전체
여성	3	48	38	9	9	107
	2.8	44.9	35.5	8.4	8.4	100.0
남성	36	180	152	26	41	435
	8.3	41.3	34.9	6.0	9.4	100.0
전체	39	228	190	35	50	542
	7.2	42.1	35.0	6.5	9.2	100.0

- * 주 · 창업기 :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 초기 성장기 : 자사 최초의 대표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 고도 성장기 : 후속 신규 제품/서비스도 출하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제품/ 시장이 다각화된 단계
- 성숙기 : 일반 중견기업으로 안정화되고 주식시장에도 상장된 단계
- 정체기/재도약단계 : 뚜렷한 매출 성과의 향상이 없이 기업 활동이 다소 정체된 재도약 준비 상태

다. 경영 일반 현황

조사 대상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는 여성 벤처기업과 남성 벤처기업 모두 '20~49'인이 각각 29.1%, 30.4%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여성 벤처기업은 85.4%, 남성 벤처기업은 85.0%가 고용규모 50인 미만 이었다.¹⁵⁾ 평균 고용인원은 여성 벤처기업이 35.2명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31.0명보다 4.2명 많았다 (<표 IV-10> 참조).

<표 IV-10> 고용 규모별 분포

(단위 : 개사,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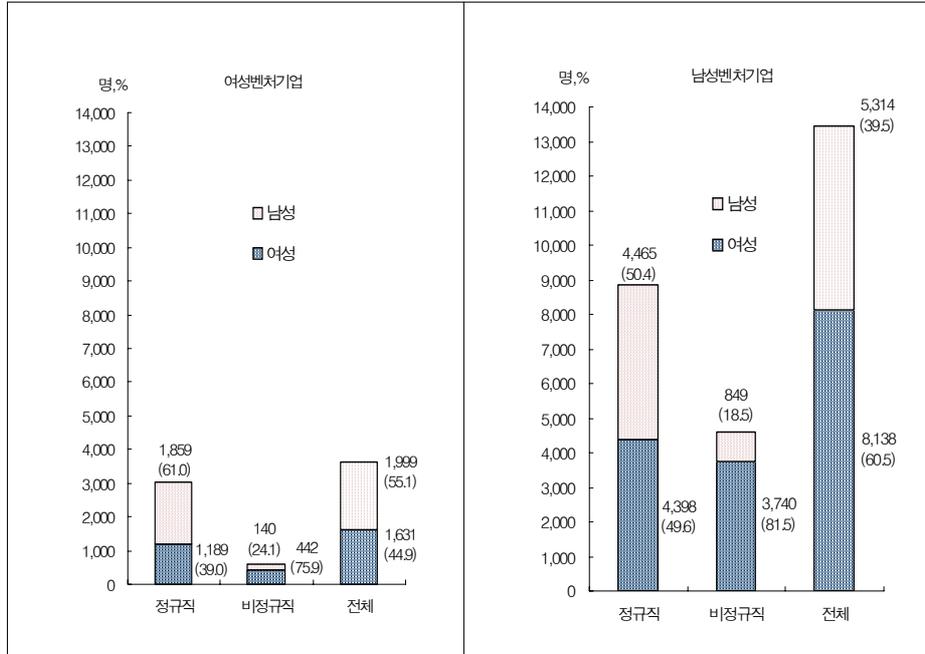
	5인미만	5~9인	10~19	20~49	50~99	100~299	300인이상	전체	평균
여성	6	25	27	30	6	8	1	103	35.2
	5.8	24.3	26.2	29.1	5.8	7.8	1.0	100.0	
남성	24	92	121	132	45	19	1	434	31.0
	5.5	21.2	27.9	30.4	10.4	4.4	0.2	100.0	
전체	30	117	148	162	51	27	2	537	31.8
	5.6	21.8	27.6	30.2	9.5	5.0	0.4	100.0	

성별 고용현황을 보면 여성 벤처기업은 여성 인력 44.9%, 남성 인력 55.1%로 남성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었고 남성 벤처기업은 여성 인력이 60.5%, 남성 인력이 39.5%로 여성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었다.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은 정규직 인력이 84.0%, 비정규직 인력이 16.0%이고 남성 벤처기업은 정규직 인력이 65.9%, 비정규직 인력이 34.1%로 여성 벤처기업의 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인력의 성별 구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 75.9%, 남성 벤처기업 81.5%로 벤처기업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비정규직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51.8%보다 높은 것이다.¹⁶⁾ 남성 벤처기업은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여성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V-4> 참조).

15) 고용규모 분포는 『2004 벤처정밀실태조사』 결과와도 다르지 않다(본문 <그림 III-6> 참조).

16) 통계청, 『200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IV-4> 남녀 벤처기업의 성별 고용현황



전체 벤처기업의 직종별 인력구성을 보면 '생산'인력이 33.9%로 가장 많고, 이어 '관리(19.8%)', '영업·마케팅(16.2%)', '연구개발(14.7%)' 순으로 많은데 성별로 나누어 직종별 인력구성을 보면 결과는 다르다. 즉, 여성인력은 '생산(29.4%)', '관리(23.2%)', '기타(23.2%)' 등의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연구개발'은 8.6%에 불과한데 비해 남성 인력은 '생산(39.9%)', '연구개발(22.8%)', '영업·마케팅(16.9%)'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핵심인력으로 볼 수 있는 '연구개발'직에 여성 인력은 남성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종사하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여성	1,886,589명 (29.2%)	4,209,205 (51.8)	6,095,794 (41.8)
남성	4,569,028명 (70.8%)	3,919,541 (48.2)	8,488,569 (58.2)
전체	6,455,617명 (100.0%) (44.3%)	8,128,746 (100.0) (55.7)	14,584,363 (100.0) (100.0)

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여성 인력 중 '연구개발직' 비율은 17.4%로 남성 벤처기업의 여성 인력에서 '연구개발직'이 차지하는 비율 6.9%보다 2.5배 가까이 높아 여성 벤처기업에서 여성 인력의 연구개발직 고용이 더 많았다.

성별 벤처기업의 직종별 인력구성을 보면, 여성 벤처기업은 '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7%로 '생산직' 비율이 높았지만 '연구개발직' 또한 19.5%로 남성 벤처기업의 직종별 인력구성에서 '연구개발직'이 차지하는 비율 13.4%보다 6.1%p 높았다(<표 IV-11> 참조).

<표 IV-11> 직종별 인력 분포

(단위 : 명, %)

전체 벤처기업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관리	생산	기타	전체
여성인력	841 8.6	1,529 15.7	2,264 23.2	2,868 29.4	2,267 23.2	9,769 100.0
남성인력	1,670 22.8	1,235 16.9	1,118 15.3	2,918 39.9	372 5.1	7,313 100.0
전체	2,511 14.7	2,764 16.2	3,382 19.8	5,786 33.9	2,639 15.4	17,082 100.0
여성 벤처기업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관리	생산	기타	전체
여성인력	283 17.4	241 14.8	298 18.3	477 29.2	332 20.4	1,631 100.0
남성인력	426 21.3	230 11.5	243 12.2	999 50.0	101 5.1	1,999 100.0
전체	709 19.5	471 13.0	541 14.9	1,476 40.7	433 11.9	3,630 100.0
남성 벤처기업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관리	생산	기타	전체
여성인력	558 6.9	1,288 15.8	1,966 24.2	2,391 29.4	1,935 23.8	8,138 100.0
남성인력	1,244 23.4	1,005 18.9	875 16.5	1,919 36.1	271 5.1	5,314 100.0
전체	1,802 13.4	2,293 17.0	2,841 21.1	4,310 32.0	2,206 16.4	13,452 100.0

앞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여성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직' 고용 비중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높고 여성 인력의 '연구개발직' 고용 비중 또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종별 평균 고용 인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직' 평균 고용 인원은 6.9명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4.2명에 비해 2.7명 많다. 이는 전체 평균 고용인원이 여성 벤처기업이 35.2명, 남성 벤처기업이 31.0명으로 여성 벤처기업이 가용 인력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직종별 인력 구성에서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여성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직'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표 IV-11>과 <표 IV-12> 참조).

<표 IV-12> 인력별 평균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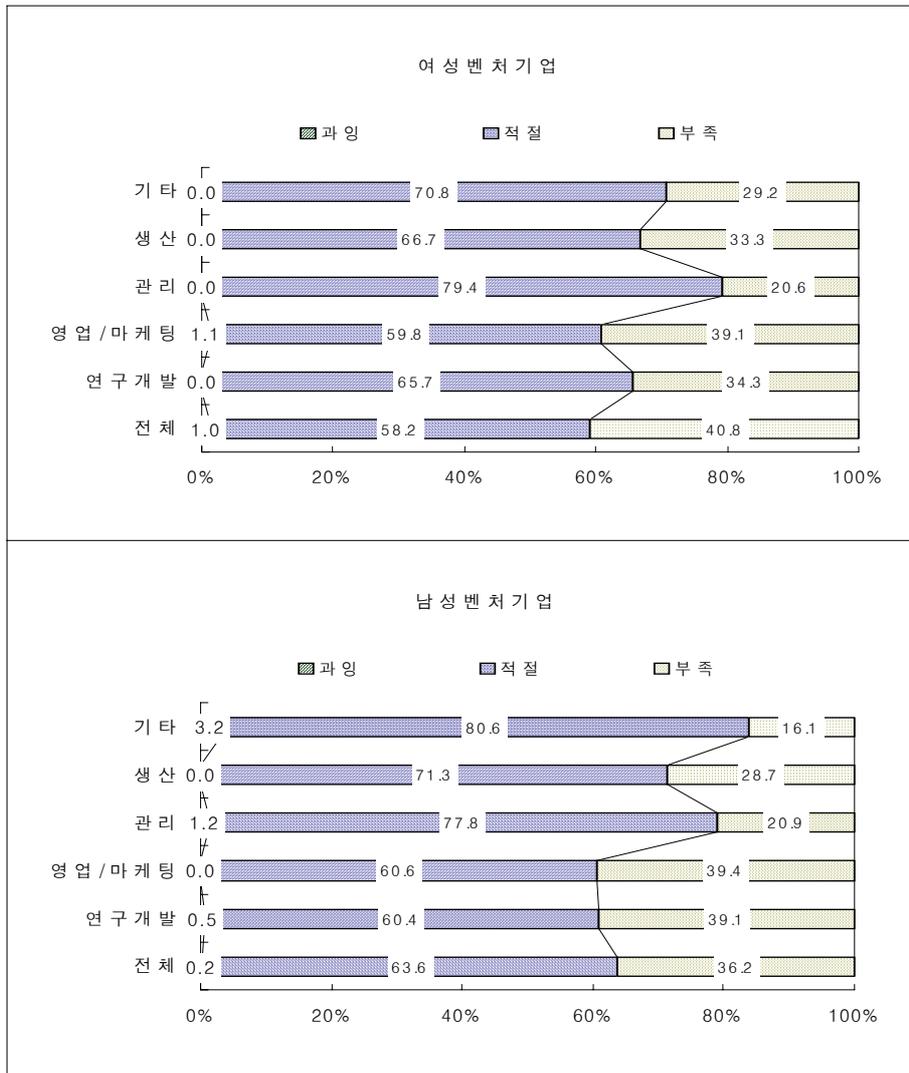
(단위 : 명)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관리	생산	기타
여성 벤처	6.9	4.6	5.3	14.3	4.2
남성 벤처	4.2	5.3	6.6	10.0	5.0
전체	4.7	5.2	6.3	10.8	4.9

직종별 인력 수급 상황에 대해서 '과잉', '적절', '부적절'로 조사한 결과 여성 벤처기업은 전체 인력에 대해 58.2%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0.8%, '과잉'은 1.0%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인력 규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벤처기업에서 '부족'의 비율이 높은 직종 순서를 나열하면 '영업·마케팅(39.1%)', '연구개발(34.3%)', '생산(33.3%)'로 나타났다.

남성 벤처기업의 직종별 인력 수급 상황은 전체 인력에 대해 63.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6.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여성 벤처기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성 벤처기업 보다 '적절'의 비율은 5.4%p 높고 반대로 '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4.6%p 낮아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인력 수급 상태에 대해 만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남성 벤처기업에서 '부족'의 비율이 높다고 응답한 직종은 '영업·마케팅(39.4%)', '연구개발(39.1%)', '생산(28.7%)'로 여성 벤처기업과 유사하였다(<그림 IV-5> 참조).

<그림 IV-5> 직종별 인력 수급 상태



연구개발 인력과 영업·마케팅 인력에 대해 각각 '부족'이라고 말한 벤처기업에게 부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원인에 대해선 남녀 벤처기업 모두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기 어려움'(여성 벤처기업, 32.9%; 남성 벤처기업, 27.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배출인

력은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고 분야가 잘 맞지 않음'(여성 벤처기업, 28.2%; 남성 벤처기업, 27.2%), '원하는 전공자의 배출인력이 절대부족'(여성 벤처기업, 18.8%; 남성 벤처기업, 17.8%),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 모집의 어려움'(여성 벤처기업, 8.2%; 남성 벤처기업, 10.7%), '채용 후 대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여성 벤처기업, 8.2%; 남성 벤처기업, 9.0%), '채용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음'(여성 벤처기업, 3.5%; 남성 벤처기업, 7.0%), '아직 적정 매출이 확보가 안 되서'(여성 벤처기업, 0.0%; 남성 벤처기업, 0.7%) 순서로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기 어려움'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채용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음'과 '아직 적정 매출이 확보가 안 되서'의 이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13> 참조).

<표 IV-13> 연구개발 인력 부족 원인

(단위 : 명, %)

	여성 벤처기업		남성 벤처기업		전체	
	명	%	명	%	명	%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기 어려움	28	32.9	112	27.9	140	28.8
배출인력은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고 분야가 잘 맞지 않음	24	28.2	108	26.9	132	27.2
원하는 전공자의 배출인력이 절대 부족	16	18.8	71	17.7	87	17.9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 모집의 어려움	7	8.2	43	10.7	50	10.3
채용 후 대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	7	8.2	36	9.0	43	8.8
채용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음	3	3.5	28	7.0	31	6.4
아직 적정 매출이 확보가 안 되서	0	0.0	3	0.7	3	0.6
전체	85	100.0	401	100.0	486	100.0

주 : 택 3 중복응답

'영업·마케팅'인력의 부족원인에 대해선 남녀 벤처기업 첫 번째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기 어려움'(여성 벤처기업, 34.6%; 남성 벤처기업, 31.4%)과 두 번째로 '배출인력은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고 분야가 잘 맞지 않음'(여성 벤처기업, 16.7%; 남성 벤처기업, 19.9%)을 지적한 것은 동일하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 모집의 어려움(15.4%)’과 ‘채용 후 대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15.4%)과 ‘원하는 전공자의 배출인력이 절대부족(10.3%)’,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의 경우 ‘원하는 전공자의 배출인력이 절대부족(16.7%)’이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 모집의 어려움(11.2%)’과 ‘채용 후 대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9.8%)’ 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영업·마케팅인력의 채용 후 고용유지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남성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의 부족원인으로 답한 결과와 같이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영업·마케팅 인력 부족원인에서도 ‘채용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음(9.3%)’과 ‘아직 적정 매출이 확보가 안 되서(1.6%)’의 이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14> 참조).

<표 IV-14> 영업·마케팅 인력 부족 원인

(단위 : 명, %)

	여성 벤처기업		남성 벤처기업		전체	
	명	%	명	%	명	%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기 어려움	27	34.6	115	31.4	142	32.0
배출인력은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고 분야가 잘 맞지 않음	13	16.7	73	19.9	86	19.4
원하는 전공자의 배출인력이 절대부족	8	10.3	61	16.7	69	15.5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 모집의 어려움	12	15.4	41	11.2	53	11.9
채용 후 대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	12	15.4	36	9.8	48	10.8
채용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음	6	7.7	34	9.3	40	9.0
아직 적정 매출이 확보가 안 되서	0	0.0	6	1.6	6	1.4
전체	78	100.0	366	100.0	444	100.0

주 : 택 3 중복응답.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인력의 충원방법은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헤드헌터, 인터넷 구인업체 등 인력채용 전문업체를 통해(17.3%)’가 남성 벤처기업(17.6%)과 동일하게 가장 많았지만, ‘학교(대학, 전문대학)에 직접 요청(여성 벤처기업, 13.2%; 남성 벤처기업, 12.8%)’,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소개를 통해(여성 벤처기업, 12.0%; 남성 벤처기업, 8.0%)’, ‘신문, 라디오, TV 등 매체

이용(여성 벤처기업, 6.0%; 남성 벤처기업, 3.6%), '거래처를 통해(여성 벤처기업, 4.5%; 남성 벤처기업, 2.0%)' '노동부(여성 벤처기업, 0.4%; 남성 벤처기업, 0.0%)' 등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응답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지인의 추천(16.0%)', '내부직원의 추천(12.8%)', '공공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2.4%)', '취업박람회(0.3%)', '특례보충(병역특례)(0.1%)'가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지인의 추천'이나 '내부직원의 추천' 비율이 높아 연구개발인력을 충원에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5> 참조).

<표 IV-15> 연구개발인력 충원 방법

(단위 : 명, %)

	여성 벤처기업		남성 벤처기업		전체	
헤드헌터, 인터넷 구인업체 등 인력채용 전문업체를 통해	46	17.3	198	17.6	244	17.6
지인의 추천	33	12.4	180	16.0	213	15.3
학교(대학, 전문대학)에 직접 요청	35	13.2	144	12.8	179	12.9
내부직원의 추천	28	10.5	144	12.8	172	12.4
관련 업계 전문지에 구인광고 게재	30	11.3	106	9.4	136	9.8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해	32	12.0	90	8.0	122	8.8
자발적으로 구직의뢰	19	7.1	79	7.0	98	7.1
인턴사원채용	8	3.0	49	4.4	57	4.1
신문, 라디오, TV 등 매체 이용	16	6.0	40	3.6	56	4.0
타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2	0.8	39	3.5	41	2.9
거래처를 통해	12	4.5	23	2.0	35	2.5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4	1.5	27	2.4	31	2.2
취업박람회	0	0.0	3	0.3	3	0.2
특례보충(병역특례)	0	0.0	1	0.1	1	0.1
노동부	1	0.4	0	0.0	1	0.1
산학연사업으로 인력개발 후 채용	0	0.0	1	0.1	1	0.1
전체	266	100.0	1,124	100.0	1,390	100.0

주 : 복수응답.

<표 IV-16> 인력 관리

(단위 : 점수, %)

항목	여성 벤처기업	남성 벤처기업	전체
직원 각자의 직무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3.7	3.7	3.7
인력이 필요한 경우 외부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 한다	3.0	3.2	3.2
빈 자리가 생기면 가능하면 내부승진을 우선적으로 한다	3.2	3.2	3.2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경력개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다	3.4	3.5	3.5
승진은 철저히 업적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3.5	3.6	3.5
같은 입사동기라도 해도 업적과 능력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3.3	3.3	3.3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성과에 대해 자주 피드백을 받는다	3.3	3.3	3.3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는 직원 각자가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묻는다	3.2	3.2	3.2
부하직원과 상사간에 목표나 성과에 대한 논의를 자주 하도록 하고 있다	3.6	3.5	3.5
대부분의 중요한 계획은 경영진에서 수립하고 직원들은 이를 잘 수행하면 된다	3.4	3.4	3.4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가 우리 회사 경쟁력의 원천이다	3.3	3.4	3.4
우리 회사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실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고 있다	3.6	3.5	3.5
대부분의 직원들이 최소한 몇 년에 한번은 훈련 (off-the-job-training)을 받도록 하고 있다	3.0	3.0	3.0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인력을 빼내기 쉽지 않다	3.3	3.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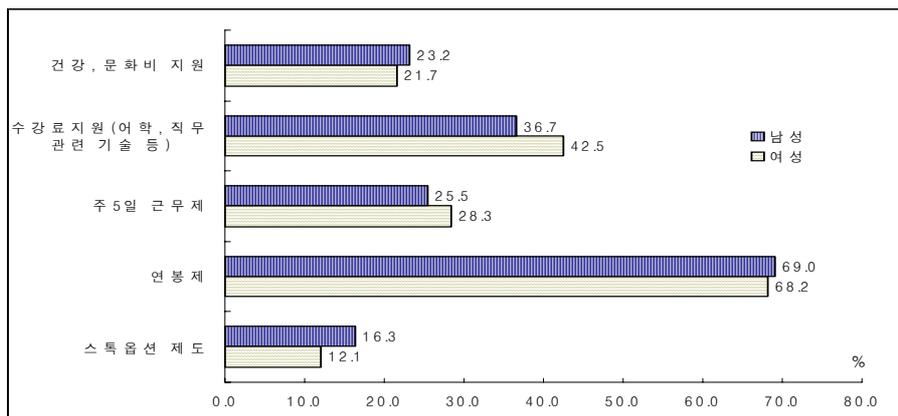
주: 5점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각각 1~5점임.

벤처기업의 인력관리에 대해 각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단계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다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평균을 구하였다. 남녀 벤처기업 모두 전반적으로 3점대의 '보통수준'이 가장 많은 가운데 '직원 각자의 직무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3.7점)', '빈 자리가 생기면 가능하면 내부승진을 우선적으로 한다(3.2점)', '같은 입사동기라도 해도 업적과 능력을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3.3점)',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성과에 대해 자주 피드백을 받는다(3.3점)',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는 직원 각자가 주관적인 판단 하에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묻는다(3.2점)', '대

부분의 중요한 계획은 경영진에서 수립하고 직원들은 이를 잘 수행하면 된다 (3.4점), '대부분의 직원들이 최소한 몇 년에 한번은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3.0점)'에서 남녀 벤처기업의 점수가 동일하였으며 나머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외부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 한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경력개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다', '승진은 철저히 업적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인력을 빼내기 쉽지 않다'는 여성 벤처기업의 점수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낮았다. '부하직원과 상사간에 목표나 성과에 대한 논의를 자주 하도록 하고 있다'와 '우리 회사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실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에서만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벤처기업이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 내 의사소통이 활발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표 IV-16> 참조).

남녀 벤처기업에 대해 복리후생과 관련된 제도의 시행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연봉제'가 여성 벤처기업 68.2%, 남성 벤처기업 69.0%로 가장 높았다. 5개의 조사항목 중 3개 항목은 여성 벤처기업이 2개 항목은 남성 벤처기업의 시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각각을 살펴보면 남성 벤처기업은 '연봉제(69.0%)', '건강, 문화비 지원(23.2%)', '스톡옵션제도(16.3%)'가 여성 벤처기업 보다 시행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수강료지원(어학, 직무 관련 기술 등)(42.5%)', '주5일 근무제(28.3%)'는 여성 벤처기업의 시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V-6> 참조).

<그림 IV-6> 주요 복리후생 제도 시행



<표 IV-18> 제도 도입 여부

(단위 : 개사, %)

		1~2년 이내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입할 의사가 없다	전체
스톡 옵션	여성 벤처기업	11 12.5	32 36.4	45 51.1	88 100.0
	남성 벤처기업	38 10.6	176 49.0	145 40.4	359 100.0
	전체	49 11.0	208 46.5	190 42.5	447 100.0
연봉제	여성 벤처기업	3 9.4	12 37.5	17 53.1	32 100.0
	남성 벤처기업	16 11.9	86 64.2	32 23.9	134 100.0
	전체	19 11.4	98 59.0	49 29.5	166 100.0
주5일 근무제	여성 벤처기업	9 12.7	37 52.1	25 35.2	71 100.0
	남성 벤처기업	78 24.2	162 50.3	82 25.5	322 100.0
	전체	87 22.1	199 50.6	107 27.2	393 100.0
수강료 지원	여성 벤처기업	5 8.6	25 43.1	28 48.3	58 100.0
	남성 벤처기업	25 9.2	159 58.5	88 32.4	272 100.0
	전체	30 9.1	184 55.8	116 35.2	330 100.0
건강, 문화비 지원	여성 벤처기업	13 16.7	31 39.7	34 43.6	78 100.0
	남성 벤처기업	39 11.9	172 52.4	117 35.7	328 100.0
	전체	52 12.8	203 50.0	151 37.2	408 100.0

‘스톡옵션’, ‘연봉제’, ‘주5일근무제’, ‘수강료지원’, ‘건강, 문화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업에게 제도 실시 여부를 알아보았다. ‘스톡옵션’은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도입할 의사가 없다’가 51.1%로 높았고 ‘연봉제’는 ‘도입할 의사가 없다’가 여성 벤처기업이 53.1%로 남성 벤처기업의 23.9%에 비해 2배 넘게 높았다. ‘주5일 근무제’에서도 ‘도입할 의사가 없다’ 비율이 여성 벤처기업이 35.2%로 남성 벤처기업의 25.5% 보다 높았고 ‘수강료 지원’, ‘건강, 문화비 지원’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제도 도입 계획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낮은 가운데 ‘주5일 근무제’는 유일하게 ‘1~2년 이내로 실시할 예정이다’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60%이상이 되었다. 이는 ‘주5일 근무제’가 법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전사업장으로 확대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IV-18> 참조).

산전후휴가제도 실시 현황에 대해 남녀 벤처기업 모두 ‘지난 1년간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없다’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법적으로 90일로 명시된 산전후휴가의 실시 일수는 ‘90일이상’이 여성 벤처기업 7.5%, 남성 벤처기업 7.3%였고 ‘90일미만’에 답한 기업의 비율도 여성 벤처기업 3.7%, 남성 벤처기업 4.6%로 나타났다(<표 IV-19> 참조).

<표 IV-19> 산전후휴가 제도

(단위 : 개사, %)

	지난 1년간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없다	90일 미만	90일 이상	전체
여성 벤처기업	95 88.8	4 3.7	8 7.5	107 100.0
남성 벤처기업	384 88.1	20 4.6	32 7.3	436 100.0
전체	479 88.2	24 4.4	40 7.4	543 100.0

산전후휴가일수가 90일미만이라고 응답한 남녀 벤처기업 24개사에 대해 90일미만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남녀 벤처기업 모두 ‘대

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여성 벤처기업 2개사, 남성 벤처기업 12개사로 많았고 이어 '본인이 근무복귀를 원해서'가 여성 벤처기업 2개사, 남성 벤처기업 4개사로 나타났다(<표 IV-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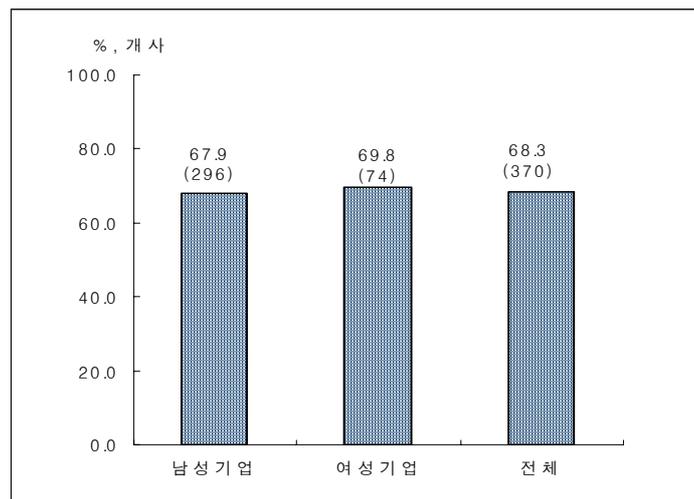
<표 IV-20> 산전후휴가일수 90일 미만인 이유

(단위 : 개사)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휴가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근무복귀를 원해서	모름/무응답	전체
여성 벤처기업	2	0	2	0	4
남성 벤처기업	12	1	2	5	20
전체	14	1	4	5	24

벤처기업의 외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가운데 외주(outsourcing)를 주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벤처기업의 68.3%가 외주(outsourcing)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여성 벤처기업이 69.8%로 남성 벤처기업의 67.9% 보다 약간 높았다(<그림 IV-7> 참조).

<그림 IV-7> 외주(outsourcing) 실시 기업



외주(outsourcing) 실시 분야는 벤처기업 전체가 ‘생산일부(40.8%)’, ‘회계(24.4%)’, ‘연구개발(R&D) 부문(11.5%)’에 외주비율이 집중되었으며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인사관리(급여관리)’, ‘판매’는 외주비율이 낮았으며 ‘마케팅’, ‘구매’, ‘시공’, ‘디자인’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외주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성 벤처기업은 ‘도급’, ‘S/W개발’, ‘유지보수’, ‘경영컨설팅’, ‘교육’, ‘오수처리공사’에는 한 개사도 외주를 주지 않았다(<표 IV-21> 참조).

<표 IV-21> 외주 부문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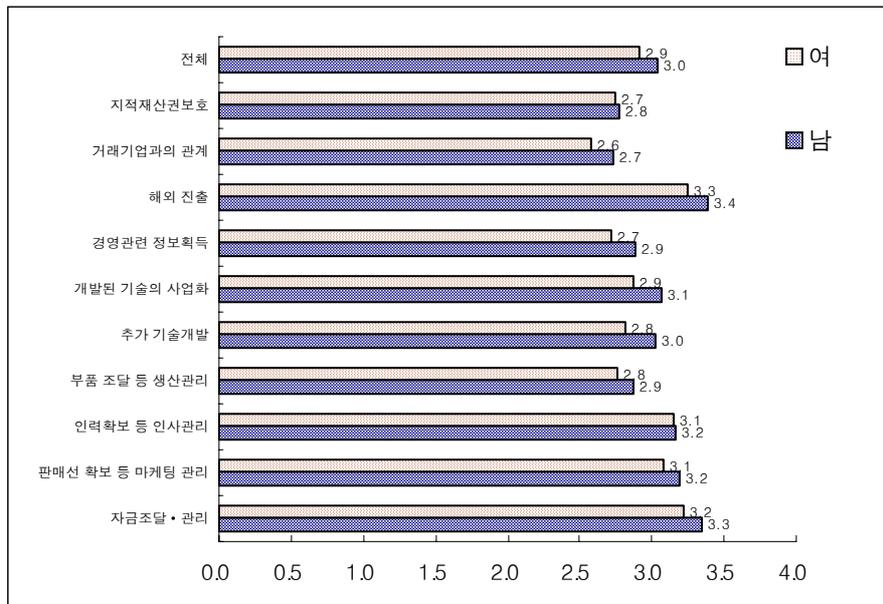
	여성 벤처기업		남성 벤처기업		전체	
생산일부	51	47.2	186	39.3	237	40.8
회계	23	21.3	119	25.2	142	24.4
연구개발(R&D)부문	13	12.0	54	11.4	67	11.5
인사관리(급여관리)	4	3.7	34	7.2	38	6.5
판매	5	4.6	28	5.9	33	5.7
마케팅	7	6.5	24	5.1	31	5.3
구매	3	2.8	10	2.1	13	2.2
시공	1	0.9	3	0.6	4	0.7
도급	0	0.0	3	0.6	3	0.5
S/W 개발	0	0.0	2	0.4	2	0.3
디자인	1	0.9	2	0.4	3	0.5
유지보수	0	0.0	2	0.4	2	0.3
경영컨설팅	0	0.0	2	0.4	2	0.3
교육	0	0.0	2	0.4	2	0.3
오수처리공사	0	0.0	2	0.4	2	0.3
	108	100.0	473	100.0	581	100.0

주: 복수응답.

벤처기업이 경영상 어렵게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금조달·관리’,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 ‘부품 조달 등 생산관리’, ‘추가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경영관련 정보획득’, ‘해외진출’, ‘거래기업과의 관계’, ‘지적재산권보호’ 등 10개 항목에 걸쳐 어려운 정도를 1~5점까지 부여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10개 항목 평균은 남

성이 3.0점, 여성이 2.9점으로 어려움의 정도는 '보통수준'이었고 성별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근소하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해외진출'에 대해서 여성 3.3점, 남성 3.4점으로 가장 많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조달·관리',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 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남녀 벤처기업이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거래기업과의 관계'는 여성 2.6점, 남성 2.7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남녀 벤처기업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8> 참조).

<그림 IV-8> 경영상의 애로점



주 : 경영상 애로점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를 1~5까지 5점 척도로 표시.

라. 기술개발

벤처기업의 업종과는 별도로 기업의 주력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핵심 기술

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은 'IT(37.4%)', 'ET(13.1%)', 'BT(11.2%)', 'CT(6.5%)', 'NT(4.7%)', 'ST(2.8%)' 순서로 많았고 남성 벤처기업은 'IT(40.6%)', 'ET(14.4%)', 'BT(11.2%)', 'NT(6.0%)', 'CT(2.5%)', 'ST(0.5%)'로 많았다. CT 기술의 경우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4%p 높아 특징적이었고 6T 핵심기술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에 응답한 기업의 비율도 여성 벤처기업 22.4%, 남성 벤처기업 25.9%나 되었다(<표 IV-22> 참조).

<표 IV-22> 주력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핵심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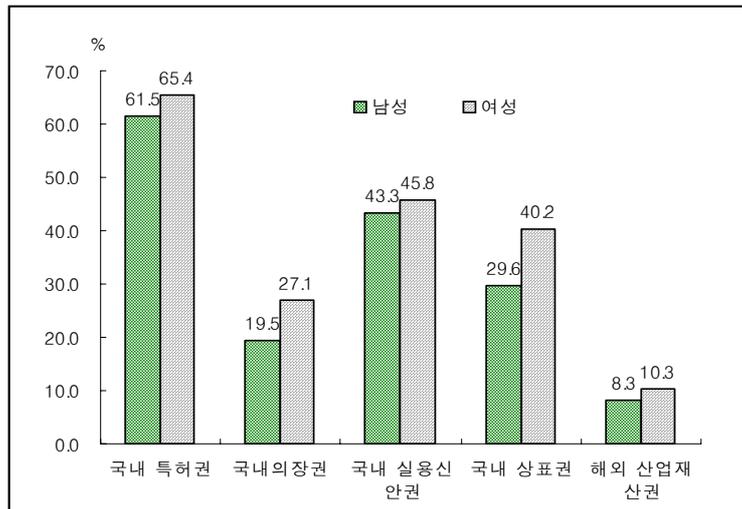
(단위 : 개사, %)

	IT (정보 기술)	ET (환경 기술)	BT (생명 공학)	NT (나노 기술)	CT (문화·컨 텐츠기술)	ST (항공 우주기술)	해당사항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여성	40 37.4	14 13.1	12 11.2	5 4.7	7 6.5	3 2.8	24 22.4	2 1.9	107 100.0
남성	177 40.6	63 14.4	42 9.6	26 6.0	11 2.5	2 0.5	113 25.9	2 0.5	436 100.0
전체	217 40.0	77 14.2	54 9.9	31 5.7	18 3.3	5 0.9	137 25.2	4 0.7	543 100.0

주 : 응답기업 중 IT에 응답한 기업 중 남성기업의 5개사가 BT, NT, CT에 2개사, 2개사, 1개사로 중복체크하고 BT에 응답한 기업 중 남성기업 1개사가 NT에 중복체크함. IT에 응답한 여성기업 중 1개사가 CT에 중복체크함. 총 7개사가 자사의 핵심기술을 중복체크함.

'국내특허권', '국내의장권', '국내실용신안권', '국내상표권', '해외 재산권' 등 5개 산업재산권의 보유에 대해 모두 여성 벤처기업의 보유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유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국내특허권'이 여성 65.4%, 남성 61.5%로 가장 많았고 '국내 실용신안권'이 여성 벤처기업 45.8%, 남성 벤처기업 43.3%, '국내 상표권' 여성 벤처기업 40.2%, 남성 벤처기업 29.6%, '국내의장권' 여성 벤처기업 27.1%, 남성 벤처기업 19.5%, '해외재산권' 여성 벤처기업 10.3%, 남성 벤처기업 8.3%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IV-9> 참조).

<그림 IV-9>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



<표 IV-23>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건수와 보유 기업 수

(단위 : 건,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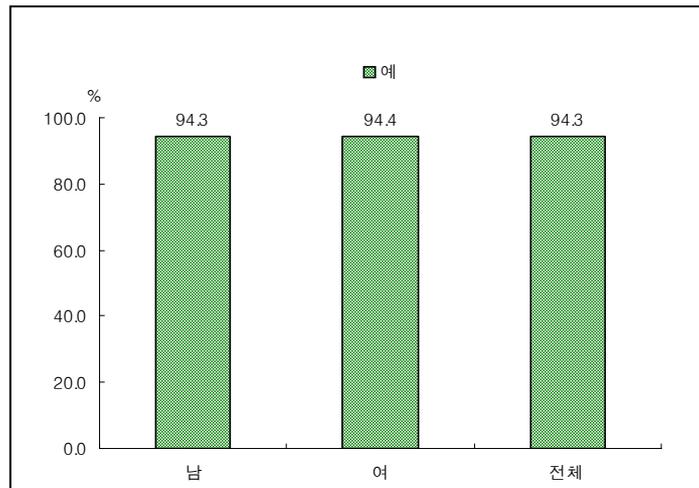
	국내 특허권	국내 의장권	국내 실용신안권	국내 상표권	해외 산업재산권
여성	3.7 64	8.7 26	5.3 44	3.1 39	2.9 10
남성	3.5 264	4.3 82	4.3 184	3.3 125	3.8 35
전체	3.5 328	5.3 108	4.5 228	3.3 164	3.6 45

산업재산권의 평균 보유 건수는 '국내의장권'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남녀기업별로는 여성 벤처기업 8.7건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4.3건에 비해 2배 넘게 많았다. '국내실용신안권'은 여성 벤처기업이 5.3건, 남성 벤처기업이 4.3건, '국내특허권'은 여성 벤처기업 3.7건, 남성 벤처기업 3.5건으로 이상은 여성 벤처기업의 보유건수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많았다.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비해 보유건수가 많은 산업재산권으로 '국내 상표권'이 남성 벤처기업 3.3건, 여성 벤처기업 3.1건이었고 '해외산업재산권'은 남성 벤처기업 3.8건,

여성 벤처기업 2.9건으로 나타났다(<표 IV-23> 참조).

벤처기업은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의 94.4%, 남성 벤처기업의 94.3%가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90%이상의 수행률을 보였다(<그림 IV-10> 참조).

<그림 IV-10> 연구개발(R&D) 활동 수행



연구개발 수행 주체에 대해서 여성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40.0%, ‘외부 기관에 위탁’이 5.7%, ‘산학연계산업체와 함께 개발’이 1.9%, ‘개발담당자 임무 수행’과 ‘연구개발인력 보유’가 각각 1.0%였고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조직이 없음’도 6.7%나 되었다. 반면, 남성 벤처기업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4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40.8%, ‘외부기관에 위탁’이 6.1%, ‘개발담당자 임무수행’ 0.7%, ‘연구개발인력 보유’가 0.4%였고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조직이 없음’은 3.9%로 여성 벤처기업의 6.7% 보다 낮았다. 조사 결과 남녀 벤처기업 모두 자체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통해 연구개발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IV-24> 참조).

<표 IV-24> 연구개발 수행 주체

(단위 : 개사, %)

	여성		남성		전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42	40.0	219	48.0	261	46.5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46	43.8	186	40.8	232	41.4
외부 기관에 위탁	6	5.7	28	6.1	34	6.1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조직이 없음	7	6.7	18	3.9	25	4.5
개발담당자 임무수행	1	1.0	3	0.7	4	0.7
산학연계산업체와 함께 개발	2	1.9	0	0.0	2	0.4
연구개발인력 보유	1	1.0	2	0.4	3	0.5
전체	105	100.0	456	100.0	561	100.0

주: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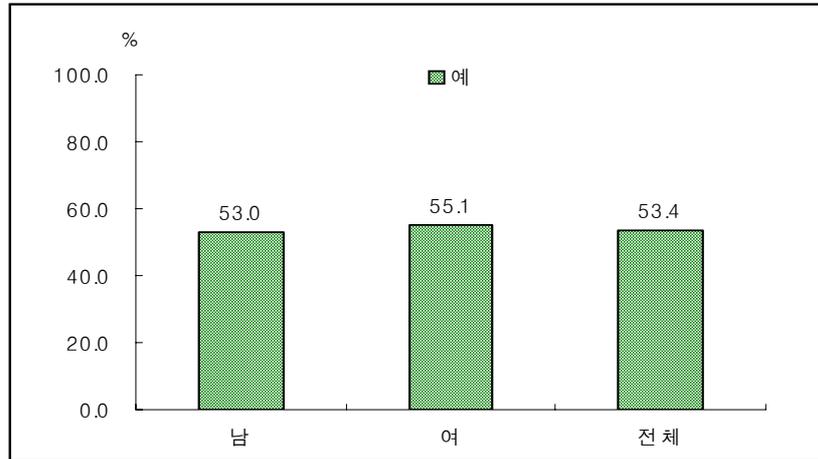
연구개발 수행 방법의 비중은 '자체개발'이 여성 벤처기업 76.4%, 남성 벤처기업 78.4%로 가장 높았고 '공동개발(산·학·연)' 여성 벤처기업 17.6%, 남성 벤처기업 14.6%, '기술도입' 여성 벤처기업 1.8%, 남성 벤처기업 3.1%로, '전략적 제휴'는 여성 벤처기업 4.1%, 남성 벤처기업 3.2%로 나타났다.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공동개발(산·학·연)', '전략적 제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자체개발'과 '기술도입'의 비율이 높았다. 단일 방법의 연구수행 중 '자체개발'과 '공동개발(산·학·연)'을 응답한 기업이 있었는데 각각 '자체개발'을 100%로 하는 기업은 총 215개사로 여성기업 36개사, 남성기업 179개사였고 '공동개발(산·학·연)'이 100%인 기업은 총 12개사로 여성기업 3개사, 남성기업 9개사였다(<표 IV-25> 참조).

<표 IV-25> 연구개발 방식별 수행의 평균 비중

(단위 : %)

	자체개발	공동개발 (산·학·연)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기타	전체
여성 벤처	76.4	17.6	1.8	4.1	0.02	100.0
남성 벤처	78.4	14.6	3.1	3.2	0.2	100.0
전체	78.0	15.2	2.8	3.4	0.2	100.0

<그림 IV-11>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전환추진 여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벤처기업의 53.4%가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 벤처기업이 55.1%로 여성 벤처기업의 53.0%에 비해 추진비율이 높았다 (<그림 IV-11> 참조).

<표 IV-26> 기술혁신(Inno-Biz) 추진 부문

(단위 : 개사, %)

	기술부문	사업화부문	경영부문	성과관리부문	기타
여성	53 89.8	6 10.2	0 0.0	0 0.0	59 100.0
남성	185 81.9	32 14.2	8 3.5	1 0.4	226 100.0
전체	238 83.5	38 13.3	8 2.8	1 0.4	285 100.0

기술혁신(Inno-Biz) 추진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추진 부문은 '기술부문'이 가장 많았는데 여성 벤처기업은 89.8%가 집중해 있었다. 여성 벤처기업은 기술부문(89.8%)과 사업화 부문(10.2%)에만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었고 남성

벤처기업은 '기술부문(81.9%)', '사업화부문(14.2%)', '경영부문(3.5%)', '성과관리 부문(0.4%)' 4개 부문 모두에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었다(<표 IV-26> 참조).

마. 자금

벤처기업의 자산분포는 '5억원'이하가 여성 벤처기업 22.2%, 남성 벤처기업 23.4%로 가장 많았다. '30억원미만'에 여성 벤처기업은 72.8%가 분포하였고 남성 벤처기업은 69.2%가 분포하고 있어 자산 규모 30억원미만에 벤처기업 과반이상이 분포하고 있었다. '50억원이상'의 자산을 가진 벤처기업도 여성 벤처기업이 14.1%, 남성 벤처기업은 22.0%나 되었다(<표 IV-27> 참조).

<표 IV-27> 자산 분포

(단위 : 개사, %)

	0~5억원 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전체
여성	22 22.2	18 18.2	17 17.2	15 15.2	8 8.1	5 5.1	14 14.1	99 100.0
남성	96 23.4	57 13.9	85 20.7	46 11.2	24 5.9	12 2.9	90 22.0	410 100.0
전체	118 23.2	75 14.7	102 20.0	61 12.0	32 6.3	17 3.3	104 20.4	509 100.0

부채분포 역시 남녀 벤처기업 모두 '5억원미만'이 가장 많아 여성 벤처기업의 46.9%, 남성 벤처기업의 38.9%가 해당하였고 다음으로는 여성 벤처기업은 '10억원이상~20억원미만'에 23.5%, 남성 벤처기업은 '5억원이상~10억원미만'에 22.0%가 분포하고 있었다. 부채가 '50억원이상' 되는 기업은 여성 벤처기업이 2.0%인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4.6%로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2배나 비율이 높았다(<표 IV-28> 참조).

<표 IV-28> 부채 분포

(단위 : 개사, %)

	0~5억원 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전체
여성	46 46.9	15 15.3	23 23.5	9 9.2	1 1.0	2 2.0	2 2.0	98 100.0
남성	161 38.9	91 22.0	80 19.3	28 6.8	13 3.1	22 5.3	19 4.6	414 100.0
전체	207 40.4	106 20.7	103 20.1	37 7.2	14 2.7	24 4.7	21 4.1	512 100.0

자본금 분포는 여성 벤처기업은 '10억원이상~20억원미만'이 가장 많아 여성 벤처기업의 18.2%, 남성 벤처기업의 25.5%가 분포하고 있었다. '5억원미만'에서는 남성 벤처기업이 16.1%로 여성 벤처기업의 13.1%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60억원이상'에서는 남성 벤처기업의 9.9%보다 여성 벤처기업이 13.1%로 3.2%p 비율이 높았다. 20억원을 기준으로 20억원이상에 여성 벤처기업이 51.5%가 분포한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45.1%가 분포하고 있어 여성 벤처기업의 자본금 규모 분포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상위 금액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표 IV-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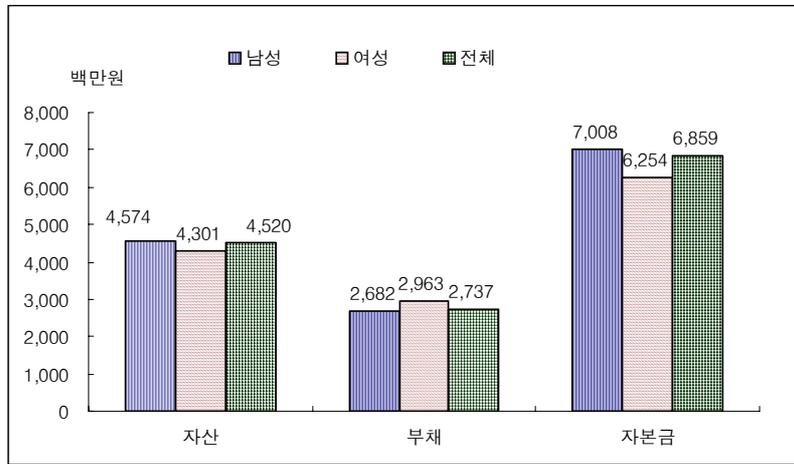
<표 IV-29> 자본금 분포

(단위 : 개사, %)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0억원미만	60억원 이상	전체
여성	13 13.1	17 17.2	18 18.2	16 16.2	11 11.1	7 7.1	4 4.0	13 13.1	99 100.0
남성	67 16.1	55 13.3	106 25.5	60 14.5	43 10.4	22 5.3	21 5.1	41 9.9	415 100.0
전체	80 15.6	72 14.0	124 24.1	76 14.8	54 10.5	29 5.6	25 4.9	54 10.5	514 100.0

벤처기업의 자산·부채·자본금의 평균액에서 자산 평균액은 남성 벤처기업은 45억7천4백만원, 여성 벤처기업은 43억1백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이 높았고 부채 평균액은 남성 벤처기업이 26억8천2백만원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29억6천3백만원 보다 적었다. 자산과 부채를 합한 자본금 평균액은 남성 벤처기업이 70억8백만원, 여성 벤처기업이 62억3천4백만원이었다(<그림 IV-12> 참조).

<그림 IV-12> 자산·부채·자본금 평균



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분포는 5% 미만이 여성 벤처기업이 30.8%, 남성 벤처기업이 34.1%로 가장 많았다. 여성 벤처기업 25.3%, 남성 벤처기업의 19.7%가 '10~20%미만'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의 50%이상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미만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매출액 대비 100%이상 투자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여성 벤처기업의 3.3%, 남성 벤처기업의 2.5%나 되었다(<표 IV-30> 참조).

<표 IV-3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분포

(단위 : 개사, %)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전체
여성	28 30.8	23 25.3	16 17.6	7 7.7	3 3.3	4 4.4	2 2.2	5 5.5	0 0.0	3 3.3	91 100.0
남성	135 34.1	78 19.7	67 16.9	46 11.6	15 3.8	12 3.0	13 3.3	9 2.3	11 2.8	10 2.5	396 100.0
전체	163 33.5	101 20.7	83 17.0	53 10.9	18 3.7	16 3.3	15 3.1	14 2.9	11 2.3	13 2.7	487 100.0

벤처기업의 인적관리에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의 평균 투자비율 분포는 '5%미만'에 여성 벤처기업의 87.1%, 남성 벤처기업의 87.5%로 집중되어 있었다(<표 IV-31> 참조).

<표 IV-31>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투자비율 분포

(단위 : 개사, %)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70% 미만	전체
여성	61 87.1	5 7.1	1 1.4	0 0.0	1 1.4	1 1.4	1 1.4	70 100.0
남성	267 87.5	26 8.5	7 2.3	5 1.6	0 0.0	0 0.0	0 0.0	305 100.0
전체	328 87.5	31 8.3	8 2.1	5 1.3	1 0.3	1 0.3	1 0.3	375 100.0

2003년 대비 2004년 벤처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증가'와 '감소'를 알아본 결과 남녀 벤처기업 모두 '증가'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 벤처기업의 69.9%, 남성 벤처기업은 54.7%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증가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32> 참조).

<표 IV-32> 2003년 대비 2004년 당기순이익 변화

(단위 : 개사, %)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감소 없음	해당 없음 (2004년 창업)	전체
여성	72	28	1	2	103
	69.9	27.2	1.0	1.9	100.0
남성	238	180	4	13	435
	54.7	41.4	0.9	3.0	100.0
전체	310	208	5	15	538
	57.6	38.7	0.9	2.8	100.0

<표 IV-32>에서 2003년 대비 2004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남녀 벤처기업에 대해 경영, 영업, 산업, 거시환경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 환경 능력을 '부족(불리)하다'에서 '매우 충분(유리)하다'까지 5점 척도로 1~5점까지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4개 분야 중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3.4점을 기록한 경영 부문이었다. 다시 경영 분야에서는 '경영자의 능력'이 여성 벤처기업 3.8점, 남성 벤처기업 3.7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2.4점)'과 '성공적인 구조조정(2.6점)'의 점수가 낮았다. 영업 분야에서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남녀 벤처기업 모두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녀 벤처기업 비교에서는 '기술력, 연구개발능력 및 창의성'을 제외하고 '저렴한 원자재 조달능력', '국내외 마케팅 능력', '고유브랜드 확보'에서 여성 벤처기업 점수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업 부문 전체 평균은 3.0점 남녀 벤처기업 동일하였고 '정확한 사업성 및 시장예측', '산업환경의 의도/예측하지 않은 변화', '시의적절한 정책지원', '연관산업 또는 관련 인프라의 성장' 모두 여성 벤처기업의 점수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다. 거시환경 부문은 전체 평균 점수가 다른 경영, 영업, 산업 부문에 비해 가장 낮았는데 여성 벤처기업은 2.8점, 남성 벤처기업은 2.4점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평균치가 더 낮았다. 특히, 남성 벤처기업은 '유가, 원자재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해 1.9점으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남녀 벤처기업은 '경영'과 '영업' 부문의 개별기업에 따라 다른 환경 능력에 대

해 '산업'과 '거시환경'의 객관적인 환경 능력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표 IV-33> 참조).

<표 IV-33> 당기순이익 증가한 기업의 환경 능력

(단위 : 점)

구분	세부항목	여성	남성	전체
경영	경영자의 능력	3.8	3.7	3.7
	직원들의 인화단결	3.2	3.2	3.2
	자금조달 능력	2.4	3.2	3.0
	성공적인 구조조정	2.6	3.3	3.1
전체		3.4	3.4	3.4
영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3.7	3.7	3.7
	기술력, 연구개발능력 및 창의성	3.1	3.2	3.2
	저렴한 원자재 조달능력	3.5	3.3	3.4
	국내외 마케팅 능력	3.5	3.3	3.4
	고유브랜드의 확보	3.3	3.2	3.3
전체		3.3	3.3	3.3
산업	정확한 사업성 및 시장예측	3.1	3.1	3.1
	산업환경의 의도/예측하지 않은 변화	3.1	2.9	3.0
	시의적절한 정책지원	3.1	3.1	3.1
	연관산업 또는 관련 인프라의 성장	3.0	2.9	2.9
전체		3.0	3.0	3.0
거시환경	주 수출시장의 소득증대	2.9	2.7	2.8
	환율, 금리, 주가지수 등 거시요소의 움직임	2.8	2.5	2.6
	유가, 원자재 국제가격의 변화	2.3	1.9	1.9
전체		2.8	2.4	2.5

주 :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부족(불리)하다, 부족(불리)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유리한 편이다), 매우 충분(유리)하다를 각각 1부터 5점까지 부여함.

<표 IV-34> 당기순이익 감소한 기업의 환경 능력

(단위 : 점)

구분	세부항목	여성	남성	전체
경영	경영자의 무능력, 도덕적 해이	2.1	2.0	2.0
	주주, 직원들의 불화	2.8	2.6	2.6
	자금조달 능력 부족	2.7	2.2	2.6
	구조조정 실패	2.7	2.2	2.3
	위기관리 능력 부족	2.4	1.9	2.0
	주기관리 및 경영권 확보 실패	2.4	1.8	1.9
	노동쟁의, 이직, 비리, 횡령	2.8	2.6	2.6
전체		2.6	2.2	2.2
영업	마케팅능력 부족	2.5	2.4	2.4
	기술력, 연구개발능력 부족	3.0	2.6	2.7
	적정마진 확보 실패	2.6	2.5	2.5
	고유브랜드 형성 실패	2.5	2.2	2.2
	주거래처의 대량 주문 취소	2.3	2.1	2.1
	지적재산권, 특허권 분쟁	2.7	2.5	2.5
전체		2.6	2.4	2.4
산업	사업성 및 시장예측실패	2.7	2.5	2.5
	산업환경의 의도/예측하지 않은 불리한 변화	2.9	2.5	2.5
	정책불비 또는 지나친 규제	2.8	2.6	2.6
	연관산업 부진/관련 인프라 불비	2.7	2.5	2.5
전체		2.8	2.5	2.5
거시환경	주 수출시장의 소득감소	2.8	2.6	2.6
	환율, 금리 등 거시요소의 불리한 변화	2.9	2.7	2.7
	원자재 국제가격의 불리한 변화	2.9	2.6	2.7
	타켓시장의 경기침체	2.6	1.9	2.0
전체		2.8	2.5	2.5
기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비용과다	2.5	1.9	2.0
	국내외 인허가 요건 반대	2.2	1.6	1.7
전체		2.4	1.8	1.8

주 :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를 각각 1부터 5점까지에 부여함.

<표 IV-32>에서 2003년 대비 2004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에게는 기타를 추가하여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각 부문의 전체 평균은 2점대로 '심각하지 않다'가 가장 많았고 모든 부문에서 평균 점수가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기업 환경 능력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남녀 벤처기업들은 '경영', '영업' 과 같은 내재적 환경보다는 '산업', '거시환경', '기타'와 같은 외부 환경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표 IV-34> 참조).

<표 IV-33>에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벤처기업들은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은 2.4점으로 '불리'하다와 남성 벤처기업은 '3.2점'으로 '보통'이어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을 부족(불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을 투자·용자로 나누어 합한 비율이 100%가 되도록 각각의 비율을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남녀 벤처기업 모두 투자의 '창업가 본인'이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자의 '자체 신용(은행, 투자 신탁 등)'이 전체 27.5%로 많았다. 남녀 벤처기업별로 살펴보면 여성 벤처기업은 '창업가 본인'의 비율이 42.9%, 남성 벤처기업 38.2% 보다 높았고 '자체 신용(은행, 투자 신탁 등)'에서도 여성 벤처기업 28.3%로 남성 벤처기업의 27.9% 보다 높았다. 나머지 '벤처캐피탈'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1.5%로 동일하였고 '개인투자자(엔젤)', '친지, 인척, 지인 등', '코스닥'에서는 남성 벤처기업의 분포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용자' 비율이 여성 벤처기업 50.1%, 남성 벤처기업 50.3%로 '투자' 비율의 여성 벤처기업 49.9%, 남성 벤처기업 49.7% 보다 약간 높았다(<표 IV-35> 참조).

<표 IV-35> 자금 조달 현황

(단위 : %)

		여성	남성	전체
투자	- 창업가 본인	42.9	38.2	37.1
	- 개인투자자(엔젤)	2.7	4.6	5.1
	- 벤처캐피탈	1.5	1.5	1.5
	- 코스닥(KOSDAQ)	0.0	0.1	0.1
	- 증권거래소	0.0	0.1	0.1
	- 기타	2.8	5.2	5.8
	소계		49.9	49.7
융자	- 친지, 인척, 지인 등	2.9	3.3	3.4
	- 신용보증기금	18.9	19.1	19.1
	- 자체 신용(은행, 투자신탁 등)	28.3	27.9	27.8
	기타	0.0	0.0	0.0
	소계		50.1	50.3
전체		100.0	100.0	100.0

투자받은 주체별로 투자금액을 알아본 결과 여성 벤처기업은 총 3,717백만 원을 투자 받았으며 이중 '중소기업진흥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과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각각 1,400백만원, 749백만원으로 많았고 남성 벤처기업은 '기타'를 제외하고 '개인투자자(엔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28,92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12,934백만원, '금융기관' 7,110백만원, '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이 7,230만원으로 나타났고 '타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도 평균 3,375백만원이었다. 평균 투자 총액은 여성 벤처기업이 37.9백만원, 남성 벤처기업이 224.3백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각 투자주체별로 평균 투자금액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여성 벤처기업은 '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이 전무하여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투자처가 다양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표 IV-36> 참조).

<표 IV-36> 투자기관별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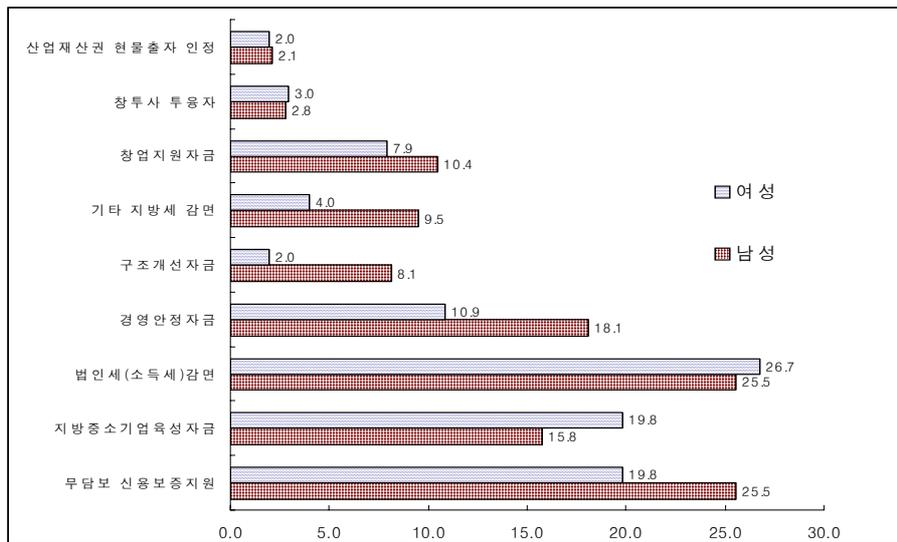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투자기관	투자 유치 총액			평균액		
	여성	남성	전체	여성 (n=98)	남성 (n=428)	전체 (n=526)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	749	12,934	13,683	7.6	30.2	26.0
타 기업	0.0	3,375	3,375	0.0	7.9	6.4
금융기관	0.0	7,110	7,110	0.0	16.6	13.5
개인투자자(엔젤)	520	28,927	29,447	5.3	67.6	56.0
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	1,400	7,230	8,630	14.3	16.9	16.4
기타	1,048	36,419	37,467	10.7	85.1	71.2
계	3,717	95,995	99,712	37.9	224.3	189.6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활용률을 보면 30% 미만으로 여성 벤처기업은 '법인세(소득세)감면(26.7%)',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19.8%)',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19.8%)', '경영안정자금(10.9%)', '창업지원자금(7.9%)', '기타 지방세 감면(4.0%)', '창투사 투융자(3.0%)' 순서로 활용비율이 높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인정'과 '구조개선자금'이 2.0% 동일하게 활용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법인세(소득세)감면'과 '무담보 신용보증지원'이 25.5%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경영안정자금(18.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15.8%)', '창업지원자금(10.4%)', '기타 지방세 감면(9.5%)', '구조개선자금(8.1%)', '창투사 투융자(2.8%)',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인정(2.0%)'으로 나타났다. 활용비율에서 남녀 벤처기업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무담보신용보증지원'과 '경영안정자금'이었다(<그림 IV-13> 참조).

<그림 IV-13> 정책자금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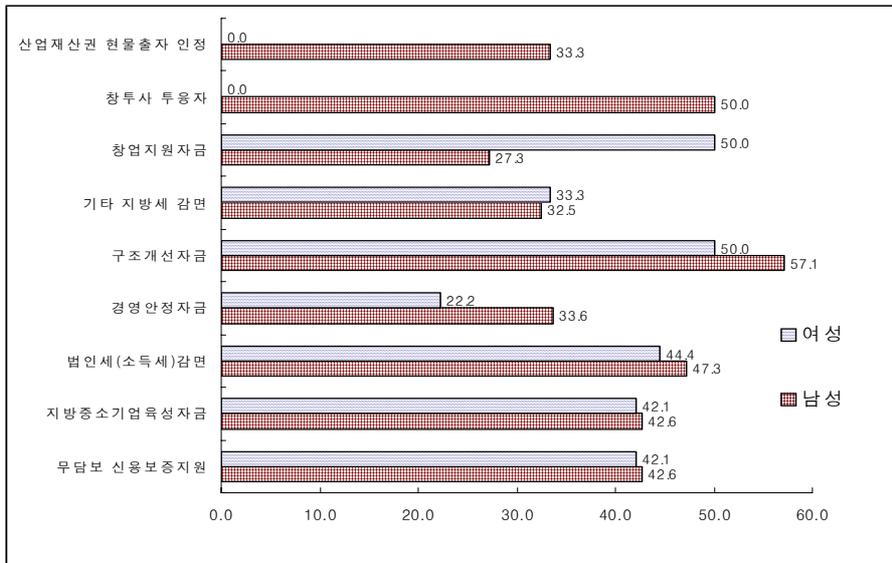
(단위 : %)



정책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에 대해 만족 비율을 알아본 결과 여성 벤처기업은 '창업지원자금'과 '구조개선자금'이 50.0%로 가장 높았고 남성 벤처기업은 '구조개선자금'이 57.1%, '창투자 융자'가 50%로 50% 이상의 만족비율을 보였다. 이외에 '법인세(소득세)감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무담보 신용보증지원'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40%대의 만족도를 보였다. 여성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인정'과 '창투자 투융자'에 대해 만족비율이 0%로 나타나 남성 벤처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창업지원자금'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만족비율이 50.0%로 남성 벤처기업의 27.3%에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표 IV-35>에서 여성 벤처기업은 '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정책 자금 활용 만족비율에서도 '창업지원자금'이 50.0%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여성 벤처기업에게는 유효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창투자 투융자'의 만족도가 0%인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금 활용이 여성 벤처기업에게는 남성 벤처기업에 보다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그림 IV-14> 참조).

<그림 IV-14> 정책자금 활용 만족 비율

(단위 : %)



정부 자금 지원 정책의 불만족 사유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은 '보증기관의 이용방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가 21.1%로 가장 많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와 '자금 지원규모가 작다'가 16.7%,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정책의 종류에 대해 알기 힘들다'와 '담보 및 신용등급 등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가 12.2%, '보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자금 상환기간이 짧다', '여성기업의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을 원한다'가 5.6%, '서류심사기간이 길다'가 4.4%로 나타났다. 남성 벤처기업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18.8%, '자금 지원 규모가 작다' 17.2%, '보증기관의 이용방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16.5%,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정책의 종류에 대해 알기 힘들다' 14.7%, '담보 및 신용등급 등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13.8%, '서류심사기간이 길다' 8.0%, '자금 상환기간이 짧다' 5.8%, '보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4.9%, '여성기업의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을 원한다'는 0.2%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남녀 벤처기업들은 서류준비, 이용절차, 자금지원 규모 등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을 원한다'가 5.6%로 나타난 것이 남성 벤처기업과 차이를 보였다(<표 IV-37> 참조).

<표 IV-37> 정부 자금 지원 정책 불만족 사유

(단위 : 개사, %)

	여성		남성		전체	
	개사	%	개사	%	개사	%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15	16.7	84	18.8	99	18.4
보증기관의 이용방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19	21.1	74	16.5	93	17.3
자금 지원규모가 작다	15	16.7	77	17.2	92	17.1
지원받을수 있는 자금지원정책의 종류에 대해 알기 힘들다	11	12.2	66	14.7	77	14.3
담보 및 신용등급 등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11	12.2	62	13.8	73	13.6
서류심사기간이 길다	4	4.4	36	8.0	40	7.4
자금 상환기간이 짧다	5	5.6	26	5.8	31	5.8
보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5	5.6	22	4.9	27	5.0
여성기업이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을 원한다	5	5.6	1	0.2	6	1.1
전체	90	100.0	448	100.0	538	100.0

주 : 복수응답.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보통이다'가 여성 벤처기업의 48.6%, 남성 벤처기업의 47.5%로 가장 높았으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벤처기업이 31.1%로 여성 벤처기업의 25.7%로 높은 반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18.1%로 남성 벤처기업의 14.3% 보다 높았다(<표 IV-38> 참조).

<표 IV-38> 자금 사정

(단위 : 개사, %)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양호하다	매우 양호하다	전체
여성	6	27	51	19	2	434
	5.7	25.7	48.6	18.1	1.9	100.0
남성	20	135	206	62	11	105
	4.6	31.1	47.5	14.3	2.5	100.0
전체	26	162	257	81	13	539
	4.8	30.1	47.7	15.0	2.4	100.0

바. 벤처기업 지원

각종 벤처기업지원 제도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남녀 벤처기업 모두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의 미흡'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고 이어 '관련기관 및 제도의 복잡성', '벤처기업평가 능력의 미약', '실효성 없는 자금 지원책' 순서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의 미흡'에서 여성 벤처기업은 67.0%로 남성 벤처기업의 60.6%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표 IV-39> 참조).

<표 IV-39> 현행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단위 : 개사, %)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의 미흡	관련 기관 및 제도의 복잡성	벤처기업평가 능력의 미약	실효성 없는 자금 지원책	없음	전체
여성	71 67.0	22 20.8	13 12.3	0 0.0	0 0.0	106 100.0
남성	262 60.6	98 22.7	67 15.5	3 0.7	2 0.5	432 100.0
전체	333 61.9	120 22.3	80 14.9	3 0.6	2 0.4	538 100.0

한편,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한 점으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자금공급의 원활화'(여성 벤처기업, 57.0%; 남성 벤처기업 61.0%)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어 '신기술 창출기반의 강화(여성 벤처기업, 25.2%; 남성 벤처기업 25.2%)', '세계지원 방안(여성 벤처기업, 9.3%; 남성 벤처기업, 5.3%)', '인력공급의 원활화(여성 벤처기업, 4.7%; 남성 벤처기업, 4.8%)', '창업투자회사의 기능강화(여성 벤처기업, 2.8%; 남성 벤처기업, 2.1%)', '판매지원(여성 벤처기업, 0.9%; 남성 벤처기업, 0.7%)'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벤처기업은 '인력공급의 원활화', '마케팅지원'에 대해서는 한 개사도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았고,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세계지원방안'의 응답비율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2 배 가까이 높게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표 IV-40> 참조).

<표 IV-40>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한 것

(단위 : 개사, %)

	여성 벤처		남성 벤처		전체	
자금공급의 원활화	61	57.0	266	61.0	327	60.2
신기술 창출기반의 강화	27	25.2	110	25.2	137	25.2
세계지원 방안	10	9.3	23	5.3	33	6.1
인력공급의 원활화	5	4.7	21	4.8	26	4.8
입지공급의 원활화	0	0.0	2	0.5	2	0.4
창업투자회사의 기능강화	3	2.8	9	2.1	12	2.2
마케팅 지원	0	0.0	2	0.5	2	0.4
판매지원	1	0.9	3	0.7	4	0.7
전체	107	100.0	436	100.0	543	100.0

마지막으로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52.3%),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에 관한 상담창구(43.9%)’, ‘사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여성창업자에 의한 컨설팅(37.4%)’, ‘인재, 시장, 기술 등에 관한 정보 제공(33.6%)’,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병간호와 직업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시설확충(15.0%)’,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 노하우 습득을 위한 세미나(15.0%)’, ‘같은 의지를 갖는 여성창업자들과의 교류(11.2%)’ 순서로 정부정책을 요청한 반면, 남성 벤처기업들이 응답한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정책으로는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에 관한 상담창구(50.6%)’, ‘사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여성창업자에 의한 컨설팅(39.6%)’, ‘인재, 시장, 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30.9%)’,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24.5%)’,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 노하우 습득을 위한 세미나(21.2%)’,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병간호와 직업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시설확충(19.9%)’, ‘같은 의지를 갖는 여성창업자들과의 교류(10.7%)’로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 응답비율에서 여성 벤처기업과 가장 큰 격차로 응답하고 있었다(<표 IV-41> 참조).

<표 IV-41>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

(단위 : 개사, %)

	여성 벤처		남성 벤처		전체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에 관한 상담창구	47	43.9	228	52.3	275	50.6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	56	52.3	77	17.7	133	24.5
사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여성 창업자에 의한 컨설팅	40	37.4	175	40.1	215	39.6
인재, 시장, 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36	33.6	132	30.3	168	30.9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병간호와 직업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시설확충	16	15.0	92	21.1	108	19.9
같은 의지를 갖는 여성창업자들과의 교류	12	11.2	46	10.6	58	10.7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 노하우 습득을 위한 세미나	16	15.0	99	22.7	115	21.2
모름/무응답	8	7.5	14	3.2	22	4.1
전체	231	100.0	863	80.3	1,094	100.0

주 : 복수응답.

3. 소결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여성 벤처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표이사 특성에서 남녀 벤처기업의 차이는 대표이사의 전공계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여성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이 35.8%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자연공학계열’이 56.4%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이전 경력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국내 중소기업 근무’가 30%대로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고,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가사’가 12.2%로 분포하는 것이 남성 벤처기업과 다른 점이었다. 이전 경력과 현재 기업의 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63.0%가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 벤처기업의 90.2%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 벤처기업인의 인문사회계열 전공 비중이 높고, 이전 경력분포에서 ‘가사’와 ‘미취업’이 높게 나타나 기술관련 전공 및 직업경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벤처확인 유형에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신기술기업'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으나 신기술기업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은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고, '연구개발기업'과 '예비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여성 벤처기업의 업력 분포는 남성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이상~10년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업력 또한 남성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3.8년이었다.

여성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84.0%로 남성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 65.9% 보다 높았다. 여성인력 비율은 남성 벤처기업이 60.5%로 여성 벤처기업의 44.9% 보다 높았으나, 여성인력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남성 벤처기업이 46.0%로 여성 벤처기업의 여성인력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27.1% 보다 높아 남성 벤처기업에 고용된 여성인력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인력 분포에서는 '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 14.7%로 남성 벤처기업의 13.4%보다 높았다. 직종별 평균인원에서는 '생산직'이 여성 벤처기업 14.3명, 남성 벤처기업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직'은 여성 벤처기업이 6.9명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4.2명보다 많았다.

직종별 인력 수급 상태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영업·마케팅'인력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대해 60%이상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인력수급이 비교적 원활하였다.

'연구개발직'의 인력 충원 방법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학교 추천', '관련 업계 전문지 구인광고',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소개소', '신문, 라디오, 매체 이용', '거래처' 등의 이용률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아 여성 벤처기업이 공식적인 인력 충원 방법을 남성 벤처기업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복리 후생 제도에서는 '연봉제' 실시가 여성 벤처기업 68.2%, 남성 벤처기업 69.0%로 남녀 벤처기업에서 모두 높았다.

남녀 벤처기업 모두 70% 가까이 외주를 주고 있었는데 외주실시 부문은 '생산', '회계', '연구개발'이 상위 3개로 가장 많았고 여성 벤처기업은 '마케팅'과 '구매'의 외주실시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높았다.

경영상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해외진출'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조사된 남녀 벤처기업의 주력 기술 부문은 'IT'가 가장 많았고 이어 'BT',

‘ET’의 비율이 높았다. ‘NT’와 ‘CT’의 경우, NT는 남성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았으며, CT는 여성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CT(문화·컨텐츠 기술)’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특허권’, ‘국내의장권’, ‘국내실용신안권’, ‘국내상표권’, ‘해외산업재산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보유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모두 높았고 각각의 산업재산권의 보유건수에 있어서는 ‘국내 상표권’과 ‘해외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재산권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평균 보유건수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많았다.

연구개발(R&D) 활동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90%이상 수행하고 있었고 수행 주체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가장 많아 자체조직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 남성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여성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높은 것에서 차이는 약간 있었다. 자체조직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만큼, 연구개발 방식도 ‘자체개발’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70%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차이가 있다면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산·학·연 공동개발’의 비율은 높고 ‘기술도입’ 비율은 낮은 것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55.1%, 남성 벤처기업의 53.0%가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부문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기술부문’이 많았는데 특히, 여성 벤처기업은 ‘기술부문’에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89.8%나 되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5%미만이 가장 많았고 100%이상 투자하는 기업도 여성 벤처기업이 3.3%, 남성 벤처기업이 2.5%나 되었다.

2003년 대비 2004년 당기순이익 변화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의 69.9%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동 기간에 남성 벤처기업은 54.7%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증감과 기업환경능력을 연계해 본 결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벤처기업들의 기업환경 능력에 대한 자체평가는 ‘경영’, ‘영업’ 부문이 ‘산업’과 ‘거시환경’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평가한 것이 많았고 남녀 벤처기업의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의 기업환경 능력에 대한 결과는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심각한 쪽으로 평가한 점수가 높았고 ‘경영’, ‘영업’ 부

문 보다 '산업', '거시환경'에 대해 심각하다고 보는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높았다.

자금 조달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창업가 본인'과 '자체신용'의 비율이 높았고 투자기관별 평균 투자금액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모두 적은 가운데 격차가 가장 적은 것은 '중진공 정부투자기관'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활용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두 남성 벤처기업 보다 활용비율이 떨어졌다. 정책자금 활용 만족도에서는 '창업자금지원'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만족도가 50.0%로 남성 벤처기업의 27.3%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차이가 났으며 나머지 정책자금의 만족도에서는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높아 비교가 되었다.

정책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 '보증기관의 이용방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자금지원 규모가 작다' 등을 많이 지적한 것은 동일하였으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을 원한다'가 5.6%나 되었다.

조사에 응한 남녀 벤처기업의 자금 상황은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양호하다'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어렵다'의 비율이 높아 대조적이었다.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한 것으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자금공급의 원활화'와 '신기술 창출기반의 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성 벤처기업 보다 '세계지원 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52.3%)'와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에 관한 상담연구(43.9%)', '사업의 발달단계에 따른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여성창업자에 의한 컨설팅'등의 순서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벤처기업이 보는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에서는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17.7%)' 보다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병간호와 직업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시설확충(21.1%)'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어 남녀 벤처기업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기술집약형 여성 벤처기업의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전체 벤처기업에서 여성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3%로 매우 미비하였으나 수적으로 열세인 여성 벤처기

업의 경영 상태는 남성 벤처기업의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성장과 확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자산, 매출, 자금 지원 등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으나 벤처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과 관련하여 연구인력 확보와 산업재산권 취득, 연구개발(R&D) 활동에서는 남성 벤처기업과 비교해 뒤지지 않았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이나 취득 건수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성과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다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자금 활용 비율이나 투자 금액 실적이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즉, 정부는 소수이지만 건실하게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운영 자금 지원과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 자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부가 향후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과 더불어 여성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3%에서 상승할 수 있도록 성장 모멘텀(momentum)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정책	121
2.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127
3.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와 주요 쟁점	131



1.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정책

가.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화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1997년 벤처육성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벤처정책을 추진해 왔다. 초기단계의 벤처육성 정책은 벤처확인제도를 통한 벤처기업의 지정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었으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자금, 기술, 인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단기간에 양적인 성장이 가능하였다. 벤처육성특별조치법의 제정되었던 시점은 코스닥 시장의 출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사회적으로 벤처 붐이 조성되는 시기였다.

벤처육성특별조치법의 핵심은 정부가 중소기업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인력, 입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자금 등의 기능별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표 V-1> 참조).

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기술지원으로는 KOSBIR과 INNO-BIZ가 있다. KOSBIR은 18개 부처 및 기관에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 중 중소·벤처기업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을 도출하여 참가희망 개별기업을 심사,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INNO-BIZ¹⁷⁾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 역량 보유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사업 등에 대한 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세제지원은 6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2년 이내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 등록세 면제, 인지세, 재산세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의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대안책으로 제시된 벤처기업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옥석을 가리지 않고 외형

17) INNO-BIZ는 기술신용보증기금(현장평가)에서 업력 3년 이상('03년부터 적용)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시스템(1,000점): 700점 이상, 개별 기술수준(100점): 65점 이상(기본 충족요건)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적 성장에 주력한 결과, 과잉투자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소위 '무늬만 벤처'라는 반 벤처기업 정서가 확산되었고, 세계적인 IT 경기의 불황 및 기술주 시장의 하락에 따라 벤처거품이 붕괴되었다. 이후 정부의 벤처정책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여 우선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요건을 강화하여 2002년 벤처기업 요건에 불충분한 기업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벤처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코스닥 시장이 붕괴되어 투자회수 시스템의 기능이 약화되어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벤처투자 주체들의 투자가 위축되었고, 벤처기업의 퇴출장벽이 높아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

<표 V-1>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산재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창업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표 V-1>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지원내용(계속)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율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 특규정 (증권업협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중진공 규정 (융자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신보 및 기술 신보 규정 (보증심사부서)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 2회 부여 * 일반기업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 지원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미국 SBIR 진출지원 (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판로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기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 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5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증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참여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2004.3. 중기청),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4.7. 9개 부처) 등을 발표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확정하였다. 기존의 양적 저변확대보다는 벤처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환경 구축,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거시적인 성격의 대책이었다. 나아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패자부활제 등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 대책을 골자로 한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계 지원방안'(2004. 12)이 발표되면서, 코스닥과 거래소를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도록 코스닥 시장을 재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신기술, 창업·벤처투자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해외 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

해외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국가별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임윤철 외 2005).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요건은 충분한 자금지원, 우수한 인력, 정부의 세계 및 투자유인 정책, 산학연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 창업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가 정신 등이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성공요인이 실제 벤처기업의 육성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이는 각 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 충족 정도 등이 다르며, 국가별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벤처기업 생성 배경이나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벤처육성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주요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미국은 시장 메카니즘에 기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정보 제공 등의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중심의 간접적인 정책으로 변환하고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금

용 지원 프로그램을 대부분 폐지하고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있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주체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인큐베이터, 대학, 비즈니스 스쿨 등 다양하다.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지원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지원정책으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이 있다. 1982년 중소기업혁신육성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근거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의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의 일부를 벤처기업 전용으로 할당하여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0여개의 정부 부처 및 기관이 후원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연방회의에서 중소기업인, SBIR 경영자, 금융 전문가, 대기업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 자금 확보, 파트너십과 SBIR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BIR은 1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보유한 연방기관이 연구개발의 일정 비율(2.5%)을 중소기업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SBIR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1단계는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6개월 간 최대 10만 달러가 지원된다.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잠재력 제고를 목적으로 2년간 최대 75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3단계는 제품 사업화를 목적으로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

기술개발이전 정책으로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이 있다. STTR은 1993년부터 시작된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첨단기술의 육성과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이 연구실적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업화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단독 연구에 대한 지원이지만, STTR은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이다. STTR 프로그램은 지원 영역이 한정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지원규모가 큰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한다.

STTR 프로그램도 3단계를 통해 추진된다. 1단계는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1년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기업 및 비영리 연구기관의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2년 동안 50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3단계는 2단계에서의 기술개발 결과물이 사업화되는 과정으로 STTR의 자금지원은 없고 민간 및 타 정부 지원 프로

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1982년 SBIR이 도입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 금융 지원을 대부분 폐지하고 신용보증을 확대하였다. 미국은 신용보증 기관이 별도로 없고 은행이 대출받을 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대출은행에 보증한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 및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의 용자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업무 추진을 위한 부동산 구입, 건물의 개축이나 임차물건의 확장, 비품·기계 장치 등의 취득, 재고품 구입, 운전자금의 준비 등으로 한정한다.

(2) 일본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일본의 벤처기업의 개념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력 중심의 개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신시장 창조, 기존 기술의 융합, 틈새시장 개척, 사업전환 등으로 포함하고 있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통상산업성을 중심으로 최근 수 년 간에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활동은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정책은 소프트·인프라의 정비가 대부분이다(이윤보, 1999; <http://global.smba.go.kr>).

기술과 관련된 지원시책은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창조기술연구개발비 보조금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생산공정 효율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분야 진출의 원활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기술 연구나 신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원재료비, 기계장치비 등의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둘째, 창조기반기술연구제도는 국가의 출자를 받은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중소기업사업단과 연대하여 벤처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대학 및 공공시설 등에 연구를 위탁하고, 독창적인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산업계와 대학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공동연구나 연구성과 이전을 위한 제휴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단에 의해 추진되는 기술교류회가 있다. 넷째, 의욕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성과가 뛰어난 대학 등의 연구자를 조연자로 중소기업사업단에 등록하고, 해당 대학의 연구물 사업화에 관심을 갖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파견, 지도, 충고 등을 행하는 창조기반기술이전 컨설팅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첫째,

‘창조적 중소기업 창출지원사업’은 창조적 중소기업, 또는 주식회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직접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정부계 금융기관의 특별대부제도 및 채무보증제도는 벤처기업을 일반 대부보다도 한도액, 금리 등의 면에서 우대하고 있으며, 신규 개업자의 경우 신사업개척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영지원시책으로는 창업기(10년 이내) 또는 신규 사업분야에의 진출, 신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원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투자육성회사나 벤처캐피탈 등의 출자에 의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및 재무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벤처기업 출자수입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2.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앞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주요 벤처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은 창업 지원에서 세제, 금융, 인력, 판로 등에 이르는 다각도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각 국의 벤처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벤처지원제도를 여성 벤처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미리 정하고, 확인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벤처기업은 대부분 ‘신기술 기업’ 유형에 분포(82.5%)하고 있으며, ‘벤처투자기업’ 유형은 1.8%에 불과하다. 이것은 여성 벤처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04년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확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중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것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자금조달과 관련된 신용보증 우대지원제도였다(<표 V-2> 참조). 이용 비율은 남성 벤처기업은 64.5%, 여성 벤처기업은 58.0%로 남성

벤처가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이용경험이 높은 제도는 남성 벤처의 경우, 병역특례제도와 중소기업 상담회사 이용, 특허우선 심사제도, 공장설립시 혜택, 스톡옵션제도 등의 순이었다. 여성 벤처는 병역특례제도, 특허우선 심사제도, 공장설립시 혜택, 중소기업 상담회사 이용, 교수·연구원 겸직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벤처의 경우, 남성 벤처에 비해 교수·연구원 겸직제도의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톡옵션제도와 중소기업 상담회사 이용에서 활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비율은 남성 벤처가 13.6%였으며, 여성 벤처는 22.2%나 되었다. 여성 벤처기업의 표본이 작기 때문에 여성 벤처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여성 벤처는 남성 벤처에 비해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V-2> 벤처기업 지원제도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N=929)	남성 벤처 (N=848)	여성 벤처 (N=81)
신용보증 우대지원제도	63.9	64.5	58.0
법인 설립시 우대제도	3.7	3.2	8.6
교수·연구원 겸직제도	9.8	9.7	11.1
스톡옵션제도	13.2	13.7	8.6
공장 설립시의 혜택	15.5	15.4	16.0
병역특례제도	42.2	43.2	32.1
방송 광고시 비용지원	4.7	4.7	4.9
특허우선 심사제도	16.8	16.9	16.0
조달청 제품판매 지원제도	5.6	5.7	4.9
코스닥 등록시 요건완화	2.4	2.5	1.2
중소기업 상담회사	18.7	19.2	13.6
기타	3.9	3.7	6.2
없다	14.3	13.6	22.2

주 : 복수응답.

자료: 재경부·중소기업청(2004). 「벤처기업 실태조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 지원과 신용보증 지원의 두 가지가 있으며, 벤처확인 기업을 우대 보증하고 있다. 기술력을 담

보로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여성 벤처기업 지원현황은 <표 V-3>과 같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수는 2003년 1,877개 업체에서 2005년 6월 현재 2,695개 업체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 벤처기업의 비율도 2003년 3.5%에서 2005년 5.1%로 증가하였다. 여성 벤처기업의 2005년 활용실적을 보면, 2005년 5월 현재 전체 여성 벤처기업이 284개임을 감안할 때, 과반수에 가까운 48.6%의 여성 벤처기업이 보증지원을 받았다. 이는 남성 벤처기업(30.3%)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한편, 보증 금액의 비중(3.3%)은 업체 수 비중(5.1%)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성 벤처기업의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은 3.3억원(2005년 6월)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평균 지원금액은 5.2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 벤처기업은 기술력에 기반한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보증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여성 벤처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업체수, 억원, %)

구분	전체(A)		여성 벤처기업(B)		여성 벤처기업 지원비율(B/A)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3	1,877	22,152	65	443	3.5	2.0
2004	2,312	24,658	88	778	3.8	3.2
2005. 6	2,695	13,777	138	459	5.1	3.3

주 : 정부확인 벤처기업 대상임.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부 내부자료.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은 <표 V-4>와 같다. 신용보증기금이 여성 벤처기업에게 보증지원한 건수의 비율이 2001년 2.3%에서 2005년 9월 3.5%까지 증가했다. 지원 건수는 한 업체에서 여러 번 지원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당 지원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한 여성 벤처기업 수의 비중(5.1%)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 벤처기업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비중은 2.6%로, 지원 건수의 비중보다 낮았다. 여성 벤처기업의 지원금액은 지원 건당 2.2억원으로 남성 벤처의 건당 지원금액(3.0억원)보

다 낮았다.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제도보다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기술신용보증지원제도의 활용율이 더 높으며, 보증지원의 규모도 기술신용보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신용보증기금의 여성 벤처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건수, 억원)

구분	전체		여성 벤처기업		여성 벤처기업 지원비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7,507	17,128	176	304	2.3	1.8
2002	6,483	15,970	143	243	2.2	1.5
2003	6,159	16,364	150	296	2.4	1.8
2004	6,298	18,431	205	438	3.3	2.4
2005. 9	6,992	20,685	247	535	3.5	2.6

주 : 정부확인 벤처기업 대상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내부자료.

<표 V-5> 여성 벤처기업 펀드 결성 실적

(단위 : 억원, 개사)

조합명	운용사	결성년월	운용기간	결성총액	투자업체	투자금액
무한첨단 여성조합	무한투자	2000. 6	5년	100억	23개사 (7)	104억원 (41억9000만원)
한솔여성 전문조합	HS창업투자	2001. 8	5년	50억	12개사 (12)	68억4900만원 (68억4900만원)
KMAV여성기업 전문투자조합	한능벤처 기술투자	2001. 8	5년	50억	8개사 (2)	50억7500만원 (20억7500만원)
차세대성장 전문투자조합	플래티넘 기술투자	2003. 12	7년	50억	4개사 (0)	26억원 (0)

주 : 차세대성장전문투자조합은 여성·지방·초기기업 투자펀드/팔호 안은 여성 기업투자임.
 자료: 파이낸셜 뉴스(2005. 9. 1).

여성 벤처기업이 벤처투자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여성 벤처의 절대적 수가 적고, 성공한 여성 벤처사례가 드물기 때문이지만, 지난

2000년 이후 결성된 여성펀드의 운용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이후, 몇 차례 여성펀드가 운영된 바 있으나, 한결같이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보고하였다(<표 V-5> 참조). 지금까지 결성된 여성펀드는 총 4개로 250억원 규모다.

이들 펀드가 지금까지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것은 한 건(HS창업투자의 '한솔여성펀드'가 '웹젠'에 투자)에 불과하다. 무한투자가 지난 2000년에 결성했던 100억원 규모의 '무한첨단여성조합'과 한능벤처투자의 KMAV여성기업펀드(2001년 결성) 등은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파이낸셜 뉴스, 2005. 9.1).

이러한 결과는 신기술 여성기업의 절대 수가 부족하고, 투자조합 규모가 영세하여 투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여성기업 투자 의무비율이 30%에 불과하여 일반투자조합과의 차별성이 없어 여성기업 펀드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3억에서 5억 정도의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중소 여성기업들에게 매출액 5억 이상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여성기업펀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2005년 10월 현재, 여성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300억 펀드의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모태펀드에서 150억원을 지원받고, 자기계정(30억원) 및 금융기관 등의 출자금을 포함해 총 300억원 규모의 펀드의 결성을 계획 중이다. 투자유치에 있어 불리한 여성 벤처기업인에게 투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손실보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3.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와 주요 쟁점

우리나라의 벤처지원정책이 종류와 범위 면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그동안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단기간 내에 혁신기업군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시장진입이 어려운 초기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조달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자금 지원이 사용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승산이 없는 벤처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연명을 하거나 도산 시기만을

연장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원리의 경쟁이 저하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일반 중소기업이 자원 배분에서 불리해지기도 한다. 나아가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인 벤처기업을 양산함으로써, 자생력이나 기업가 정신을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확인한 벤처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확인 벤처기업에 다수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서 확인제도의 선별기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확인제도에 대한 신뢰도 약화는 확인제도가 벤처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컸던 만큼, 결과적으로는 벤처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벤처투자에 대한 책임원리가 작동되기 어려운 공적 평가기관이 확인한 벤처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총 16개 공적 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의 비중은 1999년 불과 11.6%에서 2004년에는 73.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기관은 실제 벤처 투자자와는 달리 벤처기업 판정에 따른 책임원리가 매우 약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원리가 충실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도 있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벤처기업은 2004년 전체의 7.0%로 오히려 그 비중이 가장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벤처기업 확인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표 V-6> 연도별 벤처기업 확인유형 분포

(단위: 개사, %)

구 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기업	계
2001년	1,514 (15.2)	965 (9.7)	7,537 (75.1)	10,016 (100.0)
2002년	810 (13.5)	838 (14.0)	4,342 (72.5)	5,990 (100.0)
2003년	801 (14.0)	1,036 (18.0)	3,921 (68.0)	5,758 (100.0)
2004년	319 (7.0)	892 (19.5)	3,363 (73.1)	4,574 (100.0)

주 : 2001년과 2002년의 신기술기업은 기술평가기업과 특허신기술기업을 합산함.
자료: 중소기업청(200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지난 해 말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지원제도의 변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표 V-7> 참조). 첫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한다. 현행 벤처기업 요건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자기책임 하에 기술평가한 후 투·융자(보증)한 기업으로 개편¹⁸⁾하는 한편,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던 벤처확인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기업(R&D 5%이상)의 상당수가 혁신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중 시장검증과 유사한 과정¹⁹⁾을 통과한 “외부 투·융자 가능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한다.

<표 V-7> 벤처기업 요건개편 주요 내용

벤처유형		현행	개편
1단계		혁신능력평가	폐지
2 단계	①벤처투자기업	주식투자 10%	확대 · 벤처투자기관 범위 확대 · 기술평가보증·융자기업 신설
	②연구개발기업	R&D비율 5% 이상	개선 (사업성평가 우수 즉, 외부투융자 가능기업)
	③신기술평가기업	기술평가 우수	폐지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2005. 9.

둘째,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한층 엄격해진 벤처확인제도와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이다.

18) 자기위험 책임으로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투자기관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포함된다.

19)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하거나 융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셋째,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구축한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특징은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조합 등 벤처캐피탈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조성해 벤처창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공·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화시키고 정직한 실패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단계의 지원은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산학협력, 공공구매 등 수요기반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확대, 보증지원 방식을 과거의 실적심사 중심에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로의 전환,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 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숙·구조조정 단계에서는 코스닥 시장과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M&A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 공개기업과의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이익실현 시까지 이연시켜주는 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닥 기업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받는 심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소규모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 촉진을 위해 일시적인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변화의 핵심은 벤처기업의 보호·육성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력 배양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시장중심적 정책이 수적으로 열세하고 성공경험이 부족한 여성 벤처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정부 정책변화가 여성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벤처확인제도의 변화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여성 벤처기업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현재 '신기술 기업'으로 분류된 벤처기업 중 일부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의 인증을 받아 기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 중소기업(비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성 벤처기업이 벤처시장에서 투자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자금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성 벤처기업은 자금조달이 개인투자자

(엔젤), 창투사, 금융기관, 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다양한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창투사 등의 벤처캐피탈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2000년 이후로 결성된 여성 벤처기업펀드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고, 벤처 열풍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성공한 여성 벤처기업인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창투사 등의 벤처캐피탈 회사를 통한 직접 지원방식의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의 변화는 태동기에 있는 여성 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VI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139
2. 정책제언	147



1. 요약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인식되었고,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자금, 입지, 인력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어 왔다. '90년 후반에 조성된 우리나라 벤처창업 열풍은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한 원천으로 벤처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 벤처기업의 태동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 수가 2000년 백만 개를 넘어섰고, 전체 사업체의 35.7%(2003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창업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의 지식기반 제조업 비중은 0.4%(4,057개)에 불과하며,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68.7%가 집중되어 있는 점은 여성 벤처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 특별조치법 시한이 2007년으로 다가오에 따라, 정부의 벤처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대 이상으로 과열되었던 벤처 붐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기적인 벤처캐피탈 투자,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벤처기업을 진정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배양하기 위한 벤처육성 방안을 개편·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말부터 발표되는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의 핵심은 시장지향적 지원체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방침의 변화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여성 벤처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위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또한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 등의 경영활동 상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많은 여성 전문인력들이 기업가형 창업(entrepreneurial startups)을 통하여 벤처산업에 진입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기반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정부의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파악된 여성 벤처기업 수는 전체 벤처확인기업의 3.3% 284개사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사업체에서 여성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35.7%를 감안하면, 여성 벤처창업이 지극히 미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법적형태는 남성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가장 많았으나, 주식회사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95.0%)에 비해 여성 벤처기업(88.4%)이 낮게 나타났다. 기업공개 현황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97.2%가 미공개인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93.1%가 미공개기업이었다. 남성 벤처기업이 향후 기업공개에 대해 54.6%가 의사가 있음을 나타낸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45.7%만이 기업공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공개를 통한 적극적 성장의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벤처기업의 재무상황은 자본, 자산, 부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고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 또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다. 자기자본비율,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모두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은 109.8%로 남성 벤처기업의 139.0% 보다 낮았다.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금융비용과 부채비율이 낮아, 자본구조가 건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실적을 보면, '기술개발자금'의 활용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에서 모두 4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중소·벤처 창업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 '특정연구개발자금'의 활용 비율은 낮았다. 정책 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평균 자금 활용액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이 5,323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5,873만원보다 550만원 적었다.

해외진출은 여성 벤처기업의 35.5%가 진출한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그 비율이 48.0%로 여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다. 해외 수출 및 투자실적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한 여성 벤처기업은 한 개사도 없어 여성 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이 남성 벤처기업에 뒤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진출지역에서도 남성 벤처기업은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에 고르게 분

포하고 있었다. 해외진출 장애요인으로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우수한 파트너 발굴애로'와 '자금부족', '전문인력부족'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남녀 벤처기업 각각에 요인을 분석하려 했으나 여성 벤처기업의 표본수가 극히 미비하여 성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성장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성별은 매출액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구개발투자', '기업규모', '석사이상 근로자수' 등이었다. 이중 '연구개발투자비'의 자승항(SqRnD) 만이 매출액성장애 (+)의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기업규모가 클수록, 석사이상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매출액성장애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벤처기업일 수록 매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자금 면에서는 소규모 경영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외진출, 기업공개, 신규 투자에 대해 남성 벤처기업 보다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은 여성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창업 초기부터 정부의 지원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기 여성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신장과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나. 여성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남녀 벤처기업의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성 벤처기업의 문제점을 남성 벤처기업과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특성에서 남녀 벤처기업의 차이는 대표이사의 전공계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여성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이 35.8%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자연공학계열'이 56.4%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이전 경력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국내 중소기업 근무'가 30%대로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고,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가사'가 12.2%로 분포하는 것이 남성 벤처기업과 다른 점이었다. 이전 경력과 현재 기업의 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63.0%가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 벤처기업의 90.2%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 벤처기업인의 인문사회계열 전공 비중이 높고, 이전 경력분포에서 '가사'와 '미취업'이 높게 나타나 기술관련 전공 및 직업경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벤처확인 유형에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신기술기업'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으나, 신기술기업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은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았고, '연구개발기업'과 '예비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여성 벤처기업의 업력 분포는 남성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이상~10년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업력 또한 남성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3.8년이였다.

여성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84.0%로 남성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 65.9% 보다 높았다. 여성인력 비율은 남성 벤처기업이 60.5%로 여성 벤처기업의 44.9% 보다 높았으나, 여성인력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남성 벤처기업이 46.0%로 여성 벤처기업의 여성인력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27.1% 보다 높아 남성 벤처기업에 고용된 여성인력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인력 분포에서는 '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벤처기업 14.7%로 남성 벤처기업의 13.4%보다 높았다. 직종별 평균인원에서는 '생산직'이 여성 벤처기업 14.3명, 남성 벤처기업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직'은 여성 벤처기업이 6.9명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4.2명보다 많았다.

직종별 인력 수급 상태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영업·마케팅'인력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대해 60%이상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인력수급이 비교적 원활하였다.

'연구개발직'의 인력 충원 방법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학교 추천', '관련 업계 전문지 구인광고',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소개소', '신문, 라디오, 매체 이용', '거래처' 등의 이용률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높아 여성 벤처기업이 공식적인 인력 충원 방법을 남성 벤처기업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복리 후생 제도에서는 '연봉제' 실시가 여성 벤처기업 68.2%, 남성 벤처기업 69.0%로 남녀 벤처기업에서 모두 높았다.

조사된 남녀 벤처기업의 주력 기술 부문은 'IT'가 가장 많았고 이어 'BT', 'ET'의 비율이 높았다. 'NT'와 'CT'의 경우, NT는 남성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았으며, CT는 여성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CT(문화·컨텐츠 기술)'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특허권', '국내의장권', '국내실용신안권', '국내상표권', '해외산업재산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보유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모두 높았고 각각의 산업재산권의 보유건수에 있어서는 '국내 상표권'과 '해외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재산권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평균 보유건수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많았다.

연구개발(R&D) 활동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90%이상 수행하고 있었고 수행 주체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가장 많아 자체조직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 남성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여성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높은 것에서 차이는 약간 있었다. 자체조직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만큼, 연구개발 방식도 '자체개발'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70%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차이가 있다면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산·학·연 공동개발'의 비율은 높고 '기술도입' 비율은 낮은 것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55.1%, 남성 벤처기업의 53.0%가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부문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기술부문'이 많았는데 특히, 여성 벤처기업은 '기술부문'에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89.8%나 되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5%미만이 가장 많았고 100%이상 투자하는 기업도 여성 벤처기업이 3.3%, 남성 벤처기업이 2.5%나 되었다.

2003년 대비 2004년 당기순이익 변화에 대해 여성 벤처기업의 69.9%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동 기간에 남성 벤처기업은 54.7%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증감과 기업환경능력을 연계해 본 결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벤처기업들의 기업환경 능력에 대한 자체평가는 '경영', '영업' 부문이 '산업'과 '거시환경'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평가한 것이 많았고 남녀 벤처기업의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의 기업환경 능력에 대한 결과는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심각한 쪽으로 평가한 점수가 높았고 '경영', '영업' 부문 보다 '산업', '거시환경'에 대해 심각하다고 보는 비율이 남녀 벤처기업 모두 높았다.

자금 조달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창업가 본인'과 '자체신용'의 비율이 높았고 투자기관별 평균 투자금액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모두 적은 가운데 격차가 가장 적은 것은 '중진공 정부투자기관'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활용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두 남성 벤처기업 보다 활용비율이 떨어졌다. 정책자금 활용 만족도에서는 '창업자금지원'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만족도가 50.0%로 남성 벤처기업의 27.3%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차이가 났으며 나머지 정책자금의 만족도에서는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 보다 높아 비교가 되었다.

정책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 '보증기관의 이용방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자금지원 규모가 작다' 등을 많이 지적한 것은 동일하였으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을 원한다'가 5.6%나 되었다.

조사에 응한 남녀 벤처기업의 자금 상황은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양호하다'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어렵다'의 비율이 높아 대조적이었다.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한 것으로는 남녀 벤처기업 모두 '자금공급의 원활화'와 '신기술 창출기반의 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성 벤처기업 보다 '세제지원 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 벤처기업은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52.3%)'와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에 관한 상담연구(43.9%)', '사업의 발달단계에 따른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여성창업자에 의한 컨설팅'등의 순서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벤처기업이 보는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에서는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17.7%) 보다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병간호와 직업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시설확충(21.1%)'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어 남녀 벤처기업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여성 벤처기업이 수적으로 열세이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영 상태는 남성 벤처기업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성장과 확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자산, 매출, 자금 지원 등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성 벤처기업 보다 작았으나 벤처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과 관련하여 연구인력 확보와 산업재산권 취득, 연구개발(R&D) 활동에서는 남성 벤처기업과 비교해 뒤지지 않았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이나 취득 건수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성과가 남성 벤처기업 보다 다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자금 활용 비율이나 투자 금액 실적이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즉, 정부는 소수이지만 건실하게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운영 자금 지원과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 자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부가 향후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과 더불어 여성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3%에서 상승할 수 있도록 성장모멘텀(momentum)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가 여성 벤처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벤처특별조치법 이후, 정부의 각종 벤처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의 벤처확인제도는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확인한 벤처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확인 벤처기업에 다수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서 확인제도의 선별기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벤처확인 기업 수의 증가는 벤처기업 확인유형 중 신기술기업의 확인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벤처확인 유형별 분포를 보면(2005년 5월 현재),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4.7%, 연구개발 기업이 16.2%, 특허기술을 비롯한 사업성이 인정된 신기술 기업이 76.9%, 예비 벤처기업이 2.2%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총 16개 공적 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신기술 평가기업의 비중이 1999년 불과 11.6%에서 2004에는 73.1%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기업 지원제도 변화의 핵심은 정부주도적인 방식에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이다. 현행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던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벤처기업을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하여 자기위험 부담으로 투자·융자·보증한 기술우수기업으로 재정의 하면서, 기술, 사업성 등을 시

장시스템에 의해서 선별·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16개의 벤처평가 기관에 의해서 투자·용자 책임 없이 기술성을 단순 평가한 신기술기업 유형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면서, 벤처투자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의 벤처확인제도의 변화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여성 벤처기업 중 일부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인증 받아 기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은 일반 중소기업(비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될 것이다. 비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의 변화가 수적으로 열세하고 성공경험이 부족한 여성 벤처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자금조달에 있어서 여성 벤처기업이 투자처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 벤처기업은 자금조달을 개인투자자(엔젤), 창투사, 금융기관, 중진공동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다양한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벤처확인제도에 의한 자금조달의 의존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동안 성공한 여성 벤처창업자가 거의 없으며, 2000년 이후로 결성된 여성 벤처기업펀드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창투사 등의 벤처캐피탈 회사를 통한 직접 지원방식의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의 변화는 태동기에 있는 여성 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책제언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은 이미 백만 개를 넘어선 일반 여성기업과는 달리 태동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은 최근 과학기술분야로의 여성인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이전의 모태조직(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창업준비 과정부터 창업 단계, 초기 성장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 분야와 같은 비전통 업종에서의 여성 창업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장지향적 접근과 더불어 적극적 육성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인력과 여성기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이 여성을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호정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여성의 기업가형 창업활력을 통한 성장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이 시장경쟁 체제 하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과 여성인력들이 장기적으로 벤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여성인력의 양성과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는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 성장산업에서 여성창업 활력을 제고하고, 여성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신기술 분야 여성인력의 창업활력 제고

여성창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기업가형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모태조직에서 기술개발과 경영관리 경험을 체득한 여성 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창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고의 3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남성 벤처창업자는 67.0%가 이공계를 전공하였으나, 이공계를 전공한 여성 벤처창업자는 19.5%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신기술 분야의 여성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 여성 전문인력 풀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공계 대학의 여교수나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여성 과학자의 창업활동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과학자 비율이 12%로 증가했으며(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2004), 4년제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이 30.4%(교육통계연보 2004)까지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신기술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성인력의 풀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전문인력들이 모태조직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많은 경우, 기술적 아이디어보다는 기술을 상업화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부족이

다. 이러한 지식들은 해당 산업이나 기술분야에 특수한 내용(technology-specific)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창업 관련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자신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비전통 분야에서 창업하게 되는 여성의 경우,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벤처산업에 대한 정보와 벤처캐피탈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여성 벤처기업협회와 같은 여성기업 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여성 벤처기업 단체들이 아이디어와 경험, 정보를 교환하고, 아울러 잠재력 있는 예비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나. 여성 벤처기업의 금융지원 방안 강구

벤처산업 분야의 창업단계 및 초기 성장단계의 여성 기업은 수적인 열세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면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고, 창투사의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벤처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벤처기업을 선별·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전환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여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가용성을 높이는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여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성 벤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액자금대출과 같은 실질적 가용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 등의 간접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할당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 기업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적 관행 중 가장 높은 장벽은 금융기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공적 기관의 자금지원은 중요한 자금조달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 등에서의 여성 벤처에 대한 할당제는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한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보호 지원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 벤처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할당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간접 대출의 확대에 못지않게, 안정적 운영자금과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 금융 비중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시장 중심의 직접 금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 투자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여성 벤처기업도 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이 절대적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조달을 넘어, 외부 투자기관과 개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벤처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벤처의 코스닥 등록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코스닥 시장의 등록을 통하여 자금조달 원천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성 벤처 코스닥상장 지원'(가칭)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여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금융교육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자금계획, 기업공개, 주식·회사채 발행, 회사 인수, 기업 청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금융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벤처기업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성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벤처투자시장에서 여성 벤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가운데,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 간에 여성 벤처기업의 경영정보를 DB화하여 공유하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여성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기반 구축 지원

정부의 벤처확인 요건이 시장기능에 의한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로 강화되면서,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여성 벤처기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보유에 있어, 남성 벤처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의장권의 경우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보다 2배나 높은 보유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여성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상

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동종업체와의 M&A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기술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학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기술지원센터와 달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BT 및 CT 분야 등 여성 벤처기업의 진입이 증가하는 분야의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일정 기간 여성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중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개발지원은 자금지원의 성격과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여성 벤처기업이 해당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여성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덕필 외 (2000). “21세기 벤처기업의 활성화 전략”, 「산업경영연구」, 제23권 1호, pp.43-61.
- 김근영, 이갑수(200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이슈 페이퍼, 2004, 12.
- 김동연(2000).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및 운용전략”, 「회계와 세무」, 11월호, pp.8-29.
- 김영배 외 (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벤처인증기업 전수조사연구를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3권 1호, pp.3-38.
- 김종호(2001).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성과 영향요인”, 「산업경제연구」, 제14권, 1호, pp.313-324.
- 김진수·김재신(2002).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김홍범(1998). “한국벤처기업의 성공전략과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벤처경영연구」, 제1권 2호, pp.97-127.
- 남영호 외 (1998). “성공 벤처기업의 특성 사례연구,” 「벤처경영연구」, 창간호, pp36-56.
- 백낙기 외 (1999). 「중소·벤처기업 발전비전과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pp.1-43.
- 송장준(1997). “벤처기업, 그 본질과 육성방안,” 「월간 중소기업리뷰」, 중소기업연구원, pp.14-19.
- 송종국 외(2003).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송위진·신태영(1998). 「신기술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양인숙·이소연(2003).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지식근로자의 경력 개발」, 한

국여성개발원.

양인숙·장미혜·김난주(2004).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 여성개발원.

유세준 외 (2001).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제15권 2호, pp.1-32.

이윤보 외 (2000). “한국·미국·일본의 벤처기업 정책비교”, 「한일경상논집」, pp.23-57.

이장우(1997). “한국 벤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미 비교를 통한 벤처산업 발전전략: '97 한·미 벤처포럼」.

이장우 외 (1998). “벤처기업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벤처경영연구」, pp.69-95.

이장우(1999a). “일본 벤처기업의 현황과 정책”, 「벤처경영연구」, pp.135-167.

이장우(1999b). “성공벤처기업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1권 1호, pp.105-134.

이장우 외 (2001a). “벤처산업 집적화의 성공요인 : 미국, 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3권 3호, pp.3-33.

이장우 외 (2001b).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의 관점”, 「중소기업연구」 제23권, 4호, pp.23-48.

이장우 외 (2001c).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제9권 2호, pp.59-92.

이재걸·신혜숙(2005). “국내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산은조사월보」, 제594호, pp.1~33.

이진주(1984). 「모험기업, 모험자본, 기술창업자」, 대한상공회의소.

임윤철 외 (2005). 「새로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벤처) 정책 발굴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대용(1999).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제도에 관한 평가”, 「기은조사」 겨울호, pp.5-27.

정승호(2005). “IT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산은조사월보」, 제593호,

pp.50~65.

정진하(2005).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27권 1호, pp.125-156.

조덕희(2002). 「벤처산업의 성과와 과제」, 산업연구원.

주현(2002). 「현단계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과제」, 산업연구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4).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한정화 외(2003).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동기와 경영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5권 3호, pp.329-355.

Baum, J. R.(1995). "The Relation of Traits, Competencies, Motivation, Strategy, and Structure to Venture Growth,"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547-561.

Carter, N.M., T.M. Stearns, P. D. Reynolds & B. A. Miller(1994). "New Venture Strategies: Theory Development with an Empirical Bas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5, pp.21-41.

Jangwoo Lee(2000). "Challenges of Korean technology-based ventures and governmental policies in the emergent-technology sector" *technovation*, pp.489-495.

Javier Gimeno et al. (1997). "Survival of the fittest? Entrepreneurial Human Capital and the Persistence of Underperforming Fir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pp.750-783.

McDougall, P. P. et al.(1994). "The Effects of Industry Growth and Strategies Breadth on New Venture Performance and Strategy Cont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5, pp537-554.

OECD(2000). "Internationalisation of Venture Capital Activity in OECD Countries: Implication for Measurement and Policy",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p.1~54.

Scott Shane ,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pp.217-226.

SBA(2001). Women in Business, 2001, pp.1-32.

SBA(2001). An investigation of women-led firms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pp.2-38.

SBA(2003). Dynamics of Women-operated Sole Proprietorships, 1990-1998, pp.1-27.

The Diana Project: Women Business Owners and Equity Capital- The Myths Dispelled, 2001, Insight Report, Kansas City, MO: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부 록

<부록> 설문지

157

<부표>

173



<부록>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벤처기업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주)포커스리서치
---	-------------------------	-----------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벤처기업 발전전략을 위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조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자 특성, 자금, 인력, 기술개발 등에 관해 조사를 통하여 여성 벤처기업을 위한 기존의 정책을 점검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응답 내용과 관련된 귀 기업의 정보나 의견은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조사항목이 타 기관의 조사내용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본 연구의 조사목적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6월

조사대행기관: 포커스리서치

김영미 팀장 (02-501-0461) ympupa@focsuresearch.co.kr

조나경 연구원(02-556-6073) sampling@focusresearch.co.kr

조사주관기관: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

양인숙 연구위원 (02-3156-7134) insyang@kwdi.re.kr

김난주 연구원 (02-3156-7136) string@kwdi.re.kr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시/도)	(구/읍)	
응답자 성명	H.P		회사전화번호	
응답자 부서	직위		E-mail	

1. 사업체 개요

1-1.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1-2. 귀사의 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는 코드에 O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	산업분류업종	코드	산업분류업종
110	농업 및 임업, 어업	31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20	광업	320	건설업
210	음식료품, 담배, 목재, 나무제품, 섬유 제조업 및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330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여행사업제외)
220	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	34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30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34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40	기계제조업	34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25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4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5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4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6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50	연구개발업 및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26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60	교육·보건 및 기타 공공서비스업
283	방송수신기및기타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37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7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80	호텔업, 여행사업
280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0	금융 및 보험업
290	가구및기타제조업및재생재료 가공처리업	40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3. 귀사의 벤처확인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는 코드에 O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유 형		코 드
벤처투자기업		11
연구개발기업		21
신기술기업	특허기술	31
	고도기술수반사업	32
	산업지원서비스업	33
	이전기술	34
	중앙행정기관출연연구개발기술	35
예비 벤처기업		41

2. 대표자 특성

2-1. 현재 대표(이사)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2-2. 현재 대표(이사)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2-3. 현재 대표(이사)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고졸이하 -> **2-4번으로** 2)전문대졸업 3)대학졸업 4)대학원졸 이상

2-3-1. 그럼, 대표(이사)님의 최종학교 전공분야는 다음 중 어떻게 되십니까?

1)인문사회계열 2)예체능계열 3)사범계열 4)상공농수산계열
5)자연계열 6)의약계열 7)기타_____

2-4. 대표(이사)님의 이전 경력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국내 대기업 근무(종업원 300인 이상) 2)국내 중소기업 근무

- 3)사업체 경영
- 4)연구기관/대학근무
- 5)학생
- 6)가사
- 7)미취업 -> **3-1번으로**
- 8)기타_____

2.5. 대표(이사)님의 이전 경력이 현재 업종과 연관이 있습니까?

- 1)연관이 많다
- 2)연관이 있는 편이다
- 3)연관이 없다

3. 기업 일반 현황

3-1. 귀사의 성장단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귀사의 상황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 1) 창업기: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 2) 초기 성장기: 자사 최초의 대표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 3) 고도성장기: 후속 신규 제품/서비스도 출하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제품/시장이 다각화된 단계
- 4) 성숙기: 일반 중견기업으로 안정화되고 주식시장에도 상장된 단계
- 5) 정체기/재도약단계: 뚜렷한 매출 성과의 향상이 없이 기업 활동이 다소 정체된 재도약 준비 상태

3-2. 귀사는 다음과 같은 경영상의 애로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 정도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1) 자금조달 · 관리	1	2	3	4	5
2)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	1	2	3	4	5
3)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	1	2	3	4	5
4) 부품 조달 등 생산관리	1	2	3	4	5
5) 추가 기술개발	1	2	3	4	5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1	2	3	4	5
7) 경영관련 정보획득	1	2	3	4	5
8) 해외 진출	1	2	3	4	5

9) 거래기업과의 관계	1	2	3	4	5
10) 지적재산권보호	1	2	3	4	5

4. 경영 일반 현황

4-1. 현재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색 부분은 자동계산 되오니 흰 부분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관리			생산			기타		
	정규 직	비정 규직	계															
여성																		
남성																		
전체																		
인력 수급 상태	1)과잉 2)적절 3)부족																	

* 비정규직 :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

4-2. **(연구개발 혹은 영업·마케팅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체크)** 연구개발 혹은 영업·마케팅 부문의 인력부족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해당 항목을 기입하십시오.

(1) 연구개발: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2) 영업·마케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3. 귀사는 연구개발인력을 어떻게 충원하십니까? 3순위까지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1) 원하는 전공자의 배출인력이 절대부족
- 2) 배출인력은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고 분야가 잘 맞지 않음
- 3) 채용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음
- 4)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기 어려움
- 5) 채용 후 대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
- 6)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 모집의 어려움
- 7) 기타_____
 - 1) 신문, 라디오, TV 등 매체 이용
 - 2) 관련 업계 전문지에 구인광고 게재
 - 3) 자발적으로 구직의뢰
 - 4) 내부직원의 추천
 - 5) 지인의 추천
 - 6) 거래처를 통해
 - 7) 타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 8)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 9) 헤드헌터, 인터넷 구인업체 등 인력채용 전문업체를 통해
 - 10) 학교(대학, 전문대학)에 직접 요청
 - 11) 인턴사원채용
 - 12)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해
 - 13) 기타_____

44. 다음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 정도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직원 각자의 직무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1	2	3	4	5
2) 인력이 필요한 경우 외부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스카웃한다.	1	2	3	4	5
3) 빈 자리가 생기면 가능하면 내부승진을 우선적으로 한다	1	2	3	4	5
4)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경력개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다.	1	2	3	4	5
5) 승진은 철저히 업적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1	2	3	4	5

6) 같은 입사동기라 해도 업적과 능력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1	2	3	4	5
7)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성과에 대해 자주 피드백을 받는다	1	2	3	4	5
8)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는 직원 각자가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묻는다	1	2	3	4	5
9) 부하직원과 상사간에 목표나 성과에 대한 논의를 자주 하도록 하고 있다	1	2	3	4	5
10) 대부분의 중요한 계획은 경영진에서 수립하고 직원들은 이를 잘 수행하면 된다.	1	2	3	4	5
11)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가 우리 회사 경쟁력의 원천이다	1	2	3	4	5
12) 우리회사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실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1	2	3	4	5
13) 대부분의 직원들이 최소한 몇 년에 한번은 훈련(off-the-job-training)을 받도록 하고 있다	1	2	3	4	5
14)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인력을 빼내기가 쉽지 않다	1	2	3	4	5

***4-5 ~ 4-7번 응답은 4-7번 아래 박스에 기입해 주십시오.**

4-5. 귀사는 다음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4-6. **(도입한 경우)** 만약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면 해당 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직원의 비중은 전체 직원의 몇 %입니까?

4-7. **(도입하지 않는 경우)** 만약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도입여부 (4-5)	(도입한 경우) 적용되는 직원 비중 (4-6)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도입하지 않는 이유 (4-7)
1) 스톡옵션 제도	1) 도입 2) 비도입	%	1)1~2년 이내로 실시할 예정이다 2)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도입할 의사가 없다
2) 연봉제	1) 도입 2) 비도입	%	1)1~2년 이내로 실시할 예정이다 2)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도입할 의사가 없다
3) 주5일 근무제	1) 도입 2) 비도입	%	1)1~2년 이내로 실시할 예정이다 2)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도입할 의사가 없다

5. 기술개발

5-1. 귀사의 주력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핵심기술은 무엇입니까?

- 1) IT(정보기술) 2) BT(생명공학) 3) NT(나노기술) 4) ET(환경기술)
 5) CT(문화 · 콘텐츠기술) 6) ST(항공우주기술) 7) 해당 사항 없음

***5-2 ~ 5-3번 응답은 5-3번 아래 박스에 기입해 주십시오.**

5-2. 귀사는 다음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5-3. **(보유한 경우)** 만약 해당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몇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여부 (5-2)	(보유한 경우) 보유건수(5-3)
1) 국내 특허권	1) 보유 2) 비보유	건
2) 국내 의장권	1) 보유 2) 비보유	건
3) 국내 실용신안권	1) 보유 2) 비보유	건
4) 국내 상표권	1) 보유 2) 비보유	건
5) 해외 산업재산권	1) 보유 2) 비보유	건

5-4. 귀사는 현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5-5번으로**

5-4-1. **(5-4번의 1번 응답자만)** 귀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조직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3) 외부 기관에 위탁 4) 기타 _____
 5)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조직이 없음

6-2. 귀사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 투자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과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비율은 각각 몇 %입니까?

- * 연구개발비(R&D) 투자: 연구개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
- * 교육훈련비: 사내 혹은 사외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모든 교육훈련 비용

	2004년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	%
2)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비율 (%)	%

6-3. 귀사의 2003년 대비 2004년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 1) 증가했다 -> **6-3-1번으로**
- 2) 감소했다 -> **6-3-2번으로**

6-3-1.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사의 능력/환경에 부합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항목	매우 부족/ 불리하다	부족/ 불리하다	보통 이다	충분/ 유리하다	매우 충분/ 유리하다
경영	경영자의 능력	1	2	3	4	5
	직원들의 인화단결	1	2	3	4	5
	자금조달 능력	1	2	3	4	5
	성공적인 구조조정	1	2	3	4	5
영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1	2	3	4	5
	기술력, 연구개발능력 및 창의성	1	2	3	4	5
	저렴한 원자재 조달능력	1	2	3	4	5
	국내외 마케팅 능력	1	2	3	4	5
	고유브랜드의 확보	1	2	3	4	5
산업	정확한 사업성 및 시장예측	1	2	3	4	5
	산업환경의 의도/예측하지 않은 변화	1	2	3	4	5
	시의적절한 정책지원	1	2	3	4	5
	연관산업 또는 관련 인프라의 성장	1	2	3	4	5
거시환경	주 수출시장의 소득증대	1	2	3	4	5
	환율, 금리, 주가지수 등 거시요소의 움직임	1	2	3	4	5
	유가, 원자재 국제가격의 변화	1	2	3	4	5

-> **6-4번으로**

6-3-2.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사의 능력/환경에 부합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항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 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경영	경영자의 무능력, 도덕적 해이	1	2	3	4	5
	주주, 직원들의 불화	1	2	3	4	5
	자금조달 능력 부족	1	2	3	4	5
	구조조정 실패	1	2	3	4	5
	위기관리 능력 부족	1	2	3	4	5
	주기관리 및 경영권확보 실패	1	2	3	4	5
	노동쟁의, 이직, 비리, 횡령	1	2	3	4	5
영업	마케팅능력 부족	1	2	3	4	5
	기술력, 연구개발능력 부족	1	2	3	4	5
	적정마진 확보 실패	1	2	3	4	5
	고유브랜드 형성 실패	1	2	3	4	5
	주거래처의 대량 주문 취소	1	2	3	4	5
	지적재산권, 특허권 분쟁	1	2	3	4	5
산업	사업성 및 시장예측실패	1	2	3	4	5
	산업환경의 의도/예측하지 않은 불리한 변화	1	2	3	4	5
	정책불비 또는 지나친 규제	1	2	3	4	5
	연관산업부진/관련인프라불비	1	2	3	4	5
거시 환경	주 수출시장의 소득감소	1	2	3	4	5
	환율, 금리 등 거시요소의 불리한 변화	1	2	3	4	5
	원자재 국제가격의불리한변화	1	2	3	4	5
	타켓시장의 경기침체	1	2	3	4	5
기타	환경오염, 사고등으로비용과다	1	2	3	4	5
	국내외 인허가 요건 반대	1	2	3	4	5
	천재지변, 전쟁 및 테러피해	1	2	3	4	5

6-4. 귀사의 자금 조달 현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2004년 12월 현재
투자	- 창업가 본인	%
	- 개인투자자(엔젤)	%
	- 벤처캐피탈	%
	- 코스닥(KOSDAQ)	%
	- 증권거래소	%
	- 기타	%
융자	- 친지, 인척, 지인 등	%
	- 신용보증기금	%
	- 자체 신용(은행, 투자신탁 등)	%
	- 기타 _____	%
합 계		100 %

6-5. 귀사가 투자 받은 실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흰 부분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관	투자실적 (2004년)
-창투사 등벤처캐피탈	만원
-타 기업	만원
-금융기관	만원
-개인투자자(엔젤)	만원
-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	만원
-기타	만원
계	(자동계산)

***6-6 ~ 6-7번 응답은 6-7번 아래 박스에 기입해 주십시오.**

6-6. 귀사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6-7. **(활용경험이 있는 정책자금의 경우)** 만약 있다면 해당 정책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책내용	활용여부 (6-6)		(활용한 경우) 만족도(6-7)		
	예	아니오	불만족	보통	만족
1) 무담보 신용보증지원	1	2	1	2	3
2)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	2	1	2	3
3) 법인세(소득세)감면	1	2	1	2	3
4) 경영안정자금	1	2	1	2	3
5) 구조개선자금	1	2	1	2	3
6) 기타 지방세 감면	1	2	1	2	3
7) 창업지원자금	1	2	1	2	3
8) 창투사 투융자	1	2	1	2	3
9)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인정	1	2	1	2	3

6-7-1.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에 대해 불만족한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정책의 종류에 대해 알기 힘들다.
- 2)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 3) 보증기관의 이용방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 4) 서류심사기간이 길다.
- 5) 보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 6) 자금 지원규모가 작다.
- 7) 자금 상환기간이 짧다.
- 8) 담보 및 신용등급 등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 9) 여성기업의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을 원한다.
- 10) 기타 _____

7-2. 현행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신기술 창출 기반의 강화 | 2) 자금공급의 원활화 |
| 3) 인력공급의 원활화 | 4) 입지공급의 원활화 |
| 5) 세제지원 방안 | 6) 창업투자회사의 기능 강화 |
| 7) 기타_____ | |

7-3. 여성 벤처기업인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1)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에 관한 상담창구
- 2) 여성창업자를 우대하는 투융자 채무보증제도
- 3) 사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여성창업자에 의한 컨설팅
- 4) 인재, 시장, 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 5) 가사, 육아 또는 가족병간호와 직업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시설확충
- 6) 같은 의지를 갖는 여성창업자들과의 교류
- 7) 개업준비,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 노하우 습득을 위한세미나

- 장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표 1>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 변수 설명

성 과	독립변수		
매 출 액	연령	Age	여성기업인의 현재 연령
	학력더미	Dsch	Dsch1=1 전문대졸, Dsch2=1 대졸, Dsch3=1대학원. 기존학력은 고졸이하이고 학력 시점은 연령과 동 일하게 현재임.
	경력*더미	Dcar	Dcar1=1은 여성기업인의 경력이 있음을 나타냄.
	기업규모	Siz	종업원 수
	연구개발	RnD	연구개발투자액
	중장기계획	Dplan	Dplan1=1은 중장기 계획이 있음을 나타냄.
	자기자본	Cap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
	산업재산권	Esa	특허권, 의장권, 신안권, 상표권, 해외재산권 보유 건수를 말함.

자료 : 양인숙·장미혜·김난주(2004),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한
국여성개발원, p.82.

<부표 2>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 결과

성과변수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매 출 액	Constant	-1332.130	554.599	-2.402	0.017
	Age	447.846	147.898	3.028	0.003
	Dsch1	663.563	397.699	1.669	0.096
	Dsch2	1202.966	339.841	3.540	0.000
	Dsch3	2562.065	571.749	4.481	0.000
	Dcar	202.608	274.555	0.738	0.461
	Siz	11.907	1.863	6.390	0.000
	RnD	-0.055	0.020	-2.801	0.005
	Dplan1	840.388	267.237	3.145	0.002
	Cap	1.459	0.091	16.114	0.000
	Esa	-1.230	4.782	-0.257	0.797

R2=0.660, 수정R2=0.436, D.W=1.567 F=53.328 Sig=0.000 (n=701)

자료 : 양인숙·장미혜·김난주(2004),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한
국여성개발원, p.83.

2005 연구보고서-13

기술집약형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2005년 12월 28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대)

<정가 6,000원>

ISBN 89-8491-141-0 93330